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의뢰한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요약

연구 요약

1. 서론

1)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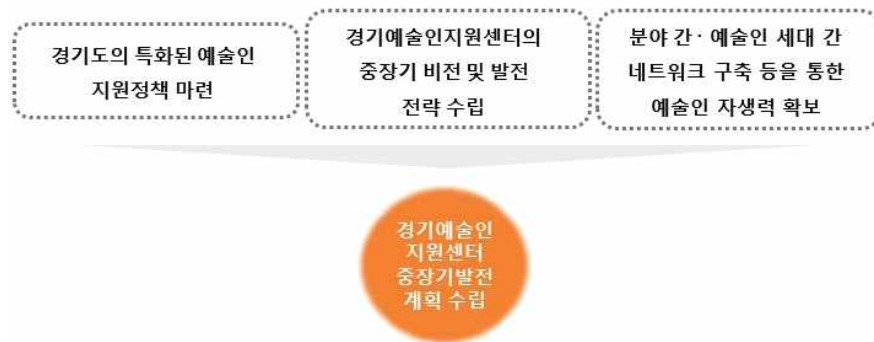
- 예술인들은 낮은 예술활동 수입과 더불어 직업적 특성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및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등 예술인에 대한 처우와 예술가를 직업으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 또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광역 단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존 예술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의 특화된 예술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사회보장, 창작활동 지원, 생활 지원 등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등 소외 예술인에 대한 관심도 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또한 코로나19 또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기도 예술인 지원의 핵심 주체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센터의 운영과 경기 예술인지원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계획수립 목적

- 경기도 예술인 지원사업의 분석을 통해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광역 단위 예술지원센터에 특화된 역할과 및 비전, 방향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수립된 비전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핵심사업과

세부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함

- 특히 기존 예술인지원사업의 개선 또는 발전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일회성의 단기적 대응요법이 아닌 경기도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 또는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예술인의 생활보장과 더불어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을 통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축,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0-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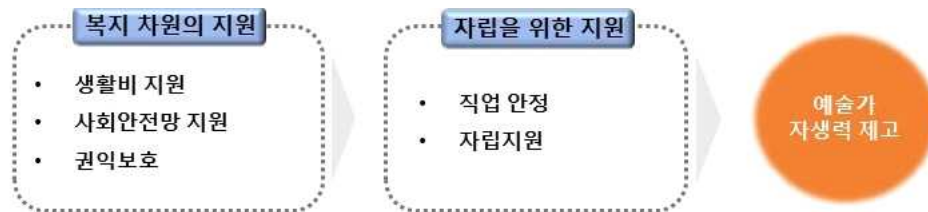
3) 예술인 지원의 정의 및 배경

- 예술에 대한 지원은 예술 프로젝트 지원, 예술 향유자 지원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제까지의 예술 지원은 예술 향유의 확대(예술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예술 프로젝트 및 예술 향유자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음
- 최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사태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음. 온택트 콘텐츠는 기존에도 존재해 왔지만, 이번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문화예술 콘텐츠가 가져야 할 소비자 측면에서의 브랜드 형성, 콘텐츠로서의 영향력,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게 됨



[그림 0-2]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 예술인 지원은 고용보험 수혜 예술가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원, 직업적 안정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등과 더불어 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기술 인프라 지원, 예술 상호작용의 확산을 위한 유통, 마케팅 지원, 예술산업 생태계 지원 등을 방향성으로 하는 ‘예술인 자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그림 0-3] 예술인 지원의 변화

4) 계획수립 범위 및 방법

- 계획수립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행정권역 일대
 - 시간적 범위 : 10년(2021년~2030년)
 - 내용적 범위 : 경기 예술인 현황 분석, 경기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경기 예술인 생활 및 창작 여건 분석, 예술인지원 법령·계획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상위 법령 분석(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경기도 관련 법령 분석, 국내·외 예술인 복지 지원 사례조사, 기 추진 예술지원 사업 분석(예술인복지재단, 기타 광역시 예술인 지원센터 등), 예술인협동조합 관련 최근 동향 파악, 전문가 의견수렴,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분석,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비

전 및 사업계획 수립(방향성 및 목표, 전략, 핵심사업 도출), 장애인 예술인 등 소외계층 지원 방안 제시, 예술인 자립을 위한 네트워킹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로드맵 제시

연구범위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행정권역 일대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30년(10년간)
내용적 범위	- 경기예술인 현황 분석 - 예술인지원 법령·계획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분석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 로드맵 제시

[그림 0-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의 범위

○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크게 환경 및 수요조사(Module I)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전략 수립(Module II) 등 두 섹터로 구성됨



[그림 0-5]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프로세스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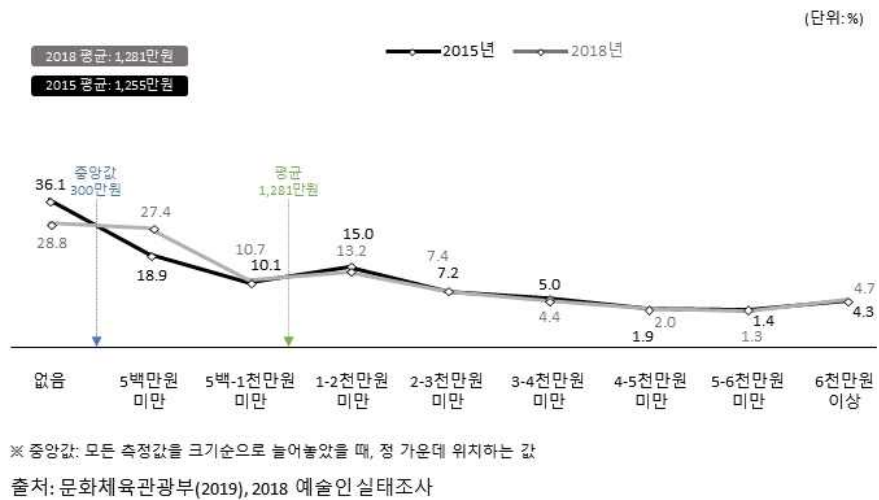
- 중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업을 도출하여 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 예술인의 자립과 경기예술산업의 발전을 지향함
- 전국 지역 예술인지원센터의 중심으로써 광역문화재단 산하 예술인지원 센터들의 방향성을 선도하는 비전과 역할을 수행함

2. 환경 분석

1) 경기도 예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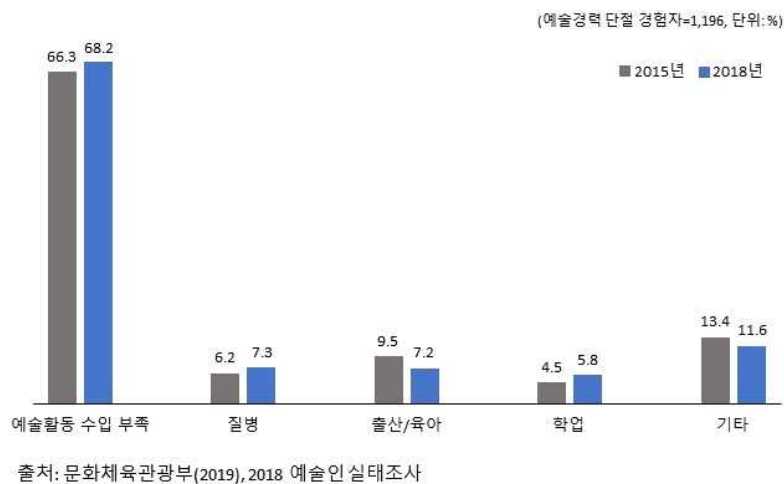
- 예술인의 정의
 - 본고에서는 예술인복지법과 저작권법, 한국표준 직업분류상의 예술인의 해석을 따르기로 함
 -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예술인 복지법」),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예술 활동실적이 있거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있는(「저작권법」)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업적으로는 전업 작가·자유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단속적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장르는 폭넓게 해석하여 법적·제도적 정의와 주요 공공기관들의 분류체계, 주요 광역문화재단들의 분류체계에서 정의하는 범위로 규정함
 - 이른바 생활예술인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예술교육 지원이나 예술경영 등의 활동을 하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의로 변경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예술인 일반 현황
 - 2020년 3월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7만 3,231명임

- 2017년 예술인 각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으로 국민가구 소득 평균 5,705만 원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1,480만 원)가 있었으며,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은 1,281만 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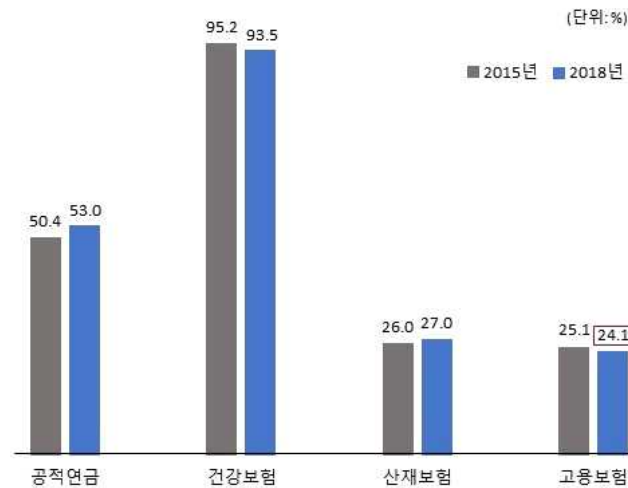
[그림 0-6]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 조사대상 예술인 중 57.4%가 전업 예술인이며,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의 비율이 76%임
- 예술인의 경력단절 이유로는 68.2%가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부족으로 나타남



[그림 0-7] 예술인의 예술경력 단절 이유

-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률은 37.3%에 불과하였으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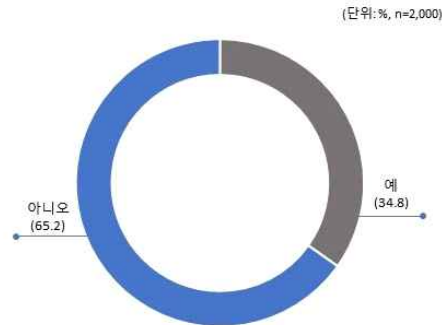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0-8] 예술인의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률

- 예술인 일반 현황의 시사점
 - 추산되는 예술인 약 18만 명 중 예술인복지사업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예술 활동증명을 득한 예술인은 7만 3231명 정도에 그침
 - 그중 5만 2,20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술 활동증명의 총체적인 홍보와 가입확대 노력이 요구됨
- 경기도 예술인 현황
 -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단체와 시·군 문화원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6만6천879명으로 조사되어 '2018 예술인실태조사'의 5만 2,207명보다 약 1만4천여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만화' 분야의 수입이 2,57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진' 분야는 76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예술인은 고양시(8.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원'(6.5%), '성남'(6.0%), '용인'(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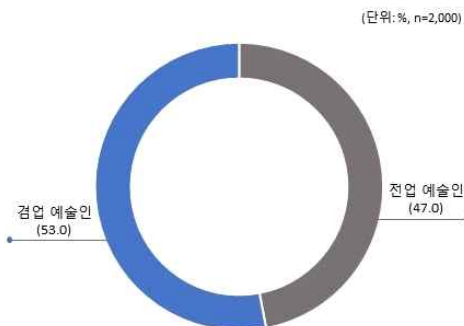
- 응답자의 3명 중 1명 정도(32.9%)가 지난 1년간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경기도 예술인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만이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34.8%)으로 나타남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0-9]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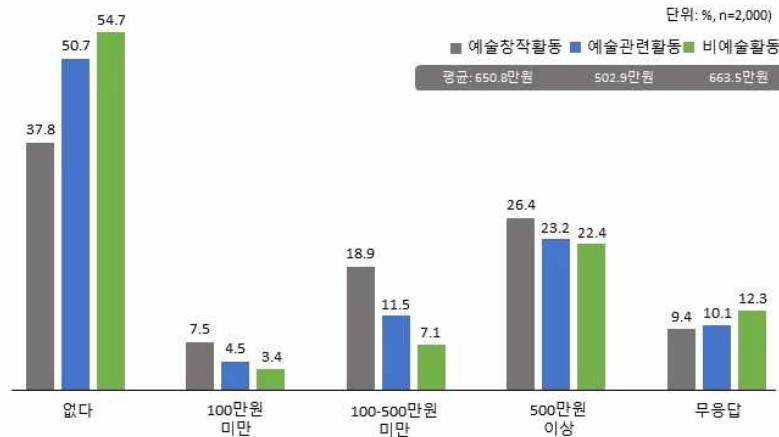
-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 4명 중 1명 정도는 '집 안(거주공간)의 별도 공간'(26.5%)이라고 응답함
- 경기도 예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창작공간의 소유 형태는 응답자 5명 3명 정도가 '월세'(58.5%)라고 응답함
-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위한 별도창작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창작공간 구성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1.9점으로 나타남
- 경기도 예술인의 가입된 예술인 협·단체 개수는 평균 1.9개였음
- 경기도 예술인은 '전업예술인'(47.0%) 보다는 '겸업예술인'(53.0%)이 조금 더 많으며, 전업예술인의 5명 중 3명 정도가 '프리랜서'(61.4%)임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0-10] 전업/겸업 예술인 여부

- 경기도 예술인의 지난 1년 간의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651만 원, 예술 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503만 원, 비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은 평균 664만 원으로 나타남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0-11] 지난 1년간 예술 및 비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

- 경기도 예술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5명 중 2명 정도가 ‘지역 가입자’(40.8%)였음. 경기도 예술인의 3명 중 2명 정도(68.0%)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 예술인의 4명 중 3명 정도(70.9%)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0-12] 고용보험 가입형태

○ 경기도 예술인 현황 시사점

-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개인(38.0%)’보다는 ‘단체(팀)(59.8%)’로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가들을 조직화하거나, 단체 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업예술인’의 경우도 9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평균 1,281만 원(2018예술인실태조사)의 71% 수준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와 별도로 경기도 차원의 예술인복지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절실함을 시사함
- 예술인 협·단체 개수는 평균 1.8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인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성향이 있어 단체가입에 소극적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상치되는 것임
-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위한 별도창작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창작공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21.9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남. 이는 경기도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공적 연금(5명 중 2명), 산재보험(3명 중 2명), 고용보험(4명 중 3명)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많아 기본적 생활보장이 취약함

2) 국내외 환경 분석

- (정치) 민선 7기 지자체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도시 및 지역의 쇠퇴에 대응한 대안 모색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치와 분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됨
- (경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세계유행(Pandemic)을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추진 또한 활발해짐
 - 국가 간 수출 및 입국제한 등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축상황이 발생하여 금융시장 불안 등 경기침체가 초래됨
 - 한국경제성장률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초래된 경기침체로 소비규모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제품과 플랫폼을 찾는 소비의 증가로 인해 니치(틈새)를 더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니치(ultra-niches) 마케팅이 중요해짐
- (사회)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

구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뚜렷함

- 싱글족이나 만혼, 비출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규모 축소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 한편, 더는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으며 삶을 즐기며 사는 50~60대를 일컫는 뉴시니어(New Senior)가 등장함

○ (문화) 코로나19로 인한 재해문화 현상 대두

-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재해문화와 관련해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접촉 인구 증가
- 비대면 소비방식과 재택근무의 확산이 일상화됨

○ (기술)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예술의 등장

- 현대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또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이뤄지며 변모하는 추세
-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들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있음

○ (상위 법령)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시행(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 2020년 5월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¹⁾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 및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 『예술인복지법』 하에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을 대상으로 함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2020.5.20.).

- (상위 법령)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
 -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 고용지원, 장애인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함
- (상위 법령)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관한 법률
 - 21대 국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발의됨에 따라 예술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09.11.)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함
 - 예술인의 피해구제와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계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핵심 내용으로 함
 - 예술현장과 예술 행정,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문화까지 아우르는 변화를 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함
-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2월,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함
- (경기도의 관련 정책) 경기도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 비전으로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하나되는 경기”로 설정하고 문화예술을 소극적인 지원정책, 주관적·정서적 민족과 여가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던 소극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
 - 전략목표로 ‘문화의 미래 경기, 미래의 문화 경기’, ‘문화로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경기’,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문화로 하나되는 경기’ 등 설정

〈표 0-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의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전략목표	세부전략목표	전략과제(아젠다)
문화의 미래 경기 미래의 문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경기천년 이미지 제고 한류 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정체계 개편 경기천년 문화이미지제고 한류 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문화로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가 있는 삶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의 발신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가 있는 삶 일상화 문화예술 창작의 발신지로 전환 문화재정 3% 확충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환경 조성 및 지역재생 시민문화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의 시민문화활동 거점화 문화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재생
문화로 하나되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정신문화의 중심지 조성 문화격차 해소 남북 문화교류 거점지역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정신문화와 공동체 가치 제고 경기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DMZ에 평화·생태 예술창작 중심지 조성

출처: 경기도(2020)

- (경기도의 관련 정책) 경기도는 ‘경기비전 2040’을 수립함
 - 비전은 “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이며 3대 목표는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경기관광의 세계화 등임
 - 문화 분야에서는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경기지역학 육성 등 3개 아젠다를 추진

3) 내부 환경 분석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997년 7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광역문화재단
 - 2019년 8월, 경기북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의정부 사무소 개소(운영 인원 30여 명)
 - 민선 7기 도정방향에 부응하는 新비전체계 수립 및 미래비전 성취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설정
 - 경기도의 문화비전인 “문화로 가꾸는 행복한 삶”을 심화할 수 있는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20~2024)을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민주주의시대 시민생활문화 육성지원 확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지역 문화사업 확대,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뮤지엄 기획전 개최 등이 있음
 -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예술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거점공간 조성, 아트경기,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음

〈표 0-2〉 경기문화재단 사업 개요

사업분야	사업내용
예술창작진흥	예술지원 / 아트경기 / 예술프로젝트 / 경기창작센터
지역문화사업	경기에코뮤지움 / 지역문화재생 / 경기북부문화 플러스 / G-Public Art
생활문화	경기상상캠퍼스 / 경기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 경기시민예술학교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복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경기문화나눔센터
경기학 진흥	경기학 통신 / 경기역사총서 / 매거진
정책·교류	문화정책연구 / 정책·교류사업 / 문화이음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권리향상과 창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설립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예하 문예진흥팀 소속으로 센터장 1명, 상시직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그림 0-13]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조직도

- 2020년 사업예산은 경기문화재단 전체 예산의 약 1%인 약 11억 6천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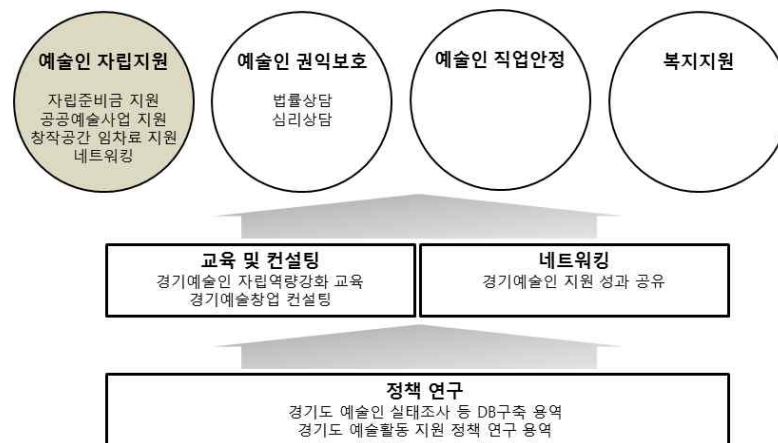
〈표 0-3〉 사업별 예산 추이

(단위:천원)

사업별 예산 내용	2019	2020	비고	
인건비	100,000	117,500		
센터 운영비 (자문, 홍보, 임차 등)	40,000	113,000		
예술인상담 운영(법률/자문/ 심리 등)	26,000	36,000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18,000	신규	
경기예술인 자립역량강화 교육 (아카데미/스타트업)	68,000	30,000	2019	2020
			아카데미 (1천5백만원) 스타트업 (각2천만원)	*아카데미 온라인강의 *아트스타 트업 미진행
예술인실태조사 등 DB구축 연구용역	100,000	-		
경기도 예술활동 지원 정책 연구용역	-	20,000	신규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620,000	621,000	지원금(6억원)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66,000	101,000	2019	2020
			지원금 (6천만원)	지원금 (9천만원)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	28,500	신규	
경기예술인 지원 성과 공유	20,000	75,000	2019	2020
			2019포럼	경기청년관
합계	1,040,000	1,160,000	각 사업별 운영비 포함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예술인 권익보호사업,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예술인지원 정책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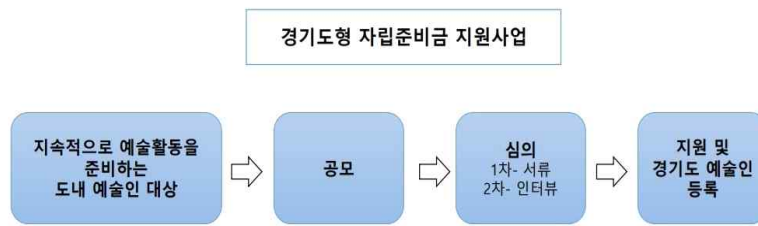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재구성

[그림 0-1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사업체계도

- ‘경기예술인 상담in 운영’의 사업 내용은 예술인 상담체계 구축 및

- 상시 운영, 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예술인 특별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임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중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은 사업체 및 협동조합 결성 등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자립준비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과 예술분야 일자리 확대 추진함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2020), 재구성

[그림 0-15]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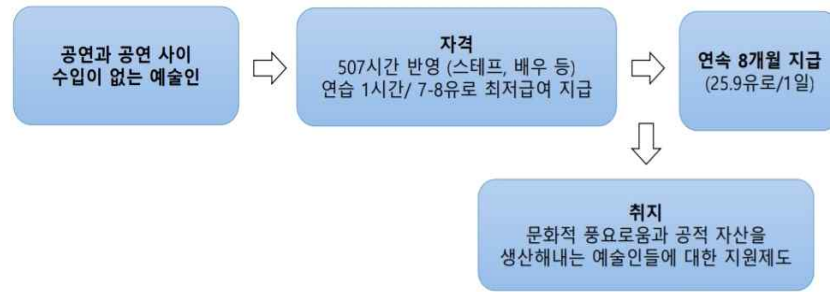
- ‘예술인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 및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도내 예술인의 창작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임차료(월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창작공간 임차료를 임차료의 최대 50%, 최고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경기도 예술인 아트스타트업 및 창업컨설팅’은 道예술인의 아트스타트업 프로그램 워크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운영하고 예술사업체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
- ‘경기예술인 지원성과 공유’는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선정 예술인의 분야별 성과발표 자리 마련을 통해 예술인 교류 및 네트워크의 계기를 마련함
- ‘경기예술인 아카데미’는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및 장려하고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지원체계 구축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함.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구성
- ‘경기도 예술활동 지원정책연구’는 공간(인프라)-재정-네트워크(인적자원) 연계 지원 조사를 추진. 2019년 경기도예술인 DB 구축 및 기초현황 실태조사(2,000명)를 시행한 바 있음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센터와 차별화되고 보다 폭넓게 경기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자립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함

3. 사례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1) 분야별 사례분석

-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해외 사례로는 스웨덴의 틸트(TILLT) 아이리스(AIRIS) 프로젝트가 있음
 - 틸트(TILLT)는 1973년 스웨덴 문화위원회가 위탁한 비영리 민간 조직임
 - 비영리 민간기업인 Skadebanan Vastra Gotaland에 소속되어 예술가를 기업이나 조직에 파견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직업영역이 창출되도록 예술적 개입을 시도함
- 예술인 권익보호 해외 사례로는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법(The status of the Artists)을 들 수 있음
 - 1992년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됨
 - 연방정부법령으로 자영업자 형태의 예술인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창작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경제적,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예술인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 사례로는 앙떼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 프랑스), WWIK(네델란드),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unstler sozial versicherung: KSV, 독일), 예술가의 집(La Maison des Artistes, MDA, 프랑스), 실업급여(벨기에) 등이 있음
 - 앙떼르미땅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속성을 가진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인들에게 공연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지원 대상은 배우, 연주자, 가수, 연출자, 영화감독, 기획자, 편집인, 음향조명 기술자, 무대제작자, 소품기획자, 미용사, 분장사 등 모든 공연, 영화, 방송 관련 종사자 등임



[그림 0-16] 앙데르미땅 개요

- WWIK는 Dutch Artists' Work and Income Scheme Act(WWIK, Wet werk en incomen kunstenaars)의 약자로 예술인의 최저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네델란드의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임. 직업예술인으로서 경력을 막 시작한 젊은 예술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대 4년(48개월) 동안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지원함
 -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unstler sozial versicherung: KSV)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인들이 가입 대상임. 자영 형태의 예술과 출판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2007년 기준 3,900유로 이상), 해당 예술활동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업활동이어야 하며,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음
 - 프랑스 '예술가의 집'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조합으로 출발해 1965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예술가 사회복지 전담조직으로 인정받음. 매달 30유로 이하의 회비를 내는 예술인은 의료, 출산, 육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소득의 18%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음
 - 벨기에의 실업급여는 1년 기준 약 6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수급기준과 진입장벽이 높음. 예술가가 작품을 하고 받은 임금을 예술가 기본 일일 수입으로 나누어 일일 계산을 하는 특수한 작업 일수 계산법을 도입하여 진행함
- 예술인 자립 지원 해외 사례로는 미국 시카고의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와 시카고 예술가 자원(Chicago Artist Resource: CAR), 그리고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를 들 수 있음

-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는 시카고시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비영리 예술 부문 개발업체인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Artspace Projects, Inc)와 협력하여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발함
 - 시카고는 또한 시카고 예술가 자원(CAR)을 통해 예술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와 자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Chicago Artist Resource, CAR’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예술가에 의해, 그리고 예술가를 위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예술커뮤니티를 형성함
 -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영국협동조합운동을 위해 국내외로 협동조합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780개의 회원조직과 3,500개의 회원조직에 소속된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영국 사회 전반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를 증진하며, 협동조합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국내 사례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취업지원교육 사업 등이 있음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직업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 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예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 예술가를 비예술 영역인 기업·기관에 파견하여 파견지의 이슈를 예술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개입을 통해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함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타 장르에 비해 예술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무용수들의 예술활동, 은퇴무용수의 전직 및 복지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
 - 예술인 권익보호 국내 사례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사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예술인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국내 사례로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과 예술인 산재보험, 인천문화재단의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예술인 자립 지원 국내 사례로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술경영아카데미, 작가미술장터(이상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천 작가 미술작품 구입,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상 인천문화재단)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의 사회보장, 직업안정,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임
- 조직은 이사회-상임이사-운영본부, 예술인고용보험TF로 구성됨
- 예술인 사회보장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예술인복지법 제10조)
-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는 예술인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 등이 있음.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주택자금(용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국민보험, 고용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등임. 하지만 직접적인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을 예산 및 조직 구성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0-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및 조직 구성

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설립 시기	2012년	2019년
예산(2020)	69,812(백만 원)	1,160(백만 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예하 공공기관(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예하 문예진흥팀 소속
조직구성	지원사업부(6개팀),사회보장부(2개팀)- 상시직원 63명	센터장 1명, 상시직원 4명
지원대상 지역범위	전국	경기도

출처: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 재구성.

○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 현재 광역단위 예술인지원센터는 부산, 경남, 대구, 전남, 전북 그리

- 고 경기 등 총 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설시기, 조직체계, 근무인원, 예산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0-5> 광역예술인지원센터 비교

(2020년 기준, 단위: 천 원)

광역지원센터명	개설시기	조직체계	근무인원	예산 규모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2017. 3	부산문화재단 산하	14	770,000
경남예술인복지센터	2019. 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 소속	4	430,000
대구예술인지원센터	2020. 2	대구문화재단 산하	5	비공개
전남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터	2020. 3	전라남도문화재단 소속 문화사업팀	9	200,000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2018.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속 문화사업팀	6	115,000

출처: 각 광역 문화재단 홈페이지

- 광역예술인지원센터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시행 사업에서는 대부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의 신청대행지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차별성이 없는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임(아래 표 참조)

<표 0-6> 광역예술인지원센터 사업영역 비교

분야 센터명	직업역량 강화	권익보호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자립지원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예방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휴(休)안심 프로그램 예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반딧불이 창작공간 사업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모사업 유치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창작활동준비금지원 사업 경남예술인 창작자금대출지원(이차보전)사업 예술활동증명 발급 대행 등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인 역량강화사업	법률상담	예술인의료비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대행(예술활동증명)지원 사업 등	예술인 네트워크구축사업
전남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터	예술인 일자리 연계 기업수요조사	예술인 복지사업홍보확대	창작예술 활동 지원	

센터	등	예술인 법률 행정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기업연계 예술인활동사업(기업×예술인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안내 서비스	예술인활동증명신청대행지원, 창작준비금지원, 전라북도예술인특례보증지원	최초전시지원프로젝트 사업 중견작가포트폴리오제작지원 사업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센터’를 개관함
- 이사장 이하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예산 규모는 15,772(백만 원)임
-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예술가의 창작지원, 인재 발굴 및 육성, 기획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함

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 조사 개요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함
- 2020년 8월 ~ 9월, 예술행정 전문가(관련 기관의 실무자, 재단 소속 담당자), 학계 전문가(관련 학과 교수, 정책실무의 연구진), 예술단체 및 예술가(예술사업체 대표, 협동조합, 창작공간 입주작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함

〈표 0-7〉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참여자 구성

분야	참석자 세부사항
예술행정	- P 팀장(D문화재단) - K 팀장(Y복지재단) - K 대리(J지원센터)
문화정책	- L 교수(C대학교 교수) - L 대표(M문화재단 前 대표) - L 연구원(H문화관광연구원)
사회적 경제/ 창작공연/ 시각예술	- K 대표(H프로덕션) - J 이사장(C협동조합) - K 대표(H연구소) - H 작가(S문화재단 입주작가) - H 대표(N극단대표,배우) - K 대표(S기업대표,창업멘토)

○ 인터뷰 주요 내용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비전 및 운영 개선 방안
-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육성방안
- 경기도 예술인조합의 결성 및 운영지원의 기본방향
- 예술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의 집중 육성사업방향
- 해외의 예술인 복지 지원 관련사업의 접목방안
- 경기도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방안
- 기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 및 세부사업

○ 조사 결과

-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충분한 정도 및 방향성’과 관련하여 현재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이 대체로 부족하며, 기존 사업을 예술가 분류의 재설정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방향성으로는 기존 사업자, 다양한 연령대 등 ‘지원대상의 확대’,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지원’, 심의-컨설팅-모니터링 등 ‘지원 패키지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됨
- ‘예술인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는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이 다수 의견임. 또한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사업비와 네트워킹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예술가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직업교육’이,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전담변호사 파견제’, ‘아티스트피’제도의 도입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

- ‘벤치마킹 가능한 해외 사례’로는 ‘앙떼르미땅’, ‘Out of the blue’, ‘캐나다예술인적자원 위원회’, ‘댄스플래너’ 등이 제안되었음.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경기도에 특화된 ‘아티스트 피’제도와 ‘협동조합’과 같은 예술인 자립 단체 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예술인협동조합 육성 방안’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예술인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협동조합 결성 지원 시 경기도 차원의 운영 사무국을 두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민-민 거버넌스 체계(예술인 협동조합 협의회나 연합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림. 또한 분야별, 장르별 협동조합의 설립방안, 협동조합 홍보방안, 협동조합 주체들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맞춤형 자립지원’에 특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차별성’, ‘공존’, ‘공정’, ‘신뢰’, ‘상생’, ‘팔길이 원칙’ 등이 제안됨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 영역’으로는 ‘자립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제시됨.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으로는 ‘공유경제’,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아카이빙 구축’, ‘전생애 주기별 지원’, ‘연령별·경력별 지원사업’ 등이 제안됨
- ‘장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연습·발표 공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 ‘인공지능이나 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제작 도구의 보급’, ‘장애예술인 대상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인복지재단 연계)’ 등이 제안됨

4. 전략 방향 설정

1) SWOT 분석

○ 강점(Strength)요인

- 풍부한 예술인적자원 보유
- 수도권에 위치하여 예술인 유입 가능성 높음

- 가장 먼저 설립된 문화재단으로서의 선도적 이미지
 - 스타트업 등 예술인 자립지원의 선제적 시행
 - 경기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예술인 DB 구축
 - 경기도의 높은 문화향유 수준과 문화예술 수요
- 약점(Weakness)요인
- 경기도는 체육을 포함한 문화 관련 예산이 2.0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 인구대비 최하위 수준²⁾
 - 예술 창작 활동 수입, 전국의 71% 수준
 - 70.9%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 창작 공간 부족
 - 예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체계 미확립(업무분장 부서 및 체계 미확립)
 - 타 광역지원센터 대비 적은 직원 수와 예산
 -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중복/유사지원 가능성
- 기회(Opportunity) 요인
- 예술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시행(2020년 11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2월)
 - 중앙정부의 예술인 지원 관심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과학기술 융합의 중요성
 -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문화산업클러스터(게임,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등)와 예술인의 연계 가능성
- 위협(Threat)요인
-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예술창작 기회 감소 및 예술인 생활기반 위축(모든 장르의 예술계가 대면공연/전시가 취소 또는 온라인 공연/전시로 전환)
 - 국내외 경제성장 위축 가능성
 - 고령화에 따른 예술인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2)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wew.php?ncode=1065593389646574>

- 광역 단위 예술인지원센터의 연이은 설립에 따른 특성화 어려움
-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외되는 예술인들이 급증

〈표 0-8〉 SWOT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예술인적자원 보유 • 수도권에 위치하여 예술인 유입 가능성 높음 • 가장 먼저 설립된 문화재단으로서의 선도적 이미지 • 스타트업 등 예술인 자립지원의 선제적 시행 • 경기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예술인 DB 구축 • 경기도의 높은 문화향유 수준과 문화예술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관련 예산이 2.0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 인구대비 최하위 수준 • 예술 창작 활동 수입, 전국의 71% 수준 • 70.9%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 창작 공간 부족 • 예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체계 미확립(업무분장 부서 및 체계 미확립) • 타 광역지원센터 대비 적은 직원 수와 예산 •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중복/유사지원 가능성 확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시행(2020년 11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2월) • 중앙정부의 예술인 지원 관심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과학기술 융합의 중요성 •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문화산업클러스터(게임,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등)와 예술인의 연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예술창작 기회 감소 및 예술인 생활기반 위축 • 국내외 경제성장 위축 가능성 • 고령화에 따른 예술인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광역 단위 예술인지원센터의 연이은 설립에 따른 특성화 어려움 •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외되는 예술인들이 급증

2) 핵심전략 도출(SO, WO, ST, WT전략)

○ SO전략

- 강력한 예술인 지원정책에 의한 예술인 유입 확대
-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예술과 기술 융합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인 자립 지원에 특화된 지원센터 구축
- 예술인적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예술인협동조합 육성
- 장애예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에 대한 선도적 이미지 구축

○ WO전략

- 예술인 지원 예산의 추가 확충으로 문화 관련 예산 확대
- 협동조합 등 설립 활성화로 고용보험 수혜 예술인 확대
-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한 예술인 수입 확대 지원
- 예술인 자립 지원 관련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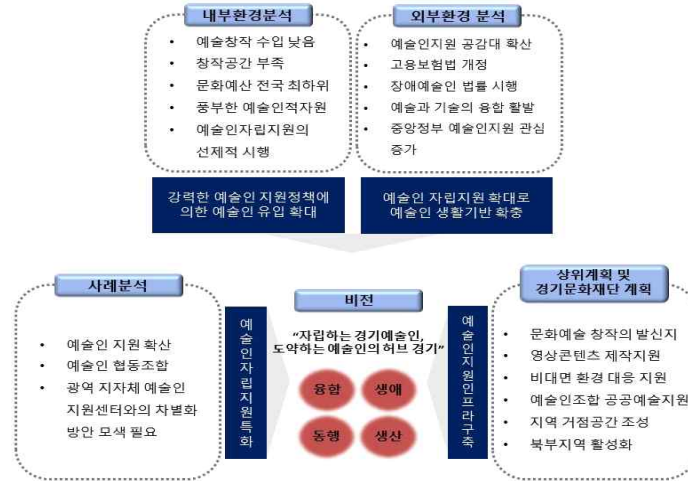
- 협동조합, 기술융복합지원센터 등의 확충으로 창작공간 확보
- ST전략
 - 예술인 자립지원의 확대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 예술인 중심의 창작 기회 확대로 프로젝트 제작지원 축소에 대비
 - 고령 예술인을 포함하는 전생애 주기별 예술인 지원으로 확대
 - 예술인 자립지원 특화 예술인지원센터로 자리매김
- WT전략
 - 예술인지원 관련 예산 추가 확보로 예술 관련 총예산 확대
 - 예술인 DB 구축으로 촘촘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 온라인 예술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 예술인지원기관의 전문화 및 본부제 승격

〈표 0-9〉 SO, WO, ST, WT 전략 도출 결과

전략구분	전략개요	전략
SO전략	강점에 기초한 기회요인 활용 극대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예술인 지원정책에 의한 예술인 유입 확대 •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예술과 기술 융합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인 자립 지원에 특화된 지원센터 구축 • 장애예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에 대한 선도적 이미지 구축
WO전략	기회요인을 활용한 약점 극복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 예산의 추가 확충으로 문화 관련 예산 확대 • 협동조합 등 설립 활성화로 고용보험 수혜 예술인 확대 •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한 예술인 수입 확대 지원 • 예술인 자립 지원 관련 사업 확대 • 협동조합, 기술융복합지원센터 등의 확충으로 창작공간 확보
ST전략	강점을 활용한 위협요인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자립지원의 확대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 예술인 중심의 창작 기회 확대로 프로젝트 제작지원 축소에 대비 • 고령 예술인을 포함하는 전생애 주기별 예술인 지원으로 확대 • 예술인 자립지원 특화 예술인지원센터로 자리매김
WT전략	위협요인 회피 및 점 최소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지원 관련 예산 추가 확보로 예술 관련 총예산 확대 • 예술인 DB 구축으로 촘촘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 온라인 예술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 예술인지원부서의 인원 확충 및 본부제 승격

3) 전략 방향

- 전략 방향 도출 과정
 - 앞서 진행한 분석들의 시사점들과 SWOT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의 기본방향을 도출함



[그림 0-16] 비전 및 키워드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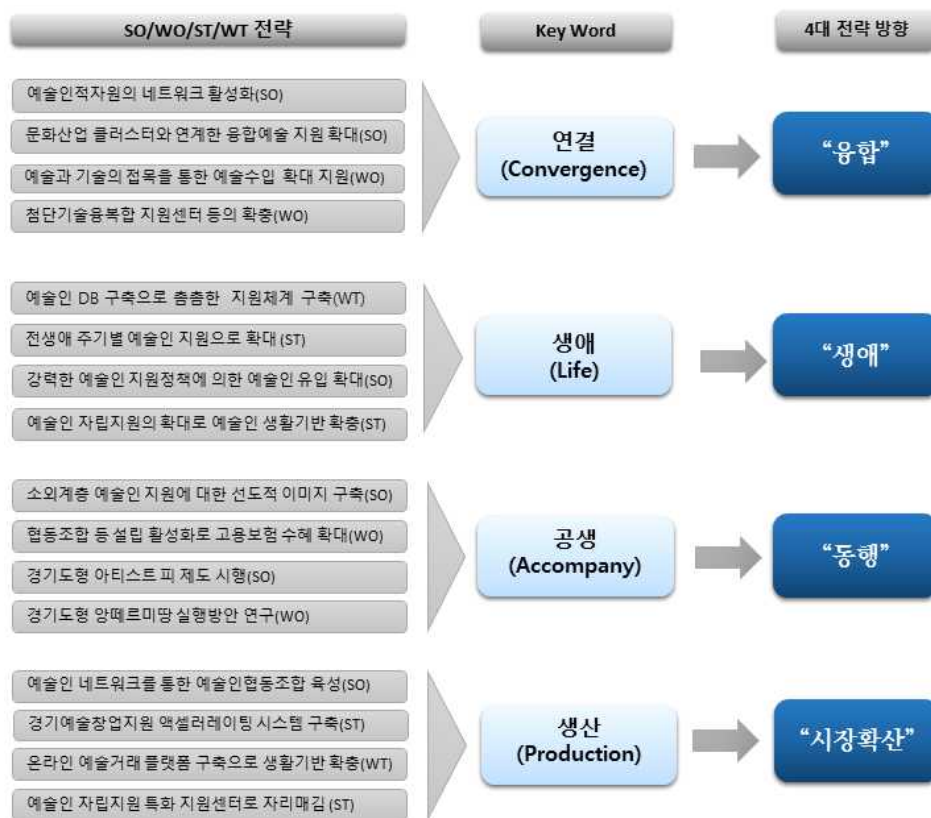
4) 비전 및 키워드

- 비전 : ‘자립하는 경기예술인, 도약하는 예술인의 허브 경기’
 -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인적자원의 활용과 최초의 공공문화재단으로서의 풍부한 문화예술조성 사업의 경험을 연계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예술활동의 가치 확산을 창출하고 극대화함
 - 예술인 자립과 권익보호의 지원은 일방적인 행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예술가들과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경기예술산업 발전의 중요한 초석으로 도약하여야 함
 - 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유입 확대를 통해 창조도시 경기를 지향함
- 키워드 및 전략 방향
 - SWOT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연결’, ‘생애’, ‘동행’, ‘생산’이라는 4대 키워드 도출
 - ‘CLAP’은 ‘박수를 치다’, ‘손뼉을 치다’의 의미로 예술인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공감과 소통이 화합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음³⁾
 - **연결(Convergence: 융합 전략)**: 융합(Convergence)의 범위를 예술 전체 장르와 타 분야까지로 확산함
 - **생애(Life: 생애 전략)**: 생애(Life)는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아름다운 예술 생애’를 의미로서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전생애

3) CLAP은 Convergence, Life, Accompany, Production의 앞 글자를 의미함.

주기에 배려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함

- **동행(Accompany: 공생 전략)** : 동행(Accompany)은 예술인-예술인, 예술인-행정부문, 예술인-타분야 간의 네트워킹(연결)을 강화하며, ‘장애예술인과 소외계층의 예술인들과 함께 가다’의 방향성을 의미
- **생산(Production: 시장확산 전략)**: 생산을 통한 시장확산 (production)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자립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의 기초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



[그림 0-17] SO/WO/ST/WT 전략에 따른 키워드 및 전략 방향

5) 목표 설정

○ 방향

- (사업 방식) 개별 사업 공모체계에서 예술인 중심 공모체계로 전환
- (사업 대상) 청년 등 특정 계층의 예술인에서 전 생애주기 예술인 대상

으로 전환. 소수 예술가 대상에서 다수의 예술가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등 대상 확대

- (사업 범위) 휴먼웨어 중심에서 정책 거점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로 확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을 비롯한 기술예술 융합 사업 확대

○ 목표

- 생애주기별 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 온라인을 비롯한 예술가의 기술 융합 확대
- 예술인 지원 거점 공간 조성

○ 세부 추진 전략

비전	자립하는 경기예술인, 도약하는 예술인의 허브 경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 온라인을 비롯한 예술가의 기술 융합 확대 • 예술인 지원 거점 공간 조성 	
전략방향 및 세부추진 전략	융합 (첨단기술융합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첨단기술융합예술센터 설립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운영
	생애 (전생애주기별맞 중형 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동행 (소외 및 장애예술 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 경기도형 앙떼르미팡 •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시장확산 (예술시장 조성에 의한 자립기반 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 지원 •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 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표 0-10] 기본방향별 세부추진 전략

기본방향	전략	과제	신규/계속
예술인 자립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자립 지원 경기예술 창작해커톤 운영 클라우드펀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계속 신규 신규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 신규
	자립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협동조합 거점 공간구축 및 운영 창작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계속
	예술품 판매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 온라인플랫폼 구축 운영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규
	기술과 예술 융합 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규
예술인 직업안정	직업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경기예술인 자녀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 신규
예술인 권리보호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경기예술인 상담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계속
예술인 생활안정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형 양떼르미땅((Intermittents)) 예술인활동증명 지원 장애/소외 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규 신규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5. 핵심 추진 사업

1) 융합(첨단기술 융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 (현황)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4K, 8K 등 영상기술과 5G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연영상(온택트 공연)이 현장공연의 보완재로서 그리고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필요성) 수준 높은 영상기술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영상예술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 (추진 방향) 예술인 개개인의 브랜딩을 위한 지원을 지향함. 시설 및 설비 등 단순 제작뿐 아니라 소비자 데이터 분석, 마케팅 및 브랜딩 활동, 저작권 지원 등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 (1차) 경기 동부,

서부, 북부, 남부 등 4곳 설립 추진, (2차) 시군과의 협업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 이때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 또는 경기문화창조허브 등과 연계할 수 있음

- (세부추진계획) 공연영상의 제작이나 가상미술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 및 프로그램 구축. 남부와 북부의 경우 판교, 의정부 등 경기문화창조허브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하드웨어(건물임차료 등) 소요 비용을 절감함
- (기대효과) 예술 영상의 품질 제고를 통해 예술인 개개인의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예술인 자립에 기여하고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예술인을 양성함
- (국내외 사례) 한국문화정보원, 비대면 디지털 크리에이터 운영 및 한류 콘텐츠제작사업,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센터 ZKM(Zentrum fue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구축

- (현황)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이를 통한 기술과 예술과의 융합 현상이 활발해짐.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 12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하고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미래 전략사업을 지원 중임
- (필요성) 예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편향된 첨단기술 융합 지원을 예술인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됨
- (추진 방향) 개별 장르적 지원정책에서 통합 장르적 융·복합 지원정책으로, 프로젝트 중심에서 예술인 중심으로 지원의 방향성을 전환함.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지향함. 경기 북부, 남부, 동부, 서부권역 등 4곳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함
- (세부추진계획) 뉴미디어 아트가 창작될 수 있는 기반과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 및 프로그램 구축. 판교 등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연계할 수 있음.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주제 또는 소재로 하는 경기도의 예술가는 누구나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 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
-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콘텐츠 허브로서의 첨단 예술산업의 전초기

지를 구축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기술 개발 및 육성을 통해 문화기술발전은 물론 예술 및 인접 영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국내외 사례) 풍피두센터 산하 ‘음악·음향의 탐구와 조정 연구소 (IRCAM)’, 아시아문화원 창제작센터

○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현황)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을 비롯한 예술의 전 분야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 (필요성) 공연예술을 포함한 전시 및 발표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작 발표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함.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하고, 온라인플랫폼을 연계해 대면공연과 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진 방향) 경기도의 모든 예술인/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공연예술지원과 시각예술지원 등 두 개의 플랫폼으로 구성. 무료 공연/전시와 유료 공연/전시 영역으로 구성하여 예술가/단체들의 마케팅영역과 브랜딩 활성화에도 연계 활용함. 온라인 아카이빙 플랫폼으로도 활용함
- (세부추진계획) 온라인으로 공연과 전시가 발표될 수 있는 기반과 양질의 완성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인력 구축.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음. 공연과 전시 간 기업광고를 연계해 예술가/단체의 수익모델 개발
- (기대효과) 비대면 발표의 온라인플랫폼구축을 통해 예술가/ 단체의 공연과 전시의 발표 안전망을 구축함. 영상/통신기술의 발전, VR 등의 기술개발에 따른 미디어 향유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예술 향유 수요 유입. 예술가/단체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계 가능. 온라인플랫폼의 공연과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아카이빙 자료 구축
- (국내외 사례) 아트바젤(ART Basel) 온라인 뷰잉룸(Online Viewing Rooms), 2020서울아트마켓(Performing Art Market in Seoul 2020)

○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 (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중인 <예술해커톤>⁴⁾은 문화예술,

4)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하여 앱, 웹 서비스

기술, 비즈니스 등 이중 분야가 결합된 문화예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예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4년간 총 10회에 걸쳐 시행됨

- (필요성) 창작해커톤을 통해 예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활발한 창업 아이디어 도출 가능. 새로운 직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창작(Job Creation)은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재능과 능력에 맞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발굴하는 것으로 창작과 예술창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추진 방향) 예술창작해커톤의 창업/창직 분야별 영역을 설정하고, 창작에 특화하여 중앙의 예술해커톤 사업과 차별화. 문화기술(CT)을 활용한 창작에 초점을 둠. 추후 경기예술창직센터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
- (세부추진계획) 연 2회 창작해커톤 대회를 개최함. 우수자에 대해 창작에 필요한 자금 수여(500만원~최대 3,000만 원)
- (기대효과) 예술가/ 단체의 문화기술(CT)을 활용한 창업 가능. 예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비즈니스 가능. 문화산업의 원동력과 예술가치 확산에 기여. 예술인의 문화예술창업/창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국내외 사례) 에코톤(Ecothon), 경기문화재단의 ‘코끼리를 데이터에 넣는 방법’, GLOBAL AI HACKATHON

2) 생애(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인지원 전략)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뷰티풀 아트라이프 in 경기)
 -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광역 예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은 청년을 포함한 일반영역과 원로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로 시행되고 있음
 - (필요성) 예술인들의 생애주기별 편차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 신진, 중견, 원로의 4단계로 구분하여 자립지원 영역의 세분화가 필요함. 지원대상의 범위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서 ‘과거 1~2년 이내 예술분야 초기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지원 트랙을 설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예술가 지원대상을 예비, 신진, 중견, 원로의 4단계로 구

또는 비즈니스 모델 등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말함.

분하여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금의 사용처와 활용범위를 분석해서 지원. 중견/ 원로예술인의 경우 단순 자립지원뿐 아니라 경험을 활용한 지역문화교육 연계, 아트마케팅 및 저작권 활용 등 비즈니스 연계방법을 제공. 다년도 지원으로 확대(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 (세부추진계획)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아름다운 예술 생애’를 구축하는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예술인생애 주기별 4단계 자립지원사업 시행. 예비/신진/중견/원로 예술인의 주기별 자립지원 범위와 자립우수 사례를 아카이빙하고 모니터링/ 인터뷰할 수 있는 연속적 간행물 제작. 자립/ 창업 목표, 성과달성을 위한 창업교육연계 시스템 구축. 예술장르별로 진행 중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아트콜라보사업(2015~2020)과 매칭시스템을 구축. 경기도 소재의 135개 전통시장 중 재생사업 진행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 (기대효과) 청년층을 비롯한 중견,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모든 예술인들의 생애주기별 편차가 보호되는 존중받는 예술 생애를 추구. 단순 지원금 지급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생애주기별 세부지원범위 확립.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의 예술화 사업을 통한 예술가치 확산에 기여
- (국내외 사례) 충주시 원로작가 지원사업, 전라북도 창작마중물 지원 시범사업

○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황) 경기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으로는 최초로 2019년 경기예술인DB 구축 및 기초현황 실태조사 실시
- (필요성)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구축을 통해 예술인지원사업의 세분화와 기존사업의 연계 방향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 창조도시경기의 초석이 되는 경기예술인들이 가진 창조적 역량분석과 현황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복지정책수립의 기반조성. 분야별 지원사업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예술인지원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
- (추진 방향) 2019경기예술인 실태조사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이를 더욱 정교하게 진행. 각 분야별 모집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량조사와 더불어 정성조사를 강화
- (세부추진계획)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술분야별 모집단

조사를 통해 각 예술분야별 창작환경 차이점을 확보하여 창작생태계의 질적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 제시함.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아카이빙) 예술인지원사업 사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과 동시에 신규 진입자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

- (기대효과)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복지정책수립의 기반조성. 예술분야별 DB를 통해 각 분야별 창작환경 분석과 지원육성사업의 개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경기예술창작생태계의 질적 개선 기대
- (국내외 사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조사사업

○ 공공수장고 설립

- (현황) 국립현대미술관은 1972년부터 기증에 의한 근대작품 소장을 시작으로 1986년 현재의 과천관이 건립되면서 동시대 작품과 외국 작가의 작품소장으로 확대됨. 최근에는 수장고의 일부를 전시형태로 보여주는 개방형 수장고가 도입되는 추세임
- (필요성) 수장고는 한국의 근현대미술 소장품들이 보존·관리되는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임. 공공영역의 작품소장이 확대될수록 그에 비례하는 공공수장고 설립은 더욱 중요해짐
- (추진 방향) 최근 건립되고 있는 개방형 수장고의 형태를 참고하며, 장르별,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공간구성을 계획하여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수장고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관람객의 감상동선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안을 검토하여 추진함
- (세부추진계획)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개방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보이는 보존과학실, 특별수장고 등의 공간 분류체계 분석.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장고의 관람 동선 구성. 개방범위에 맞는 수장고 구성 및 관람객 쉼터 확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빙센터 구축
- (기대효과) 공공소장품의 수집·보존·관리 기능 확대. 소장품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강화.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 관람객들의 자기주도적인 감상과 학습을 유도.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 가능
- (국내외 사례) 남양주 공공미술 수장고 조성계획,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립민속박물관

○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현황) 현재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

영하는 지원사업이 유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돌봄서비스를 운영

- (필요성) 여성예술인에게 있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생애주기의 큰 요인으로 작용됨. 보육여건의 확충은 여성예술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 남성예술인의 창작활동에도 영향을 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신설되어야 함
- (추진 방향) 현재 서울(대학로, 마포 등 2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자녀 돌봄센터의 운영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거점 센터운영 기본계획을 구축.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보육시설 확충.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의 경력 재설계와 교육훈련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세부추진계획)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거점 돌봄센터 운영기본계획을 구축하여 시설확보 및 인력구성. 돌봄센터 운영계획과 함께 여성예술인 협동조합과의 사업연계모델 구상. 현재 빈 교실이 늘어나는 초등학교를 활용한 돌봄센터의 운영도 고려.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의 경력설계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 (기대효과) 경기예술인자녀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동시에 자립지원 역량 강화 기대.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예술인협동조합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가능. 경기예술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예술인자녀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여성예술인 고용 등의 선순환을 기대. 육아로 인한 여성예술인들의 경력단절 최소화
- (국내외 사례) 예술인복지재단

3) 동행(소외 및 장애예술인 지원 전략)

○ 경기도형 앙페르미땅

- (현황) 프랑스의 앙페르미땅은 공연예술인을 비롯하여 영화, 방송, 음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로서 예술인들에게 제공되는 강력한 복지 제도의 기반임
- (필요성)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형 실업보험제도의 기반구축이 필요. 경기예술인의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타 광역지자체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실업급여 제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추진 방향) 현재 프랑스의 앙떼르미땅 실행내용을 분석하여, 경기예술인에 적용 가능한 가입기간 및 고용계약 적용조건 등의 분석 및 연구. 실업급여수급 대상예술인들의 연습시간 및 예술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경기도형 앙떼르미땅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업무부서 및 인력개발. 제도의 이해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
 - (세부추진계획) 경기예술인에 적합한 계약 및 지급조건 등의 분석 및 제도수립연구.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예술인 교육 환경 구축
 - (기대효과) 타 지원센터와 차별화된 경기예술인의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 (국내외 사례) 네델란드 WWIK, 벨기에 실업급여
-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 (현황) 작가의 인지도, 전시 규모, 전시 기간, 작품종류 등에 따라 정확한 기준이 없어 작가마다 협의에 의한 상이한 작가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서 창작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피 개념을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 기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필요성) 문체부의 권고사항이 아닌 아티스트 피에 대한 표준 지급기준 제정을 통해 경기도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실행방안 필요
 - (추진 방향) 작가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장르별 기준을 설정하고, 지급 가능한 적용 범위 등의 분석 및 연구. 경기문화재단 내의 전시사업에 우선 시범 적용 후 아티스트피 지급 예술인 리서치를 통한 사업의 틀 마련.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획/업무부서 마련
 - (세부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대가 기준에 대한 고시(제2019-11호)와 각종 미술관 적용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보수산출 기준 마련. 작가의 인지도 등의 모호한 기준이 아닌 전시기획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통해 표준기준을 설정. 국공립미술관·갤러리 등의 전시공간에 따른 적용기준과 전시프로젝트 기획 성격에 따른 적용기준 마련
 - (기대효과) 정당한 보수지급을 통해 경기예술인들의 창작생태계 개선. 경기예술인의 자긍심 고양. 미술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 선도적 개념의 중요한 경기도형 예술인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국내외 사례)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폴란드, 노르웨이 등 외국의 경우 미술작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화가 안착되어 있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국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아트프로젝트올산 ICAPU 2020 & 토탈미술관의 ONE WAY LIFE 展

○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 (현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필요성) 장애예술인의 창작·연습·발표 공간 조성, 예술교육 및 예술적 경험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운영을 통해 경기예술인 모두가 상생과 동행을 만들어가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장애예술인들에게 여러 형태의 지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세분화. 장애예술인과 예술인의 동반협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환경 구축
- (세부추진계획) 경기장애문화예술인지원센터(가칭) 설립.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연습·발표 공간 지원.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적 경험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운영
- (기대효과) 장애예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에 대한 선도적 이미지 구축. 장애예술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통한 예술교육 및 창작환경 개선. 비장애 예술인과의 상생과 동행을 만들어가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 (국내외 사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 (현황) 현재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경기도의 높은 문화향유 수준과 문화예술 수에 대비해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소속의 작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필요성) 최근 연이어 개소하고 있는 광역단위 예술인지원센터와 비교할 때 전문부서 확대와 사업전담 인력의 확충이 시급. 예술인을 특화된 사업으로 지원하는 업무분장 부서 및 체계 필요

- (추진 방향) 자립구축을 위한 창작생태계 제공 및 체감형 지원사업 확대 및 운영. 차별화된 예술인 자립에 특성화된 지원 사업연구. 사업 부서의 세분화 및 전담인력 확보. 현장지향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
- (세부추진계획) 경기예술인자립지원본부(가칭) 설립 운영
- (기대효과) 예술인 자립을 통한 선순환적인 창작생태계 조성. 타 지역 대비 개선된 창작환경에 대한 경기예술인만의 자긍심 고양. 전문화된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경기예술인과 센터의 신뢰와 상생 마련
- (국내외 사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 시장확산(예술시장 구성에 의한 자립기반 구축 전략)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현황)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18년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총 14,542개의 협동조합 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311(9.0%)개에 불과
- (필요성) 경기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예술인 자립 단체 결성 지원이 필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의 실질적 수혜 예술인 확대 필요
- (추진 방향) 지역 내 다양한 활동과 결합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보다는 민-민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 예술인 조합들의 협의체 구성과 연계모델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세부추진계획) 경기예술인협동조합 거버넌스협의체(가칭) 운영(가칭) 운영
- (기대효과) 예술인조합 결성 확대 및 운영의 건실화를 통해 예술사업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제시를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자립 지원 사례와 운영모델 발굴
- (국내외 사례) 벨기에 예술인 협동조합 스마트(SMart)

○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 (현황) 경기도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조합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경기도형 예술인 조합’에 대한 모델 개발이 시급함
- (필요성) 예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원과 더불어 설립 초창기

의 조합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생산을 위한 거점공간이 필요함

- (추진 방향) 협동조합 거점 공간구축을 통해 조합 운영의 중심점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경기예술인조합 활동의 기초 마련. 협동조합의 사업과 예술 크라우드펀딩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 (세부추진계획) (경기 아트인 쿵-Art in Coop(가칭) 설치 운영) 경기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등 4개 권역에 설치. '경기청년관'을 통한 청년예술인 주도형 조합설립 및 실전캠프 운영. 중·장년중심의 조직구성을 추진하여 예술 인적네트워크 확장 및 연대. (경기예술인 저작권 보호센터 운영) 예술인들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교육과 함께 권역별 (경기 남/북부 또는 동/서/남/북부) 전담 변호사를 두어 창작저작권 관련 분쟁 시 피해예술인을 지원
- (기대효과) 예술분야별, 생애주기별 목표에 맞는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운영. 새로운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 가능. 창작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을 활용한 브랜딩 구축
- (국내외 사례) 독일 베를린(옛 경찰서 건물을 아틀리에로), 프랑스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

○ 경기예술 크라우드펀딩 위원회

- (현황) 최근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이나 공연·발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온라인 기반의 모금 플랫폼들이 증가하고 있음
- (필요성) 예술 크라우드펀딩사업은 경기예술분야의 민간재원유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민-민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
- (추진 방향) 시혜성 성격의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성, 연속성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세부추진계획) 텀블벅, 와디즈 플랫폼의 예술크라우드펀딩 적용사례와 수익모델분석을 통한 후원, 협찬형이 아닌 투자형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투자자 = 1:1의 비율로 투자하여,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킴
- (기대효과) 예술분야 민간재원 유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 경기예술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로의 연계 가능성
- (국내외 사례) 인천문화재단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

- (현황) 최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액셀러레이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프라이머, 네오플라이, 디캠프 등 민·관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하지만 예술 스타트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팅은 게임, 콘텐츠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임
- (필요성) 창작공간지원, 작품창작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자생적인 창작활동의 기초체력으로서 예술스타트업의 확대와 창업환경 기반조성의 중요한 기초시스템이 될 수 있음
- (추진 방향)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심위위원이 ‘심의-컨설팅-모니터링’까지 진행. 지원대상의 범위를 ‘창업예정자’에서 ‘예술분야 초기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지원 트랙을 설정하여 지원. 액셀러레이팅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세부추진계획) 예술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창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 및 프로그램 구축. 성공적인 창업기반을 위해 자립 런칭 사업비와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초기 창업단계의 사업지원 시스템 구축.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예술창업가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과정모델 개발
- (기대효과) 예술 스타트업을 통해 창작활동의 능동적인 자립과 예술가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 창업 목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확보
- (국내외 사례) 예술경영지원센터-IR 데모데이/문화예술+기업파트너스데이, 현대자동차-제로원(ZERO1NE Day)

6. 로드맵 및 추진체계

1) 추진로드맵

○ 사업별 우선 순위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사업들을 시급성, 중요도, 특성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세 가지의 우선순위로 분류된 각 사업들은 현재

시점부터 2021년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0-11〉 순위별 추진사업명

우선순위	추진사업명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경기도형 양떼르미당 -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 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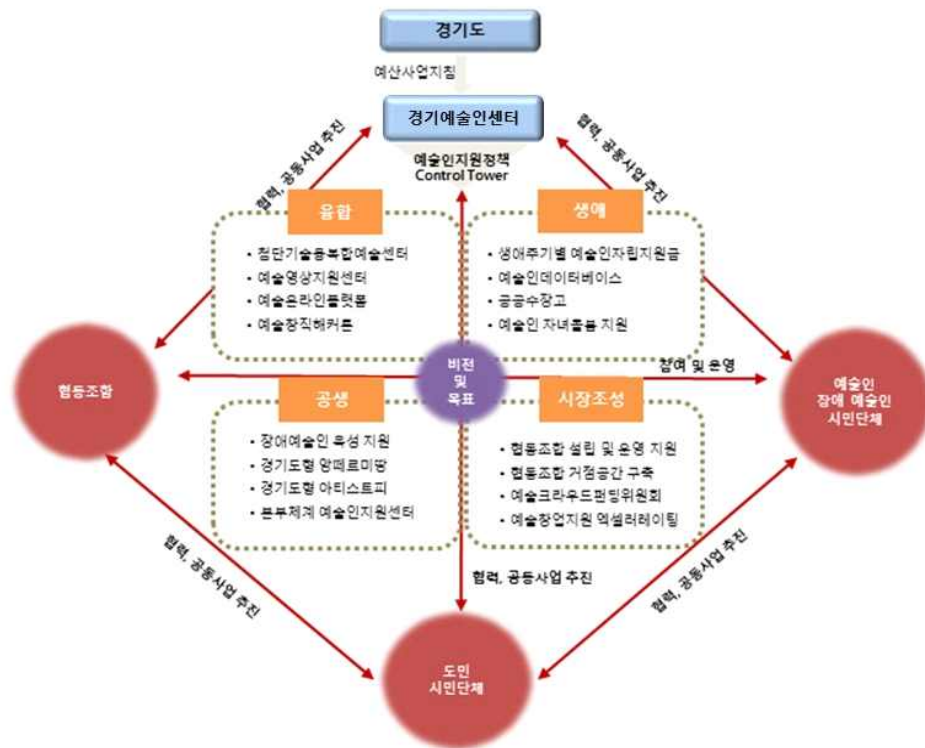
○ 단계별 추진계획

〈표 0-12〉 사업별 추진단계

전략	사업명	추진단계				
		2021	22	23	24	2025-2030
(융합)	1.1.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	■
	1.2.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	■	■	■	■
	1.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	■	■
	1.4.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	■	■	■
(생애)	2.1.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	■	■	■	■
	2.2.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
	2.3.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	■	■	■
	2.4.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공생)	3.1.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	■	■	■	■
	3.2. 경기도형 앙떼르미당					■
	3.3. 경기도형 아티스티피 제도			■	■	■
	3.4.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	■	■
(시장 조성)	4.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	■	■	■
	4.2.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	■	■	■
	4.3. 경기예술 크라우드펀딩위원회		■	■	■	■
	4.4.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	■

2) 추진체계

- 경기도 예술인지원을 전담하는 경기예술인센터(가칭)를 중심으로 경기도 예술인 지원 사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경기예술인센터는 예술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예술가 단체와 시민 및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할에 중점을 둠
- 경기도는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민-민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적으로 시행함



[그림 0-19] 경기예술인지원의 추진체계

7. 결론

1) 연구 요약

- 경기예술인 현황, 내외부 환경, 사례분석, 상위계획 등의 분석에 의거하여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비전을 ‘자립하는 경기예술인, 도약하는 예술

인의 허브 경기’로 제안하였음. 이는 문화예술조성 사업의 경험을 연계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예술활동의 가치 확산을 창출하고 극대화하고 술가들과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유입 확대를 통해 창조도시 경기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SWOT 분석을 토대로 ‘연결’, ‘생애’, ‘동행’, ‘생산’이라는 4대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CLAP’이라는 전략 방향을 제시함. ‘CLAP’은 ‘박수를 치다’, ‘손뼉을 치다’의 의미로 예술인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공감과 소통이 화합으로 이어지는 의미임
- ‘CLAP’에 따른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4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연결(Convergence: 융합 전략) : 융합(Convergence)의 범위를 예술 전체 장르와 타 분야까지로 확산함
 - 생애(Life: 생애 전략) : 생애(Life)는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아름다운 예술 생애’를 의미로서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전생애 주기에 배려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함
 - 동행(Accompany: 공생 전략) : 동행(Accompany)은 예술인-예술인, 예술인-행정부문, 예술인-타분야 간의 네트워크(연결)를 강화하며, ‘장애예술인과 소외계층의 예술인들과 함께 가다’의 방향을 의미
 - 생산(Production: 시장확산 전략): 생산을 통한 시장확산(production)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자립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의 기초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
- 비전과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업 방식) 개별 사업 공모체계에서 예술인 중심 공모체계로 전환
 - (사업 대상) 청년 등 특정 계층의 예술인에서 전 생애주기 예술인 대상으로 전환. 소수 예술가 대상에서 다수의 예술가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등 대상 확대
 - (사업 범위) 휴먼웨어 중심에서 정책 거점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로 확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을 비롯한 기술예술 융합 사업 확대
- 비전과 전략에 따른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생애주기별 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 온라인을 비롯한 예술가의 기술 융합 확대
 - 예술인 지원 거점 공간 조성
- 4대 전략에 따른 16개 핵심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음
- 융합(첨단기술 융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구축,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등
 - 생애(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인지원 전략)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뷰티풀 아트라이프 in 경기),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수장고 설립,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등
 - 동행(소외 및 장애예술인 지원 전략) : 경기도형 앙페르미당,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등
 - 시장확산(예술시장 조성에 의한 자립기반구축전략)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 위원회, 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 등

2) 정책 제언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센터와 차별화되고 보다 폭넓게 경기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자립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함
- 예술인 자립지원 확충은 기존 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을 예술인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사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자립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방향성에 기초하여야 함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핵심사업 중 1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임
- 장애예술인 또는 기타 소외계층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 예술인을 위한 창작·연습·발표 공간 지원’, ‘인공지능이나 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제작 도구의 보급’, ‘장애예술인 대상의 예술인파견

지원사업(예술인복지재단 연계)'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조직을 향후 역할 확대에 대비하여 본부 체계로 순차적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함

CONTENTS

I. 서론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3
1.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3
2. 계획수립 목적	5
3. 예술인지원의 정의 및 배경	5
제2절 계획수립 범위 및 방법	9
1. 계획수립의 범위	9
2. 연구 방법	10
3. 기대효과	12

II. 환경 분석

제1절 경기도 예술인 현황	15
1. 예술인의 정의 및 특성	15
2. 경기도 예술인 현황	23
제2절 외부 환경 분석	39
1. 국내·외 환경 분석	39
2. 상위계획 및 법령 분석	44
제3절 내부 환경 분석	55
1. 경기문화재단 현황	55
2.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61
3. 분석 및 시사점	71

Ⅲ.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제1절 분야별 사례 분석.....	77
1. 해외 사례	77
2. 국내 사례.....	86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92
4.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99
5.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105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34
1.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개요 및 방법	108
2. 조사 결과	109

Ⅳ. 전략 방향 설정

제1절 SWOT 분석	119
1. SWOT 분석	119
2. 핵심전략 도출	121
3. 전략 방향 도출	123
제2절 비전 및 목표	125
1. 비전 및 키워드 설정	125
2. 목표 설정	127
3. 세부 추진 전략	128

Ⅴ. 핵심 추진 사업

제1절 융합(첨단기술 융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133
---------------------------------------	-----

1.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133
2.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구축	136
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140
4.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143
제2절 생애(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인지원 전략)	148
1.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	148
2.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151
3. 공공수장고 설립	155
4.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159
제3절 동행(소외 및 장애예술인 지원 전략)	164
1. 경기도형 아페르미땅	164
2.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166
3.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172
4. 본부체제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175
제4절 시장확산(예술시장 조성에 의한 자립기반구축전략)	178
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178
2.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180
3.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 위원회	184
4.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	186

VI. 로드맵 및 추진체계

제1절 추진로드맵	193
1. 사업별 우선순위	193
2. 단계별 추진계획	197
제2절 추진체계	198
1. 추진체계	198

2. 소요예산 291

VII.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201

제2절 정책 제언 204

표 목차

<표 2-1 > 「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내용	47
<표 2-2> 현행「예술인복지법」상 4대보험 적용	48
<표 2-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의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53
<표 2-4> 경기문화재단 사업 개요	61
<표 2-5>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63
<표 2-6> 사업별 예산 추이	64
<표 2-7> 경기예술인 상담in 실적	66
<표 2-8>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실적	67
<표 2-9> 예술인 창작공간·공공예술 지원사업 실적	68
<표 2-10>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운영체계	69
<표 2-11> 예술인 아트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사업 실적	69
<표 2-12>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실적	69
<표 2-13>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70
<표 2-14> ‘2020 경기청년관 : 지금 여기’ 프로그램 구성	71
<표 2-15> 경기도예술인 DB 구축 및 기초현황조사(실태조사) 실적	72
<표 2-16> 2020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개요	74
<표 3-1> 예술인 지위법(The status of the Artists) 주요 조항	78
<표 3-2> 네덜란드의 연령별 최저임금 기준	80
<표 3-3> 벨기에 예술가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사회보장제도	83
<표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	94
<표 3-5> 2019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현황	96
<표 3-6> 예술인복지재단 시행사업예산	96
<표 3-7> 기관 사업영역별 구분	98
<표 3-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및 조직 구성	99
<표 3-9> 광역예술인지원센터 비교	104
<표 3-10> 광역예술인지원센터 사업영역 비교	105
<표 3-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인원 및 예산 현황	106
<표 3-1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참여자 구성	108
<표 3-13> 전문가 인터뷰 내용	109
<표 3-14> 전문가 인터뷰 결과 1	110
<표 3-15> 전문가 인터뷰 결과 2	111
<표 3-16> 전문가 인터뷰 결과 3	112
<표 3-17> 전문가 인터뷰 결과 4	113
<표 3-18> 전문가 인터뷰 결과 5	114
<표 3-19> 전문가 인터뷰 결과 6	115
<표 3-20> 전문가 인터뷰 결과 7	116
<표 4-1> SWOT 분석 개요	119

<표 4-2> SWOT 분석 결과	121
<표 4-3> SO, WO, ST, WT 전략 도출 결과	123
<표 4-4> 기본방향별 세부추진 전략	129
<표 5-1>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36
<표 5-2>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39
<표 5-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43
<표 5-4> 예술해커톤 회차별 주제	144
<표 5-5>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47
<표 5-6>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51
<표 5-7>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55
<표 5-8> 공공수장고 설립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59
<표 5-9> 경기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63
<표 5-10> 경기도형 양떼르미당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66
<표 5-11> 작가비 산출방식	168
<표 5-12> 사례비 산출방식	169
<표 5-13> 해외의 작가보수제도 명칭과 지원범위	171
<표 5-14> 아티스트 피 지급 내역	172
<표 5-15>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72
<표 5-16> 경기장애예술인 육성지원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75
<표 5-17> 본부체제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77
<표 5-18>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80
<표 5-19> 협동조합 거점공간 구축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84
<표 5-20>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 위원회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86
<표 5-21>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비교	187
<표 5-22>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189
<표 6-1> 순위별 추진사업명	195
<표 6-2> 사업별 우선순위	196
<표 6-3> 사업별 추진단계	197

그림 목차

[그림 1-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4
[그림 1-2]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6
[그림 1-3] 예술인 지원의 변화	8
[그림 1-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의 범위	10
[그림 1-5]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프로세스	11
[그림 2-1]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21
[그림 2-2]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21
[그림 2-3] 예술인의 예술경력 단절 이유	22
[그림 2-4] 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22
[그림 2-5] 예술인의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률	23
[그림 2-6] 예술분야 관련 지원 경험 여부	25
[그림 2-7] 예술분야 관련 지원 예산 규모	26
[그림 2-8]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27
[그림 2-9]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28
[그림 2-10] 개인 창작공간 미소유자의 창작활동 장소	29
[그림 2-11] 별도 창작공간의 필요성	30
[그림 2-12] 경기도 공동 창작공간 이용 의향	30
[그림 2-13] 경기도 공동 창작공간 이용의향	31
[그림 2-14] 가입 및 활동 중인 협·단체 수	32
[그림 2-15] 전업/겸업 예술인 여부	32
[그림 2-16] 지난 1년간 고용형태-전업 예술인	33
[그림 2-17] 지난 1년간 고용형태-겸업 예술인	34
[그림 2-18] 지난 1년간 예술 및 비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	35
[그림 2-19] 4대 보험 가입형태	36
[그림 2-20] 고용보험 가입형태	37
[그림 2-21] 경기비전2040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비전·목표·전략	55
[그림 2-22] 경기문화재단 조직도	57
[그림 2-23] 경기문화재단 미션·비전·전략	58
[그림 2-24] 거점공간 조성 단계별 방향(2016~2020)	60
[그림 2-25]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개요	62
[그림 2-26]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조직도	64
[그림 2-27] 사업별 예산 추이	65
[그림 2-28]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사업체계도	65
[그림 2-29]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체계도	67
[그림 3-1] 틸트(TILLT)의 '아이리스(AIRIS) 프로그램' 진행과정	77
[그림 3-2] 앙떼르미땅 개요	79

[그림 3-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	93
[그림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예산 증가 추이	93
[그림 3-5] 부산문화재단 조직도	99
[그림 3-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직도	100
[그림 3-7]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조직 및 및 운영추진 관계도	101
[그림 3-8] 전라남도문화재단 조직도	102
[그림 3-9]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조직도	103
[그림 3-1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직도	106
[그림 4-1] 비전 및 키워드 도출 과정	124
[그림 4-2] SO/WO/ST/WT 전략에 따른 키워드 및 전략 방향	127
[그림 4-3] 비전과 전략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128
[그림 5-1] 반디돌봄센터 / 예봄돌봄센터	162
[그림 5-2] 아트프로젝트울산 ICAPU2020 & 토탈미술관의 ONE WAY LIFE 展	171
[그림 6-1] 경기예술인지원의 추진체계	198

서론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수립 목적

제2절 계획수립 범위 및 내용

1. 계획수립의 범위
2. 연구방법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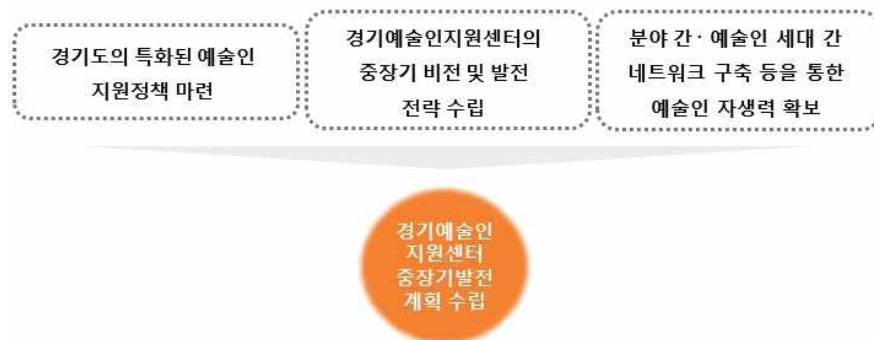
1.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최고은 작가를 비롯해 연극배우 김운하, 독립영화배우 관영진 등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예술인들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 예술인들의 경제적 생활은 열악한 상황임
 - 2018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1년간 예술인의 평균수입은 1,281만 원으로 72.7%에 이르는 예술인들의 연간 수입이 1,200만 원을 넘지 못함
 - 동 조사에는 수입이 전무한 예술가도 2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예술인들이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임
- 예술인들은 낮은 예술활동 수입과 더불어 직업적 특성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및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어 있음
 - 201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25.1%로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68.8%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남⁵⁾
 - 또한, 예술분야의 불공정한 계약행위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예술산업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음⁶⁾
 - 관행적 구두계약, 불명확한 계약서 작성, 강제력이 없는 데 따른 표준계약서의 미활용 등 예술계 내의 갑질 행사나 불공정행위의 규제를 통해 건강한 예술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광역 단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구호 차원의 대중적 지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등 예술인에 대한 처우와 예술가를 직업으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이 또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5)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 주최, 예술인복지정책 공청회 자료, 2018.4.2.

6) 최문순, “한국인디음악의 미래는 있는가” 2017. 1. 19.

- 실행방안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임
- 즉 고용보험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취업을 해야 하나 개인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 예술인의 특성상 취업이 쉽지 않음
- 기존 예술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의 특화된 예술인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분야 간·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생적인 예술창작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표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⁷⁾의 영역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던 예술분야는 최근 들어 예술의 대중화, 예술시장의 형성, 관련 분야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투자적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하여 예술산업 진흥정책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함
 - 사회보장, 창작활동 지원, 생활 지원 등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지원법 등 소외 예술인에 대한 관심도 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또한 코로나19 또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기도 예술인 지원의 핵심 주체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과 경기 예술인지원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7)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주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설사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문경일·배상빈, 2009, 문화경제분석 I, 흥릉과학출판사, p. 108).

2. 계획수립 목적

- 경기도 예술인 지원사업의 분석을 통해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광역 단위 예술지원센터에 특화된 역할과 및 비전, 방향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수립된 비전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핵심사업과 세부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함
- 특히 기존 예술인지원사업의 개선 또는 발전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일회성의 단기적 대증요법이 아닌 경기도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 또는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예술인의 생활보장과 더불어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을 통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축,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3. 예술인 지원의 정의 및 배경

- 예술에 대한 지원은 예술 프로젝트 지원, 예술 향유자 지원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술 프로젝트 지원은 예술의 민주화(Arts for All)⁸⁾ 차원의 지원으로 예술 시설의 건립 및 확충을 포함함
 - 예술 향유자 지원에는 바우처 사업과 더불어 예술교육과 생활예술 보급의 확대 등이 있음
 - 한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복지 차원의 지원, 권익 보호, 직업안정과 함께 보다 적극적 의미의

8) 랑스테드(Langsted, 1990: 16-18)는 문화의 민주화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화(culture for everybody)’라고 한다면 문화적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라고 정의하였다(황설화(2018). 정권별 문화정책이념에 관한 연구 : 문화적 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1-307). 본고에서는 예술이 문화에 속한다고 보고 예술의 민주화로 표현함.

자립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1-2]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 이제까지의 예술 지원은 예술 향유의 확대(예술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예술 프로젝트 및 예술 향유자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음
- 최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 이는 예술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부상했기 때문임
 - 아울러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인간 온톨로지(ontology)⁹⁾ 변화에 대처하는 예술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우려되고 있는 기술의 폭주를 제어하고 인간소외에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예술가, 호모 현드레드 시대¹⁰⁾를 맞아 갈수록 깊어가는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예술가, 도시화 진전의 가속화 속에 삭막한 메가폴리스에 인간성을 불어 넣는 예술가, 창의성 발현 및 확산 주체로서의 예술가 등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줌
-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사태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예술가의 생활 안정 없이는 향유할 예술이 생산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소위 언택트(ontact)¹¹⁾ 콘텐츠의 생산으로 인해 예술

9) 철학에서 존재론(存在論) 즉 존재자 일반에 관한 학문을 의미함. 독일어로 온톨로지(Ontologie), 영어로 온톨로지(ontology). 그리스어의 <존재하는 것(on)>과 <학문(logos)>에서 만들어진 라틴어 <온톨로기아(ontologia)> 즉, <존재자에 대한 철학(philosophia de ente)>에 거슬러 올라가며, 17세기 초 독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고클레니우스(Rudolf Goclenius)에게서 유래하는 용어임.

10)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 유엔의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2009년)'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 세계 31개국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현드레드(Homo Hundred)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함.

11)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 언택트 생활에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 및 공연 등을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네이버 백과사전).

가 개개인의 퍼스널 브랜드(personal brand)가 가지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이재훈, 2020)

-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디어 환경의 변화, 모바일콘텐츠로의 이행, 웹 3.0¹²⁾,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서 감지되어 왔던 현상임(임학순, 2010)¹³⁾
- 온택트 콘텐츠는 기존에도 존재해 왔지만, 이번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문화예술 콘텐츠가 가져야 할 소비자 측면에서의 브랜드 형성, 콘텐츠로서의 영향력,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게 됨(이재훈, 2020)
 - 이러한 사례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는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미디어 스타트업 ‘널위한문화예술’, 갤러리스트 캘리의 ‘캘리온레드바이브’, 음대생들이 연합하여 만든 쉽게 즐기는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 쇼팽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유튜브채널 ‘안인모의 클래식이 알고 싶다’ 등이 있음¹⁴⁾
 - 작가의 퍼스널 브랜딩 사례로는 7명의 작가들이 돌아가며 매일 1편의 에세이를 배달하는 에세이 구독 서비스 ‘북크루’ 등이 대표적임¹⁵⁾
 -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는 ‘트레바리’, 넷플릭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넷플연가’, 유튜브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코드’, ‘월간서른’, 마케터들의 모임 ‘이없스’, ‘문토’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느슨한 젊은이들의 연대를 표방하는 소셜살롱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음¹⁶⁾
- 그러나 그간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복지 차원의 일회성 지원에 그쳐온 것이 사실임
- 이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안정성과 자생력을 담보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비로소 사회적·산업적 차원에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음

12) 인간의 두뇌처럼 똑똑한 웹. 웹 2.0 시대에는 참여, 공유, 개방이 특징으로 네티즌들이 적극 참여해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사회적인 연결성을 중시했다면 웹 3.0 은 데이터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시대를 지칭함(네이버 백과사전).

13) 임학순(2010), 디지털 미디어 발전에 따른 문화예술 환경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6&t_num=13607621.

15)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2/209446/>.

16)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9595>.



[그림 1-3] 예술인 지원의 변화

- 따라서 예술인 지원은 고용보험 수혜 예술가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원, 직업적 안정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등과 더불어 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기술 인프라 지원, 예술 상호작용의 확산을 위한 유통, 마케팅 지원, 예술산업 생태계 지원 등을 방향으로 하는 예술인 자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제2절 계획수립 범위 및 방법

1. 계획수립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행정권역 일대

나. 시간적 범위 : 10년(2021년~2030년)

다. 내용적 범위

1) 경기 예술인 현황 분석

- 경기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 경기 예술인 생활 및 창작 여건 분석

2) 예술인지원 법령·계획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상위 법령 분석(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 경기도 관련 법령 분석
- 국내·외 예술인 복지 지원 사례 조사
- 기 추진 예술지원 사업 분석(예술인복지재단, 기타 광역시 예술인 지원 센터 등)
- 예술인협동조합 관련 최근 동향 파악

3)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분석

- 경기문화재단 현황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5)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 방향성 및 목표, 전략, 핵심사업 도출
- 기존 사업 수정·보완 방안 제시 및 신규지원 사업 발굴
- 창작-유통-소비단계의 유기적 지원 방안 연구(생활보장과 더불어 권익 보호, 예술을 통한 생활기반 조성 방안)
- 장애인 예술인 등 소외계층 지원 방안 제시
- 예술인 자립을 위한 네트워킹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6) 로드맵 제시

연구범위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행정권역 일대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30년(10년간)
내용적 범위	- 경기예술인 현황 분석 - 예술인지원 법령·계획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분석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 로드맵 제시

[그림 1-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의 범위

2.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크게 환경 및 수요조사(Module I)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전략 수립(Module II), 두 가지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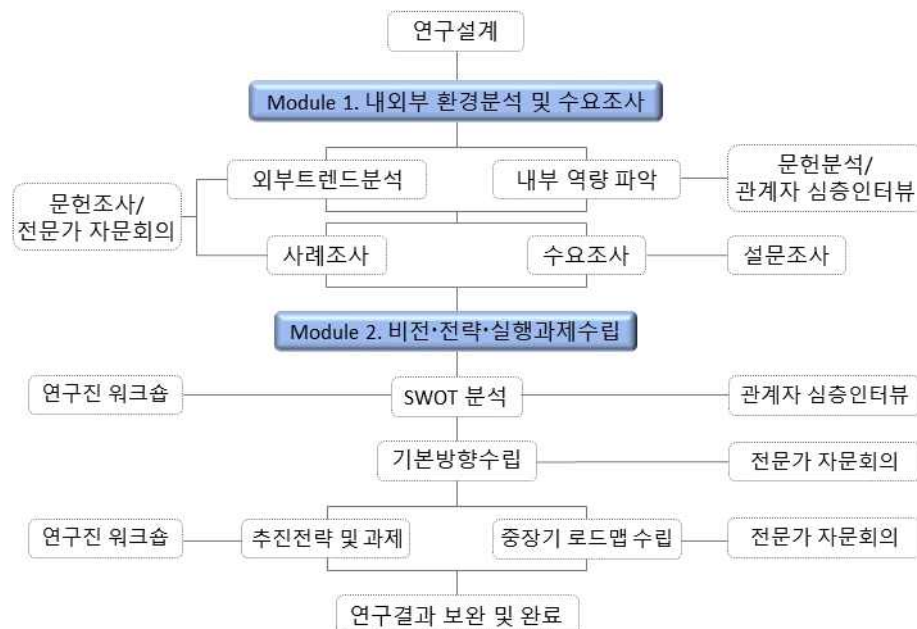
가. [Module I] 환경 및 수요조사

- (외부 트렌드 분석) 환경 및 수요조사는 예술인지원을 위한 정치, 기술, 사회, 경제 등의 외부환경과 상위 법령 및 계획 분석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내부 역량 파악) 경기도예술인 실태조사, 기존 문화예술 정책, 문화예술인지원 사업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사례 조사) 국내외 문화예술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장·단점과 연계 가능성을 도출

- (사례 조사) 국내외 예술인조합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수요 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나. [Module II]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전략 수립

- (SWOT 분석) 앞서 선행된 환경 및 수요조사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도출
- (기본방향 수립) 예술인 지원의 분야 중 생활기반 조성(사회안전망 구축), 권익 보호, 직업역량 강화, 창작역량 강화, 자립 지원 등을 연구의 중심으로 하여 비전, 미션 등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전략방향과 목표를 수립
- (추진전략 및 과제) 예술인 지원의 분야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과의 유사사업, 차별사업을 비교해 유사사업의 축소 논의 및 차별사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중점추진 과제를 도출
- (중장기 로드맵)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및 추진체계



[그림 1-5]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프로세스

3. 기대효과

- 중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업을 도출하여 센터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 예술인의 자립과 경기예술산업의 발전을 지향함
- 전국 지역 예술인지원센터의 중심으로써 광역문화재단 산하 예술인지원 센터들의 방향성을 선도하는 비전과 역할을 수행함

환경 분석

제1절 경기도 예술인 현황

1. 예술인 일반 현황
2. 경기도 예술인 현황

제2절 외부 환경 분석

1. 국내·외 환경 분석
2. 상위계획 및 법령 분석

제3절 내부 환경 분석

1. 경기문화재단 현황
2.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제1절 경기도 예술인 현황

1. 예술인의 정의 및 특성

가. 법적·제도적 정의

- 예술인복지법 제1장 제2조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¹⁷⁾
- 저작권법은 재산권 형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창작저작물에 어떠한 형식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예술인의 범주를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로 구분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에서 “②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④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¹⁸⁾이라고 저작물을 기준으로 저작자와 실연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음
-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통하여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전제로 예술인의 고용조건, 창작환경, 생활환경 등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¹⁹⁾
- 문화예술진흥법(제1장 제2조)에서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 13개 장르를 문화예술로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들의 예술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²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1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예술인 복지법」 제1장 제2조.

18)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저작권법」.

19) 박영정(2006),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43-44.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²¹⁾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부문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연예술의 경우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발레, 오페라, 국악(90) 등으로 분류하고, 시각예술은 회화, 조각·설치, 사진, 현대공예, 판화, 골동품·목기, 전통회화, 미디어아트 등으로 분류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장르 구분과 유사하며 문학, 미술(순수미술, 디자인, 공예, 서예, 사진, 미술 종합 및 기타), 연극(연극, 뮤지컬), 무용(한국무용, 외국무용, 대중무용), 음악(국악, 양악, 대중음악, 음악 종합 및 기타), 영화·만화/애니메이션, 기타 등으로 분류함. 특이점은 교육사업을 비롯해 현장 종사자 교육사업 내에서 융합 분야에 관한 장르가 따로 구분되어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학,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연극, 무용,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등으로 분류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문학(시/시조/소설/수필/희곡/아동문학(동시, 동화), 평론), 시각예술(동양화/서양화/서예/조각/사진),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으로 분류함²²⁾
- 주요 광역문화재단들의 예술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²³⁾
- 강원문화재단 : 문학(시, 소설, 희곡, 수필, 아동·청소년문학, 평론, 동인지 등),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연극(연극, 마임, 인형극, 뮤지컬, 아동청소년극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음악(오페라, 성악, 기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교향곡, 중창), 전통예술(풍물·사물놀이, 국악공연, 국악전승캠프), 예술일반(연예, 지역축제) 등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문학, 시각예술(미술, 공예, 사진, 건축, 영상), 연극(아동극, 연극, 뮤지컬 등),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음악(관현악, 실내악 등), 전통예술(민속예술 발표, 타악공연, 관현악, 실내악 등), 다원(탈장르, 실험적 복합예술), 예술서적 발간, 뉴-아트(융복합 기술 활용 예술 창작) 등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설명회 자료집.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광주문화재단 : 문학, 시각, 미술, 사진, 미디어, 영상, 공연(연극, 무용, 음악), 전통·국악, 다원예술, 영화 등
- 대구문화재단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기타(영화, 웹툰) 등
- 대전문화재단 : 문학, 시각, 공연(연극, 무용, 음악, 그랜드오페라, 전통(국악)),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
- 부산문화재단 : 문학, 시각예술(미술, 사진, 영상),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전통·국악, 우리가락우리마당), 다원예술, 예술일반(브랜드콘텐츠,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레지던시 활성화, 국제 예술교류), 거리예술 등
- 서울문화재단 : 문학, 시각(평면/입체, 미디어, 기타), 연극(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뮤지컬, 기타),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기타), 음악(기악, 성악, 작곡발표, 기타), 전통(국악기악, 국악성악, 연희, 전통무용, 작곡발표), 다원(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 세종시문화재단 : 문학예술, 시각예술(미술, 사진, 서예, 공예, 디자인 등),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국악, 시조, 민속), 다원예술 등
- 울산문화재단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국악)), 다원예술, 대중예술
- 인천문화재단 : 문학, 출판, 시각, 미술(응용미술), 사진, 건축, 공연(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예술, 영화, 연예, 어문, 만화 등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 문학, 시각예술(미술, 서예, 사진, 영상, 조각, 설치 등),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 다원예술 등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문학예술(시, 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학, 수필, 평론, 스토리텔링, 드라마·시나리오), 시각예술(회화(판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사진, 건축, 설치·영상매체),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장르복합·탈장르예술, 독립·실험예술, 공공예술프로젝트, 영상·미디어예술, 영화·애니메이션, 비주류예술 등)
- 제주문화예술재단 : 문학, 시각(한국화, 서양화, 서예, 판화, 설치, 사진, 공예, 건축, 기획, 디자인, 조소, 도예, 기타),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융복합형, 실험, 복합, 대중, 기타), 조사연구(비평활동) 등

- 충남문화재단 : 문학예술(시, 시조, 소설, 희곡, 향토사 연구), 시각 예술(순수미술,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디자인), 연극, 무용, 음악, 전통(국악), 다원, 신생예술, 예술교류,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나. 직업 분류로서의 정의

- 직업적으로는 전업 작가·자유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단속적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예술인’ 은 제3직능 수준 혹은 제4직능 수준이 필요한 직군인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에 분류되어 있음²⁴⁾
- 2017년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서는 소분류의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의 분류명을 관련 직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 ‘시각 및 공연예술가’ 로 변경하였음

다. 본고에서의 예술인 정의

- 본고에서는 예술인복지법과 저작권법, 한국표준 직업분류상의 예술인의 해석을 따르기로 함
 - ‘예술인’ 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예술인 복지법」),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예술 활동실적이 있거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있는(「저작권법」) 사람’ 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업적으로는 전업 작가·자유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단속적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²⁵⁾
- 장르는 폭넓게 해석하여 법적·제도적 정의와 주요 공공기관들의 분류체

24)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울: 통계청

25) 고혜영(2020), 예술인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학 박사논문.

계, 주요 광역문화재단들의 분류체계에서 정의하는 범위로 규정함

- 이른바 생활예술인²⁶⁾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예술교육지원이나 예술경영 등의 활동을 하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의로 변경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라. 예술인의 특성²⁷⁾

- 업무 특성
 - 첫째, 프로젝트에 기반한 계약,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둘째, 채용 시에 계약직, 임시직 등이 많아 근로 유연성(양적)이 높고, 동시에 근로 기간의 축소,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실업기간 등 상당한 고용 불안정이 존재함
 - 셋째, 종사자의 상대적 숙련도, 대중적 인지도 등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하여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며 비슷한 자격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존재함
 - 넷째, 필요한 지식 등 교육훈련 정도가 높고 직업적 전문성이 높아 장르 간 이동은 제한적임
 - 다섯째, 채용 등에 있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
 - 여섯째,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보호받는 정도가 다른 산업의 정규직에 비해 낮음
- 직업적 지위
 - 대개 예술분야에 일하는 자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함
 -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계약 내지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관계법 내지 4대 보험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freelancer)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속근

26) 예술 활동을 평생 전업으로 하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는 '전업예술인'과 달리 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에 평생 종사한 비전공자로, 개인의 기호재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함 (http://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381&page=1&c_idx=48&searchString=&c_idx_2=).

27) 노재철·김경진(2018),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483-493.

- 로라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상당수 예술인들은 사실상 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근로 제공을 하고 있음

○ 근로자성

- 예술인은 고도의 숙련을 바탕으로 창작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갖는 고숙련 프리랜서와 숙련도가 낮아서 사실상 타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는 저숙련 프리랜서 그리고 일반적인 근로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고숙련 프리랜서는 형식적·실체적으로 프리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됨
- 저숙련 프리랜서들의 경우,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노무 제공의 실체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음
- 즉 저숙련 프리랜서의 경우 실정법상(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 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으로 채택된 용례를 따르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할 수 있음. 국제노동기구 제6차 총회(1998)는 이와 같은 근로를 ‘계약근로(contract labour)’로 보고 있음

마. 예술인 일반 현황²⁸⁾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이 되었던 예술인은 약 18만 명이었음. 이 중 2020년 3월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7만 3,231명임²⁹⁾
- 2017년 예술인 각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으로 국민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1,480만 원)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은 1,281만 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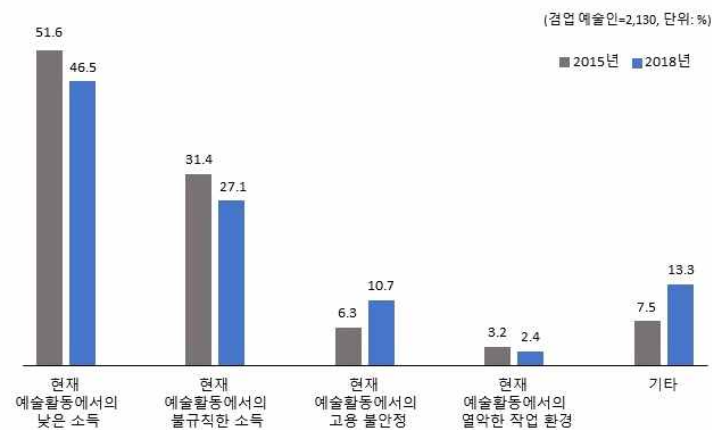
28)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예술인실태조사를 참조함.

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2020.08.23. 검색.



[그림 2-1]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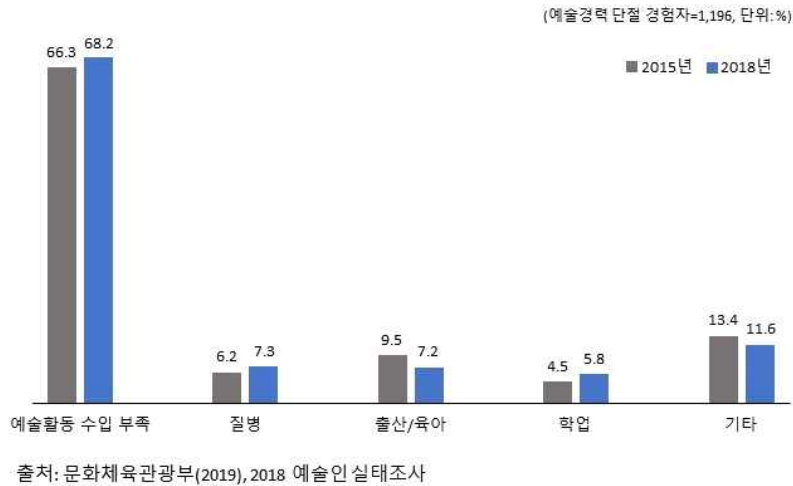
- 조사대상 예술인 중 57.4%가 전업 예술인이며,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의 비율이 76%임
 -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로는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고용 불안정(10.7%)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때문에 겸업예술인이 되는 경우, 2015년 6.3%에서 2018년 10.7%로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예술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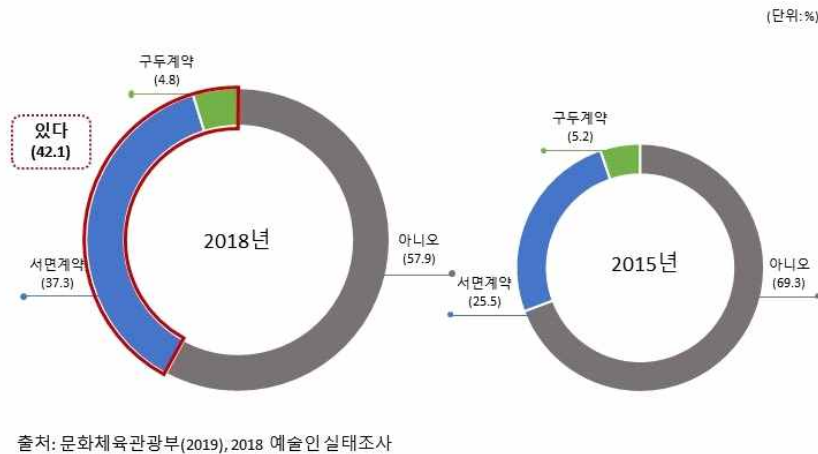
[그림 2-2]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 예술인의 경력단절 이유로는 68.2%가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부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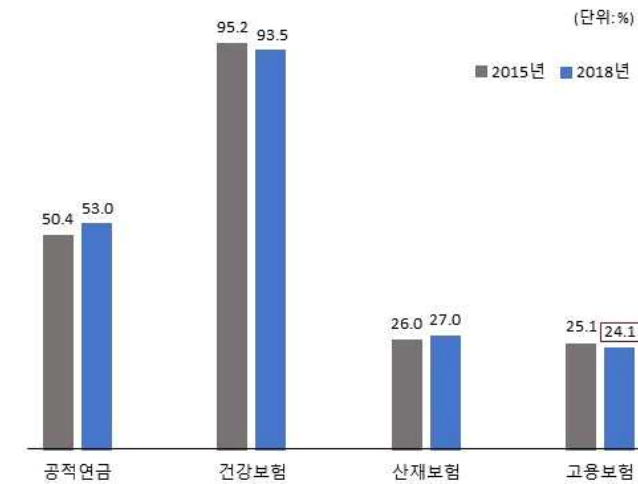
[그림 2-3] 예술인의 예술경력 단절 이유

-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률은 37.3%에 불과하였음



[그림 2-4] 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그침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5] 예술인의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률**

바. 시사점

- 추산되는 예술인 약 18만 명 중 예술인복지사업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예술 활동증명을 득한 예술인은 7만 3231명 정도에 그침
- 그중 5만 2,20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술 활동증명의 총체적인 홍보와 가입확대 노력이 요구됨
 - 현저히 낮은 계약체결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광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예술인고용보험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계약체결이 용이할 수 있는 조직(예를 들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2. 경기도 예술인 현황³⁰⁾

30) 2019년 경기도 예술인실태조사를 참고하였음.

가. 경기도 예술인 현황 개요

-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단체와 시·군 문화원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6만6천879명으로 조사되어 ‘2018예술인실태조사’의 5만 2,207명보다 약 1만4천여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전업예술인’은 47.0%, ‘겸업예술인’은 53.0%로 나타남
 - 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업예술인’(910만 원)이 ‘겸업예술인’(436만 원)보다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만화’ 분야의 수입이 2,57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진’ 분야는 76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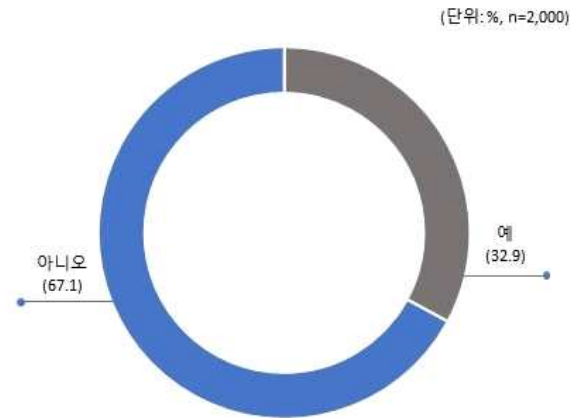
나. 예술활동 지역 및 분야

- 경기도 예술인은 고양시(8.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6.5%), ‘성남’(6.0%), ‘용인’(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거주 예술인의 주 예술활동 지역은 경기도가 80.2%로 대부분을 차지함
 - 경기도 내 주 예술활동 지역으로는 ‘수원’시가 6.2%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부천’(4.8%), ‘화성’(4.8%), ‘고양’(4.6%)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19.8%는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현황

1) 예술분야 관련 지원 경험 여부

- 응답자의 3명 중 1명 정도(32.9%)가 지난 1년간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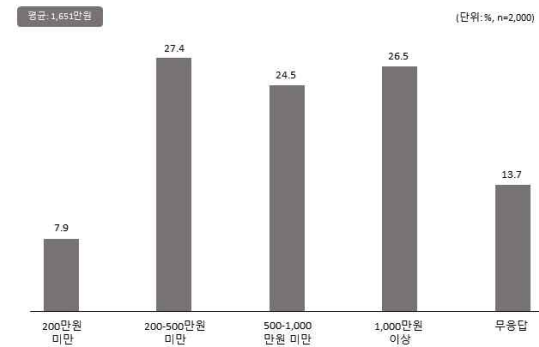
[그림 2-6] 예술분야 관련 지원 경험 여부

- 분야별 지원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건축’(71.4%), ‘연극’(53.6%) 분야가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만화’(12.9%) 분야는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과천’(84.3%), ‘의왕’(66.1%), ‘가평’(60.7%) 거주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 경험이 많았으나, ‘수원’(15.0%), ‘포천’(16.2%), ‘동두천’(17.4%), ‘안성’(17.5%)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기관에서 받은 지원은 ‘개인(38.0%)’보다는 ‘단체(팀)(59.8%)’로 받는 경우가 더 많았음
 - 하지만 ‘영화(95.6%), ‘문학’(69.4%), ‘만화’(68.2%), ‘미술’(64.9%) 분야는 ‘개인’으로 지원받은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음
 - ‘광명’(92.1%), ‘안성’(83.2%), ‘의왕’(74.8%), ‘과주’(69.8%), ‘안양’(62.8%), ‘고양’(60.8%) 거주자는 ‘개인’으로 지원받은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음
- 지난 1년간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기관별 지원 횟수는 평균 2.5회로 나타남

4) 기관별 지원 예산 규모

- 경기도 예술인이 지난 1년간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예산 규모는 평균 1,651만 원으로 나타남

- '200만 원 미만'은 7.9%, '200~500만 원 미만'은 27.4%, '500~1,000만 원 미만'은 24.5%, '1,000만 원 이상'은 26.5%임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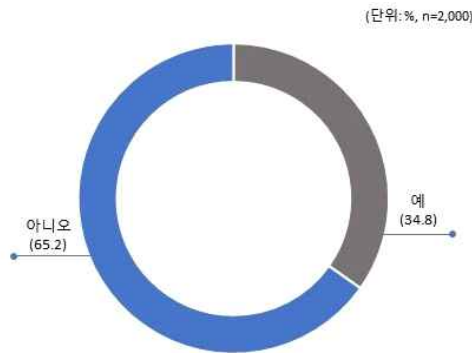
[그림 2-7] 예술분야 관련 지원 예산 규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3,360만 원), '국악'(2,117만 원), '건축'(2,000만 원)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 반면, '다원(복수) 등'(491만 원), '영화'(682만 원) 분야는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
 - 거주지별로는 '군포'(8,030만 원) 지역의 지원 규모가 가장 컸음
 - 반면 '안성'(233만 원)과 '구리'(260만 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았음

다. 활동 공간 및 교류 현황

1)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 경기도 예술인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가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34.8%)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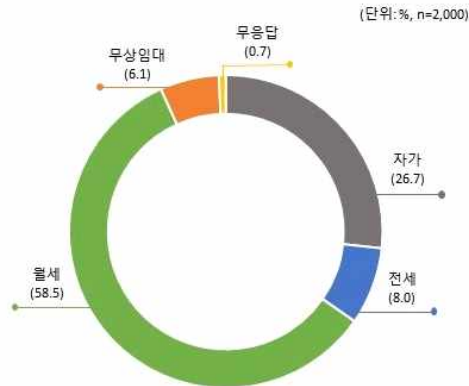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8]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 ‘미술’(65.9%), ‘다원(복수) 등’(41.6%), ‘연예’(40.7%)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 창작공간 보유 비율이 높았음. 반면 ‘건축’(0.0%), ‘국악’(20.8%), ‘무용’(22.0%)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남성’(40.6%),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활동(43.8%)하는 경우, 예술 분야 활동 기간이 길수록, 예술활동 관련 지원 경험(45.9%)이 있는 경우, ‘전업예술인’(39.7%)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양평’(66.2%), ‘구리’(53.5%)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인 창작공간 보유 비율이 높은 반면, ‘오산’(10.0%), ‘연천’(15.2%)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 4명 중 1명 정도는 ‘집 안(거주공간)의 별도 공간’(26.5%), ‘응답자 4명 중 3명 정도는 ‘집 밖의 별도 공간(거주공간과 분리)’(73.5%)이라고 응답함
 - 개인 창작공간의 위치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집 밖의 별도 공간(거주공간과 분리)’의 비율이 더 높음
 - 하지만 ‘영화’(70.7%)와 ‘문학’(70.6%)의 경우 ‘집 안(거주공간)의 별도 공간’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 경기도 예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창작공간의 소유 형태는 응답자 5명 3명 정도가 ‘월세’(58.5%)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가’(26.7%), ‘전세’(8.0%), ‘무상임대’(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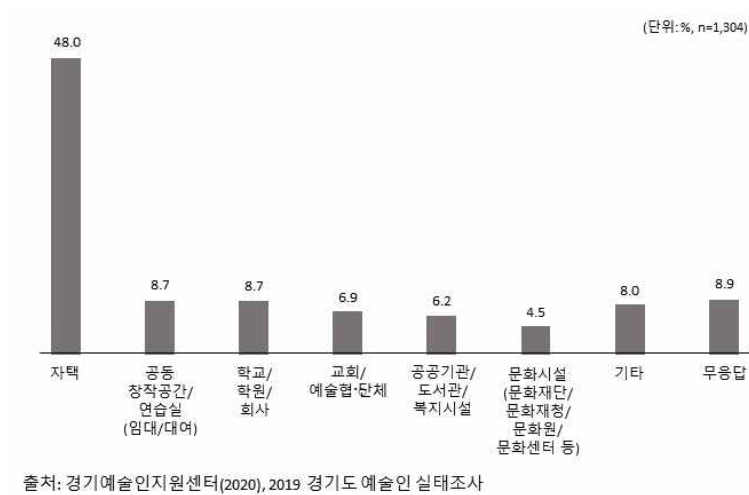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9]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

- 개인 창작공간을 ‘전세’ 및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불하고 있는 임대 보증금은 평균 2,671만 원, 월세는 평균 5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개인 창작공간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제공자(기관)는, ‘가족/ 친구/지인’이 28.7%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학교/학원/회사’(15.4%), ‘도서관/공공기관’(12.3%), ‘문화재단/예술단체’(9.2%), ‘영상진흥원’(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창작공간의 소유 형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예술분야 활동기간이 길수록 ‘자가’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예술분야 활동기간이 짧을수록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개인 창작공간 미소유자의 창작활동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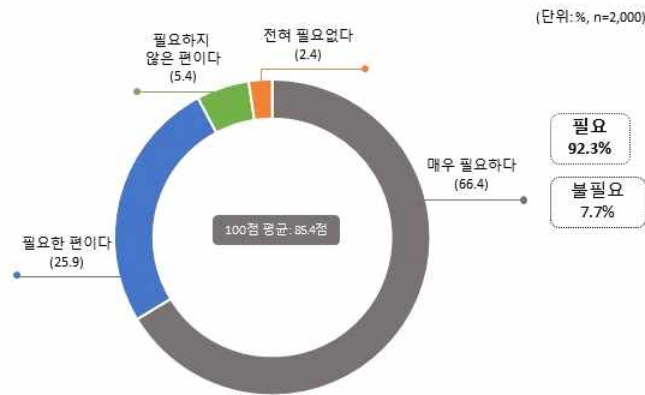
- 개인 창작공간을 소유하지 않은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활동 장소로는 ‘자택’이 48.0%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임대 및 대여를 통한) 공동창작공간/연습실’(8.7%), ‘학교/학원/회사’(8.7%), ‘교회/예술 협·단체’(6.9%), ‘공공기관/도서관/복지시설’(6.2%), ‘문화시설(문화재단/문화재청/문화원)’(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 개인 창작공간 미소유자의 창작활동 장소

4) 별도 창작공간의 필요성

-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위한 별도창작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경기도 예술인의 별도 창작공간 필요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5.4점으로 나타남
 - 별도의 창작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3%였음(‘매우 필요하다’ 66.4% + ‘필요한 편이다’ 25.9%)
 -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7%(‘전혀 필요없다’ 2.4%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4%)에 불과함
- ‘건축’(100.0점), ‘연극’(90.9점), ‘미술’(90.2점)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별도 창작공간에 대한 요구 정도가 컸으며, ‘문학’(73.4점), ‘다원(복수) 등’(75.9점), ‘사진’(77.5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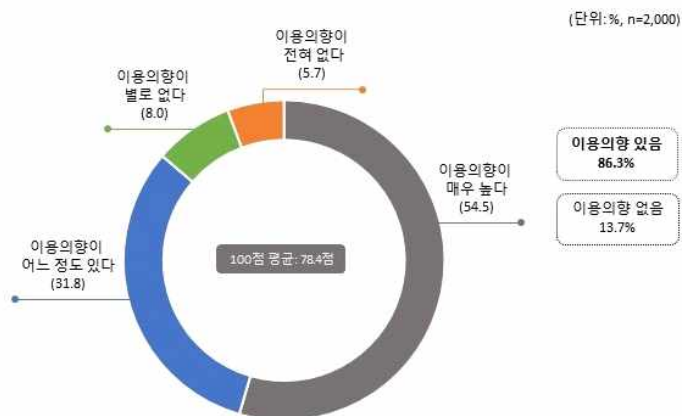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1] 별도 창작공간의 필요성

5) 경기도 공동 창작공간 이용 의향

- 경기도 예술인의 경기도 내 공동 창작공간 이용 의향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8.4점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86.3%가 ‘이용의향이 있다’(‘매우 높다’ 54.5% + 어느 정도 있다’ 31.8%)고 응답함
 - 반면 ‘이용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3.7%(‘전혀 없다’ 5.7% + ‘별로 없다’ 8.0%)로 나타남
- 응답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84.5점), ‘무용’(83.8점), ‘음악’(81.1점)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공동 창작공간 이용 의향이 높은 반면, ‘연예’(72.5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2] 경기도 공동 창작공간 이용 의향

6) 경기도 창작공간 구성 정도

- 경기도 내 창작공간 구성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1.9점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창작공간 (창작/연습/집필공간)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풍족하다’는 응답은 2.9%(‘매우 풍족하다’ 0.4% + ‘풍족한 편이다’ 2.5%)로 나타남
 -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75.9%(‘매우 부족하다’ 39.7% + ‘부족한 편이다’ 36.1%)에 달함
- 경기도 창작공간 구성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응답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만화’(39.3점)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건축’(14.3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편, 경기도 이외 지역 활동 여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기도 예술인’(26.0점)이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기도 예술인’(18.9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그림 2-13] 경기도 공동 창작공간 이용의향

7) 가입 및 활동 중인 예술인 협·단체 개수

- 경기도 예술인의 가입된 예술인 협·단체 개수는 평균 1.9개였음
 - 경기도 예술인 2명 중 1명 정도는 가입한 협·단체가 ‘1개’(49.8%)라고 응답함

- ‘2개’는 26.1%, ‘3개’는 15.1%, ‘4개 이상’은 8.5%로 나타남
- 경기도 예술인의 활동 중인 예술인 협·단체 개수는 평균 1.8개였음
 - 이중 실제 활동하는 협·단체 개수는 ‘없다’는 응답이 0.6%였음
 - 그 외에는 가입된 협·단체 개수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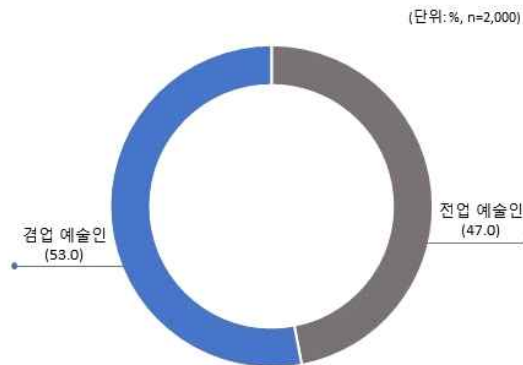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4] 가입 및 활동 중인 협·단체 수

라. 고용 및 복지 현황

1) 전업 및 겸업 예술인 여부

- 경기도 예술인은 ‘전업예술인’(47.0%) 보다는 ‘겸업예술인’(53.0%)이 조금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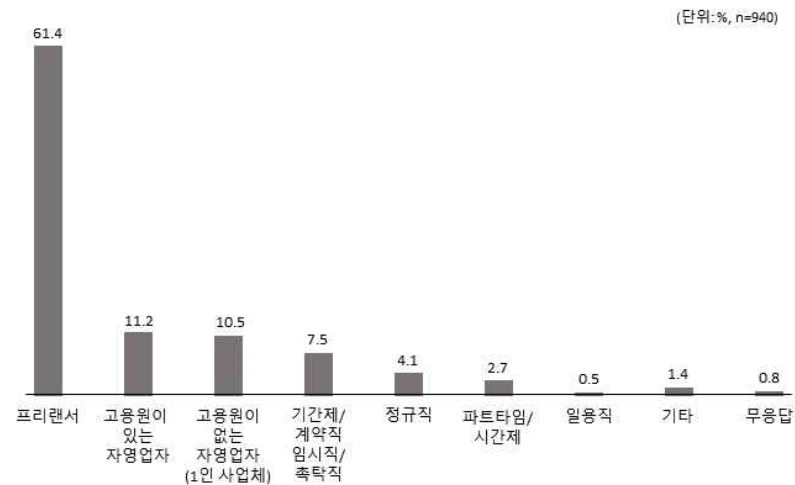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5] 전업/겸업 예술인 여부

- 하지만 '만화'(61.0%), '미술'(54.9%), '무용'(52.8%) 분야는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안성'(67.1%)과 '파주'(66.0%) 지역에서 '전업예술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여주'(77.8%), '가평'(76.6%), '광주'(73.6%) 거주자는 '겸업 예술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지난 1년간 고용형태-전업예술인

- 전업예술인의 5명 중 3명 정도가 '프리랜서'(61.4%)임
- 그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10.5%),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7.5%), '정규직'(4.1%), '파트타임/시간제'(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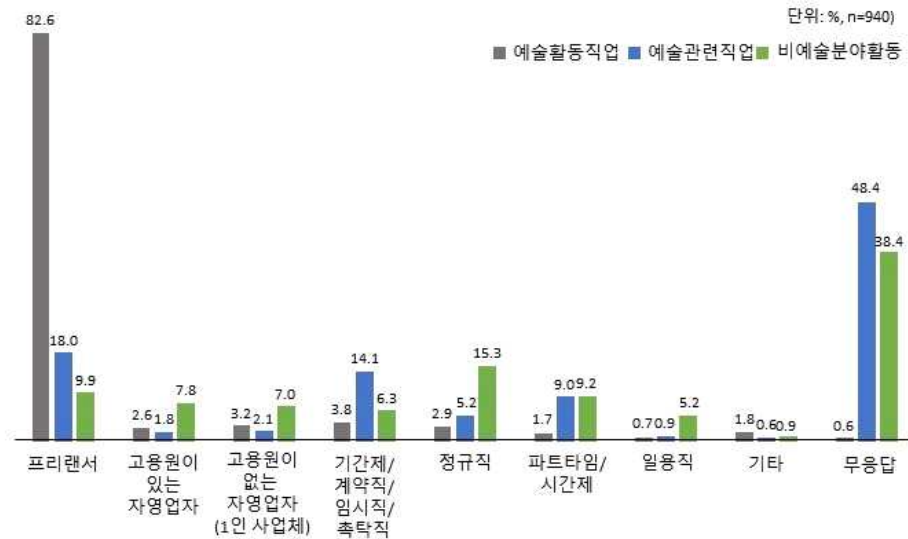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6] 지난 1년간 고용형태-전업 예술인

3) 지난 1년간 고용형태-겸업예술인

- 겸업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으로는 82.6%가 '프리랜서'임
- 예술 관련 직업으로는 '프리랜서'(18.0%), '기간제/계약직/임시직/축탁직'(14.1%), '파트타임/시간제'(9.0%) 순임

- 비예술 분야 직업으로는 '정규직'(15.3%), '프리랜서'(9.9%), '파트타임/시간제'(9.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7.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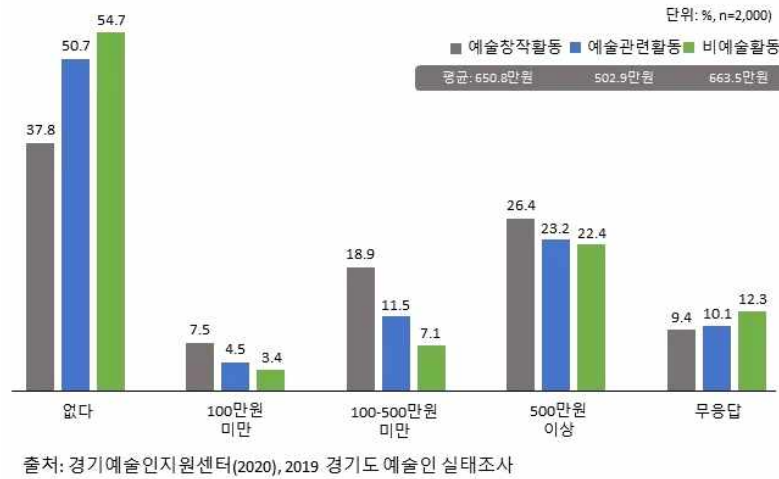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7] 지난 1년간 고용형태-겸업 예술인

4) 지난 1년간 예술 및 비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

- 경기도 예술인의 지난 1년 간의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651만 원, 예술 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503만 원, 비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은 평균 664만 원으로 나타남
 - '만화' 분야의 수입이 2,574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사진' 분야는 7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안성'(1,514만 원)과 '용인'(1,430만 원) 거주자의 수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의왕'(58만 원), '여주'(67만 원), '가평'(75만 원) 지역은 낮게 나타남
 - 분야별로는 '건축' 분야의 수입이 2,142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문학' 분야는 11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안성'(3,108만 원), '광주'(1,402만 원) 거주자의 수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연천'(170만 원), '의정부'(178만 원) 지역은 낮게 나타남

- 한편,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업예술인’(910만 원)이 ‘겸업예술인’(436만 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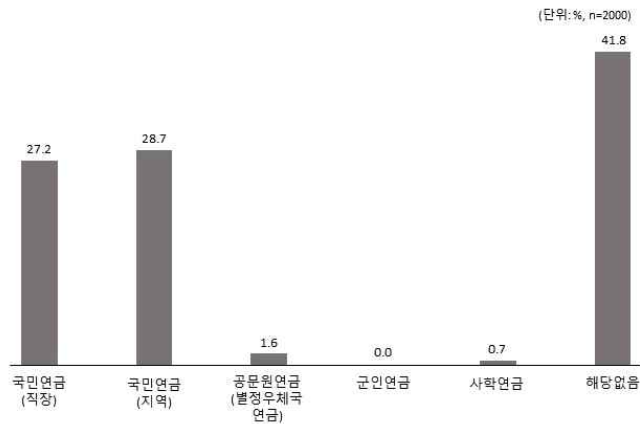


[그림 2-18] 지난 1년간 예술 및 비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

- 경기도 예술인의 ‘비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을 응답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진’ 분야의 수입이 2,416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만화’ 분야는 32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연천’(1,853만 원), ‘여주’(1,768만 원) 거주자의 수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구리’(103만 원)와 ‘안성(103만 원) 지역은 낮게 나타남

5) 4대 보험 가입형태- 공적연금

- 경기도 예술인의 5명 중 2명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41.8%)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 가입 형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28.7%)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27.2%)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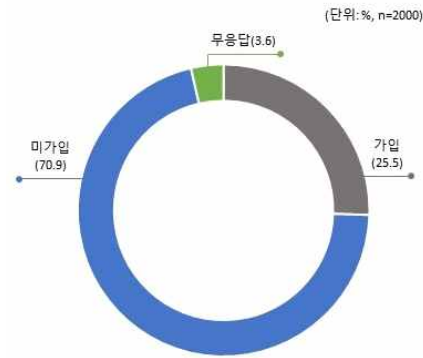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9] 4대 보험 가입형태

- 분야별로는 ‘사진’ 분야의 공적연금 가입 비율은 75.7%로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영화’ 분야는 46.3%로 공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음
- 예술분야 활동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전업예술인(49.4%)의 경우 공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예술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는 5명 중 2명 정도가 ‘지역 가입자’(40.8%)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 가입자’(26.1%),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예술인의 3명 중 2명 정도(68.0%)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전업예술인(20.7%)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겸업예술인’(35.1%)보다 낮게 나타남
 -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직장에서 가입’이 25.6%, ‘본인이 가입’이 2.8%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 분야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71.4%로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무용’ 분야는 16.8%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예술인의 4명 중 3명 정도(70.9%)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71.4%로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무용’(15.0%)과 ‘연예’(15.4%) 분야는 가장 낮았음.

- 한편, 전업/겸업 여부별로 살펴보면, ‘전업예술인(16.1%)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겸업예술인’(33.9%)보다 낮게 나타남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20] 고용보험 가입형태

마. 시사점

-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개인(38.0%)’보다는 ‘단체(팀)(59.8%)’로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가들을 조직화하거나, 단체 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업예술인’의 경우도 9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평균 1,281만 원(2018예술인실태조사)의 71% 수준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와 별도로 경기도 차원의 예술인복지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절실함을 시사하는 것임
- 예술인 협·단체 개수는 평균 1.8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인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성향이 있어 단체가입에 소극적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상치되는 것임
-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위한 별도창작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창작공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21.9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남. 이는 경기도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공적 연금(5명 중 2명), 산재보험(3명 중 2명), 고용보험(4명 중 3명)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많아 기본적 생활보장이 취약함
 -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70.9%에 달하는 데 이는 ‘전업예술

인’(47.0%) 보다는 ‘겸업예술인’(53.0%)이 더 많고, 전업예술인의 5명 중 3명 정도가 ‘프리랜서’(61.4%)이기 때문임

- 따라서 예술인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전업예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제2절 외부 환경 분석

1. 국내·외 환경 분석

가. 정치

1) 지방분권 활성화

-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등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의 상당수가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
- 민선 7기 지자체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도시 및 지역의 쇠퇴에 대응한 대안 모색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치와 분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됨

2) ‘코로나19 팬데믹’의 선언과 국제사회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세계유행(Pandemic)을 선언함
 - 1968년 ‘홍콩독감’, 2009년의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함
-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추진이 활발해짐³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
 - 화상회의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를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함
 - 주요 20개국은 공동의 위협에 관해 ‘투명한 정보 공유’, ‘역학 및 임상자료 교환’,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 공유’,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정의 완전한 이행’ 등 국제 보건 강화에 합의함
 - 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 Group), 국제연합(UN) 등 여타 국제기구들과 필요한 모든 조치 추진에 합의함

31) 정책리포트(202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나. 경제

1) 세계경제

■ 세계경제 둔화 전망

-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수출 및 입국제한 등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축상황이 발생하여 금융시장 불안 등 경기침체가 초래됨
- 중국, 한국,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 실물경기의 위축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심화됨
 - Global Insight 전망: ('19. 12.) 2.56% → ('20. 01.) 2.53 → ('20. 02.) 2.46 → ('20. 03.) 0.68 → ('20. 04.) ▼3.02% → ('20. 05.) ▼5.49%로 계속 하향 조정
 - IMF(4.14)는 세계경제성장률을 3.3%→▼3.0%, 중국 3.6%→1.2%, 미국 2.0%→▼5.9%, EU지역 1.3%→▼7.5%, 일본 0.7%→▼5.2%, 신흥국 4.4%→▼1.0%로 하향 조정³²⁾
- 세계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비상대책 수립정책을 실시하는 등 최악의 상황임

2) 국내경제

■ 경제성장률 위축 및 소비산업 등 경제 전 분야 섣다운 우려

- 한국경제성장률,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Global Insight 전망: ('19. 12.) 1.55%→('20. 01.) 1.56%→('20. 02.) 1.49%→ ('20. 03.) 0.21%→('20. 04.) ▼0.062%→('20. 05.) ▼0.94%로 하향 조정
 - IMF의 경우 한국경제성장률을 2.2% → -1.2%로 하향 전망³³⁾
 - 한국은행 코로나19 재확산에 2020년 성장률 -1.3%로 하향조정³⁴⁾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34) 경향신문 보도자료 검색. (2020년8월27일).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일부 바이오,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제조, 서비스산업에서 경기급락 추세임
 -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며 장기적인 경기위축 가능성을 보임
 - 경기침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모든 소비산업이 섰다운 상태임
- 정부도 3차에 걸친 추경 대책, 한국판 뉴딜정책 등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등 보완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3)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시장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시장 변화

- 코로나19로 초래된 경기침체로 소비규모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제품과 플랫폼을 찾는 소비의 증가로 인해 니치(틈새)를 더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니치(ultra-niches)³⁵⁾마케팅이 중요해 짐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모든 장르의 예술계가 대면공연/전시가 취소되어 비대면 발표로 전환됨
- 장기불황으로 카셰어링(carsharing, car sharing)과 같은 본격적인 공유경제가 확산될 추세임
- 물질에 대한 소비에서 가치와 경험에 대한 소비로의 변화가 뚜렷함

다. 사회

1)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³⁶⁾ 진입

■ 인구구조 변화

-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35) 연합뉴스 보도자료 검색(2020년5월26일).

36) 유엔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비중이 7.3%에 이르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섬. 통계청은 이런 이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설명함(방준호(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보다 7년 빨라, 한겨레).

뚜렷함

- 싱글족이나 만혼, 비출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규모 축소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 뉴시니어(New Senior)의 등장

- 뉴시니어는 더는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으며 삶을 즐기며 사는 50~60대를 일컫는 용어임
- 뉴시니어족의 상당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³⁷⁾이기도 함
 - 하나투어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들이 2018년 여행 소비를 주도함³⁸⁾
 - 액티브 시니어가 구매한 여행 상품 가격의 평균은 112만 원으로 타 연령대 대비 18% 높음
 - 프리미엄 여행상품 구매 비중은 55%로 타 연령대보다 상당히 높음
- 부부 또는 개별 여행을 더 선호하는 뉴시니어를 겨냥한 맞춤형 패키지 여행이 등장함
 - 일본에서는 고령층의 간병을 도우며 여행을 함께하는 ‘트래블 헬퍼’라는 직업이 생김
 - 국내에서도 뉴시니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증가함³⁹⁾

2) 코로나19로 인한 재해문화 현상 대두

-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재해문화와 관련해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접촉 인구 증가
- 비대면 소비방식과 재택근무의 확산이 일상화됨
- 자급자족, DIY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상품과 산업이 성장
 - 취향에 탐닉하고 공유하는 취향공동체 확산

37) 액티브 시니어는 나이보다 젊게 살고 싶어 하며 실제로 자신들이 젊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으로 과거의 고령층처럼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특징을 가짐(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8) 김강현(2019.2.28.), [액티브 시니어 비즈니스가 뜬다 (1)] 뉴시니어들, 소비시장 새로운 중심축으로, 포춘코리아.

39) 현재 우리나라의 뉴시니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는 서울 종로구의 허리우드 클래식, 서울 송파구의 송파실벗트랙, 서울시 자양동의 더클래식500, 대구 수성구의 시니어문화센터 아리랑, 서울 강남구의 개방형 경로당 사업 등이 있음.

라. 기술

1)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예술의 등장

- 현대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또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이뤄지며 변모하는 추세임⁴⁰⁾
 -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소비자와 기술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 특히 문화산업은 타 산업 대비 기술의 진보와 문화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임
 - ICT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 기술 등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나노, 바이오, 인지과학 등 융·복합 등을 통해 기술혁신이 이뤄짐
-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들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있음⁴¹⁾
 - 시각예술분야에서 렘브란트풍의 그림을 그리는 ‘넥스트 렘브란트’나 구글의 ‘딤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대중들에게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예술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함
 - 구글의 ‘마젠타’와 바하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쿨리타’, 스페인 말라가대학의 ‘야무스’와 같은 작곡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예술가도 등장함
- 문화기술(CT)이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콘텐츠)’ 전반의 창작·기획·제작·표현·유통에 활용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함⁴²⁾
 - 문화기술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로서 이공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디자인, 예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포함한 복합적인 기술을 총칭함⁴³⁾

40)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문화기술(CT) 로드맵 2020 수립 연구」.

41) 김선영(2020), 「4차산업시대, 예술의 길」, 봄봄스토리, p.20.

42)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CT R&D 기본계획」.

43) 김효영, 박진완(2013), 「문화콘텐츠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기술(CT) 분류체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5호.

- 문화기술은 세부적으로 크게 응용기술 부분과 기반 기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응용기술 부분은 프로그래밍, 그래픽, 사운드, VR, AR 등과 같이 제작이나 표현기술과 관련된 것임
- 기반 기술 부문은 콘텐츠 상품의 작품화(기획, 창작), 콘텐츠 사업자에 의한 상품화(개발, 제작), 미디어탑재(서비스, 네트워크, 솔루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원), 전달(유통, 마케팅) 등을 일컫음⁴⁴⁾
- 문화기술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저비용·고효율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임
 - 문화기술은 콘텐츠의 기획과정에서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영향을 미침
 - 단순한 공학기술력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실현하는 콘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적 감성과 접근이 필요함⁴⁵⁾

2) 재해문화의 도래와 문화예술향유 방식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술 감상의 확대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 사고를 더욱 앞당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통창구의 기술적 개발과 접목이 필요함
 - 비대면 방식의 소통확산에 따라 VR/AR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유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예술 콘텐츠가 점차 주목을 받는 추세임
- 감염법에 따른 오프라인 공연 및 전시 취소와 함께 안전을 중시하는 관람방식으로 대체됨
 - 대다수 공연예술작품의 쇼케이스, 국내외 공연과 예술교육프로그램 및 전시를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줌(Zoom)을 활용해 유/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 최근 세계최대의 오프라인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이 ‘온라인 뷰잉룸’으로 대체함

2. 상위계획 및 법령 분석

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문화기술 R&D 동향 및 시사점」.

45)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우수 문화콘텐츠 상설전시관 구축 및 운영 기술개발 연구」, p.14.

가.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령

1) 문화기본법

-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됨
-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문화 정책 방향 및 추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국민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를 ‘문화권’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문화와 관련된 세부 법령들과 헌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함
 - 시민의 행복 추구 보장과 국가발전에 있어 문화가 높은 가치와 위상을 가짐을 명시하며 문화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⁴⁶⁾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문화기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문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됨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됨

2) 문화예술진흥법

- 1972년 8월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첫 법령임
 - 1968년 문화예술정책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문화공보부가 발족됨에

46)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는 문화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평가하여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 참여 정부 시기를 전후하여 문화 분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법률 제12134호, 2013.12.30.)에서 이를 제도화함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상열(2019), 문화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9-54).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됨

- 이전까지 개별 정책대상에 대한 절차규정과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던 법률들을 통합하고 각종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모법으로 제정되었음⁴⁷⁾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함
 -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미술, 음악, 문학, 연예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 문화예술의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47) 문화관광부(2006),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p.10.

〈표 2-1〉 「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조(목적)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률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화시설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고 기획하는 전문인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함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장려금 지급 및 시상할 수 있음 -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음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 운용·관리함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 전당을 두고 진흥원과 전당은 법인으로 함

출처: 법제처(<http://www.law.go.kr>)

3) 예술인복지법

-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전업예술작가와 단속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임시고용직 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됨⁴⁸⁾

48) 김휘정, “예술인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제1호 제권 2013(2).

- 2011년 2월 생활고로 사망한 한 시나리오작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법률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동년 11월 18일 시행됨⁴⁹⁾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바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선언적 규정으로 남음

<표 2-2> 현행 「예술인복지법」 상 4대보험 적용

구분	예술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특례	예술인복지 기금설치	예술인 공제회
적용여부	x	x	○	x	x	x

4)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시행(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 예술인들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준비 기간이 많아 생활안정이 필요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음
 - 2008년 예술인복지법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됨
 - 정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를 구성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함
 - 2018년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2020년 5월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⁵⁰⁾이 국회를 통과함.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 및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49)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술인'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음.

5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2020.5.20.).

- 『예술인복지법』 하에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을 대상으로 함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한편 임금근로자와 다르게 예술인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됨

○ 주요 이슈

- 예술인 집단을 따로 묶어 혜택을 주겠다는 특례는 사실상 예술인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상정한 것으로 추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문화예술노동연대, 2020)
- 「예술인복지법」 제2조 2호에 명시된 ‘예술 활동 증명을 해야 하는 자’의 범위가 모호함
- 피보험 단위 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기 근로자가 많은 예술 분야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움
-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은 예술 관련 업체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제9조,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 명문화),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제10조,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의 법적

근거), 고용지원(제11조,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의 기반),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제13조)를 핵심 내용으로 함

6) 예술인 권리보장법

- 21대 국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발의됨에 따라 예술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하여 온라인 공청회(2020.09.11.)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함
- 예술인의 피해구제와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 되어서는 안되며, 예술계의 오래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마주하여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법이 되어야 함
- 예술현장과 예술 행정,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문화까지 아우르는 변화를 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함

7) 시사점

-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모호한 예술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
 - 신진예술인과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 신진예술인들과 경력단절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증명을 위해 복합적인 형태의 예술 활동발표 기획 및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열기 어려운 미술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 근로를 중장기 근로로 바꾸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함
 - 계약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함
 -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대책으로 연습 시간의 산정 등 예술인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 지침 마련이 요구됨. 예술인의 예술활동 종사 기간은 연평균 4.7개월에 불과함

- 영세한 예술 관련 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료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지원사업을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자립준비금지원사업에 별도의 영역으로 일정 비율을 정해 ‘장애예술인 자립준비금지원’을 명시할 수 있음

나.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1)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⁵¹⁾

-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 문화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및 창작의 바탕이 되는 기초예술 지원
 -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 사전예방·사후대응 강화, 공정구조 강화 추진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강화
 - 사회보험지원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지속 추진(「예술인복지법」,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을 주요 업무로 설정

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⁵²⁾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2월,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함

51)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52) 문화체육관광부(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등 4개의 전략과 15개의 핵심 과제를 담음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를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예산에 가점 부과,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한 제1차 문화도시를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1차 문화도시는 지난해 말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총 7 곳이 지정됐으며, 2024년까지 전국에 문화도시 최대 30곳을 만드는 방침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를 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공공재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1973년 10월 11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식으로 개원되었고,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됨
 - 문화예술진흥의 추진 주체가 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도에 복권기금을 문예 진흥 기금사업에 투입하며 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나눔 사업을 시행
- 2020년도 사업은 예술가의 입장에 맞게 변화된 심의제도와 인권보호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자기부담금 적용제외사업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개편

라. 경기도의 관련 정책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⁵³⁾

○ 가치와 방향

- 비전으로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하나되는 경기”로 설정
- 문화예술을 소극적인 지원정책, 주관적·정서적 민족과 여가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던 소극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

○ 전략 목표

- ‘문화의 미래 경기, 미래의 문화 경기’, ‘문화로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경기’,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문화로 하나되는 경기’ 등 4개로 설정
- 세부전략목표와 전략과제는 각각 11개씩 선정하였으며,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의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전략목표	세부전략목표	전략과제(아젠다)
문화의 미래 경기 미래의 문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 경기천년 이미지 제고 • 한류 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정체계 개편 • 경기천년 문화이미지제고 • 한류 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문화로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삶 활성화 • 문화예술 창작의 발산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삶 일상화 • 문화예술 창작의 발산지로 전환 • 문화재정 3% 확충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환경 조성 및 지역재생 • 시민문화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의 시민문화활동 거점화 • 문화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재생
문화로 하나되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정신문화의 중심지 조성 • 문화격차 해소 • 남북 문화교류 거점지역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정신문화와 공동체 가치 제고 • 경기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DMZ에 평화·생태 예술창작 중심지 조성

출처: 경기도(2020)

2) 경기비전 2040⁵⁴⁾

53) 군포문화재단(2017), 군포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방안 연구보고서.

54) 경기도(2016), 경기비전 2040.

- 배경
 - 저성장시대 진입, 인구피크 도달과 ‘뉴 노멀(New Normal)’⁵⁵⁾ 시대 진입
 - 주력산업 위기, 광역시 추진 등 돌발요소의 위험이 점차 증대
 - 공약실천계획이나 법정 종합계획으로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 해결에 한계
- 비전 및 목표
 - 비전 : “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 3대 목표 :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 경기관광의 세계화
- 3대 전략
 -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실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5개 아젠다 추진
 -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경기지역학 육성 등 3개 아젠다 추진
 - 스마트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등 4개 아젠다 추진

55) 뉴노멀은 이전까지는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으로 자리를 잡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말은 벤처 투자가 로저 맥너미(Roger McNameee)가 2003년 처음 사용했고, 그후 세계 최대 채권 운용회사 ‘핍코’의 최고경영자인 무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발생한 현상을 뉴노멀로 언급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경제가 3%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정상(Normal)이었는데, 그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생겨난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김기봉(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105-130).

비전	교육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목표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경기 관광의 세계화
전략	<p>3-1.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p> <p>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p> <p>3-1-2.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p> <p>3-1-3. 포괄적 평생학습 세계 구축</p> <p>3-1-4. 핵심역량과 비인지적 능력 향상을 돕는 인성 교육 강화</p> <p>3-1-5.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존중력 회복</p>	<p>3-2.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p> <p>3-2-1. 문화예술창작허브 로서 경기도</p> <p>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p> <p>3-2-3. 경기지역학 육성</p>	<p>3-3.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p> <p>3-3-1.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신관광생태계 조성</p> <p>3-3-2.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p> <p>3-3-3. 경기천년, 역사 문화유산자원의 글로벌화</p> <p>3-3-4. 문화도시 조성</p>

[그림 2-21] 경기비전2040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비전·목표·전략

출처: 경기비전 2040

제3절 내부 환경 분석

1. 경기문화재단 현황

가. 개요 및 연혁

- 경기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997년 7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광역 문화재단
 - 주요사업조직으로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이 있음
- 2019년 8월, 경기북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의정부 사무소 개소(운영 인원 30여 명)⁵⁶⁾
 - 소외됐던 경기북부 지역민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과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⁵⁷⁾
 - 지역문화팀, 정책사업팀, 예술교육팀 등 3개팀이 에코뮤지엄 프로젝트(지역문화팀), 공공예술 프로젝트, 경기북부 특화 공모사업을 진행
 -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개발 사업과 시민예술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 등 수행
 - DMZ를 국제적으로 명소화(브랜드화)하기 위한 DMZ 프로젝트, 31개 시·군의 지역문화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경기 킬러로드 사업 등 광역-기초 교류협력사업 추진

56) <https://www.ggcf.kr/archives/109297>.

57)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924010008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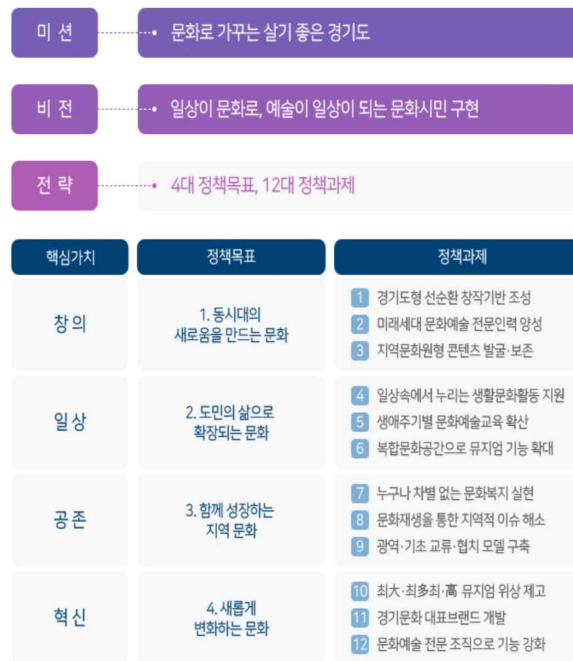
[그림 2-22] 경기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58)

나. 미션과 비전

- 미션 :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
- 비전 :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시민 구현

58) <https://www.ggcf.kr/about-us/ggcf-introduce/organization>, 2020.10.01. 검색.



[그림 2-23] 경기문화재단 미션·비전·전략

출처: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⁵⁹⁾

다. 중점추진계획

- 민선 7기 도정방향에 부응하는 **新비전체계** 수립 및 **미래비전** 성취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설정
 - **新미래비전** 및 전략 도출, 윤리투명 경영 강화, 독립 뮤지엄의 위상 제고, 생활문화·예술교육 기능 강화, 경기북부 등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 경기도의 문화비전인 “문화로 가꾸는 행복한 삶”을 심화할 수 있는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20~2024) 수립 -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 단계별 육성계획 수립
- 문화민주주의시대 시민생활문화 육성지원 확대
 - (경기생활문화 플랫폼) 시민의 일상적,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 촉진 지원
 -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 기초문화재단 협력을 통한 생활문화동호회 육성

59) <https://www.ggcf.kr/about-us/ggcf-introduce/organization>, 2020.10.01. 검색.

- (생활문화 전문인력 발굴)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발굴
- (생활문화브랜드 축제) 경기도 생활문화 브랜드 축제 개발 운영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코리아 디아스포라) 격동기 중앙아시아 등에 강제 이주한 한인 후손 초청 및 한인 네트워크 구축
 -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3.1운동 정신의 확산과 임시정부 수립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문화예술 사업 발굴·지원
 - (100주년 기념사업 콘텐츠 제작) 100주년을 맞이해 도민 역사 인식 제고 및 근·현대 경기도 역사, 문화, 사회상을 담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지역 문화사업 확대
 - (소외계층 문화나눔) 도내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운영단체(15개 내외) 선정 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문화누리카드사업)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촉진을 통한 공정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북부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북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확산을 통하여, 남·북부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
-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뮤지엄 기획전 개최

라. 예술 활동지원 사업 현황

1)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거점공간 조성

- 지역이슈·자원 발굴과 지역 공동체 기반의 공간 조성을 통해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가치 확산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이슈와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소, 지역에 문화적 활력을 찾아가는 문화재상 활동
 - 도내 문화자원인 ‘예술가 작업실’을 발굴, 참여형 오픈스튜디오 운영, 네트워크파티, 전시, 아카이브 구축
 - 지역공동체 기반의 시민제작공간(창생공간) 활성화 및 신규공간 지원,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 발굴

- 공공성, 공동체성을 갖춘 운영주체 발굴 및 선별, 공공적 허브 기능 수행
- 2016~2018년도까지 진행했던 창생공간 조성·기반구축사업의 연계 확장된 사업임



[그림 2-24] 거점공간 조성 단계별 방향(2016~2020)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2) 아트경기

-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기미술인의 작품발굴, 전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도내 미술시장 기반구축 및 유통사업자 육성을 통해 건전한 미술거래 문화 및 플랫폼 활성화와 도민에게 다양한 예술향유방법 제시
 - 경기도 기반의 시각예술작가를 발굴·육성하여 전시판매사업에 참가, 미술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미술유통채널(갤러리 등)과 계약을 유도하여 작가의 창작활동 자생력 강화
- 2019아트경기 협력사업 추진 내용
 - 아트경기 작가 선정 44명, 협력사 공모 5팀 선정
 - 아트경기 캠페인 <경기 아트로 물들다>(순회전시 5회)
 - 미술장터 2회(9월,10월) : 아트경기×유니온아트페어(서울)/유니온아트페스타×아트경기(수원)
 - 팝업갤러리<공존>(2회), 아트경기 화랑미술제 특별전 개최

〈표 2-4〉 경기문화재단 사업 개요

사업분야	사업내용
예술창작진흥	예술지원 / 아트경기 예술프로젝트 / 경기창작센터
지역문화사업	경기에코뮤지움 지역문화재생 경기북부문화 플러스 / G-Public Art
생활문화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경기시민예술학교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복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경기문화나눔센터
경기학 진흥	경기학 통신 경기역사총서 / 매거진
정책·교류	문화정책연구 정책·교류사업 / 문화이음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3)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며 문화예술계 생계위기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함
 - 단순 소득지원에서 벗어나 참여형 예술 활동을 통한 공공적 활동 유도
 - 비대면 환경에 맞는 新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공연자 및 향유자 WIN-WIN 전략 구축
 - 코로나19 회복 공감 확산을 위한 경기도형 예술백신 프로젝트 홍보 및 사회공헌 활성화
- 공공미술, 공연예술 지원, 전업 예술인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예술가 조합 공공예술 지원 등 총 50억 원 사업비 집행
 - 백만원의 기적 : 경기도 내 문화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모 지원(실효성 제고를 위해 Two-Track 지원, 기획 선정 시 100만 원 / 실행 결과물 제출 시 100만 원)
 - 드라이빙 씨어터 : 드라이빙씨어터 비대면 공연 실행(새로운 공연문

- 화 마련), 다양성영화 상영권 구매 및 상영(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감독 지원)(300만 원 교부(1차)/ 잔여교부금 진행(2차))
- 긴급 작품 구입 및 활용 : 경기도 거주 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다건 방식의 작품구입 공모 추진, 외부 작품수장시설 임대하여 구입작품 보관. 향후 ‘경기미술은행’ 사업으로 확장 예정(최종구입작품 203건, 구입금액 449,290,000원/연간 종합보험 가입, 구입작품 크레이트 포장 및 외부수장시설 격납, 구입작품 디지털화 및 통합작품 관리 목록 작성)
 -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 사업,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진혼교향곡 영상제작,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사업으로 구성(제작지원공모 40건 최대 5천만 원 지원)
 - 예술가조합 공공예술 지원 : ‘자립’과 ‘연대’, 그리고 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예술인 조합>을 공공부문의 예술프로젝트의 수행 주체로 지원(1차 지원서 심의로 10건 선정 후 건당 5백만 원 지원, 10건 중 사업계획(PT발표) 심의로 최종 6건 선정 후 건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그림 2-25]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개요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2.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황

가. 개요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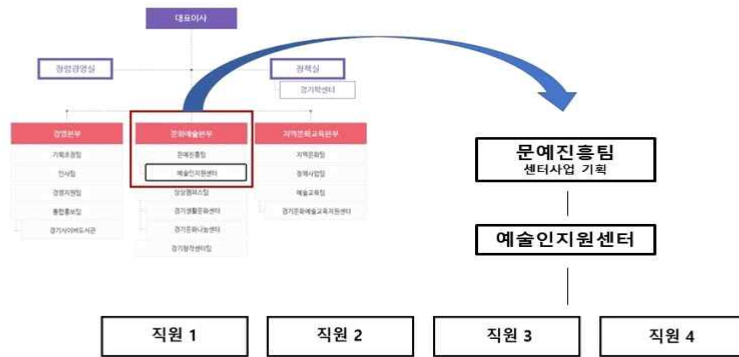
-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권리향상과 창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설립
- 조직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예하 문예진흥팀 소속
- 센터장 1명, 상시직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표 2-5〉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No	직책	연차	담당업무	비고
1	센터장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총괄 - 중단기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예술인 상담 운영 관리 - 예술인 지원사업 기획운영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관련 사업개발 및 대외 협력 	예술인지원센터 총괄
2	사원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상담in 기획운영 - 계획수립,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상담 및 후속조치 - 특별 상담프로그램(법률, 심리 등) 운영 - 자문그룹(변호사, 노무사 등) 계약, 관계부처 협력 • 경기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추진 - 분야별 전문 교육/워크숍 운영(2019) -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운영(2020) • 예술인 네트워크 및 성과공유 워크숍 기획추진 - 2020 경기청년관 운영 •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예술인 상담 교육사업
3	사원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상담in 운영 -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상담 및 후속조치 - 특별 상담프로그램(법률, 심리 등) 운영 - 자문그룹(변호사, 노무사 등) 및 관계부처 협력 •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기획추진 - 순회교육/심화교육 아카데미 홍보 및 운영 - 유관 교육아카데미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경기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전문 교육/워크숍 운영(2019) 	예술인 상담 교육사업
4	사원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기획운영 - 공모심의, 교부정산, 사업관리 • 예술인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사업 기획운영 - 공모심의, 교부정산, 사업관리 • 예술인 지원정책 연구조사 기획추진 • 경기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운영(2020) • 지원센터 예산 관리, 결산보고서 및 결과자료집 제작 	예술인 지원
5	사원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운영 - 공모심의, 교부정산, 사업관리 • 예술인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사업 운영 - 공모심의, 교부정산, 사업관리 • 예술인 네트워크 및 성과공유 워크숍 운영 • 예술인 지원정책 연구조사 보조 • 센터행정업무(주간, 월간, 감사, 분기실적 업무 취합) 	예술인 지원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그림 2-26]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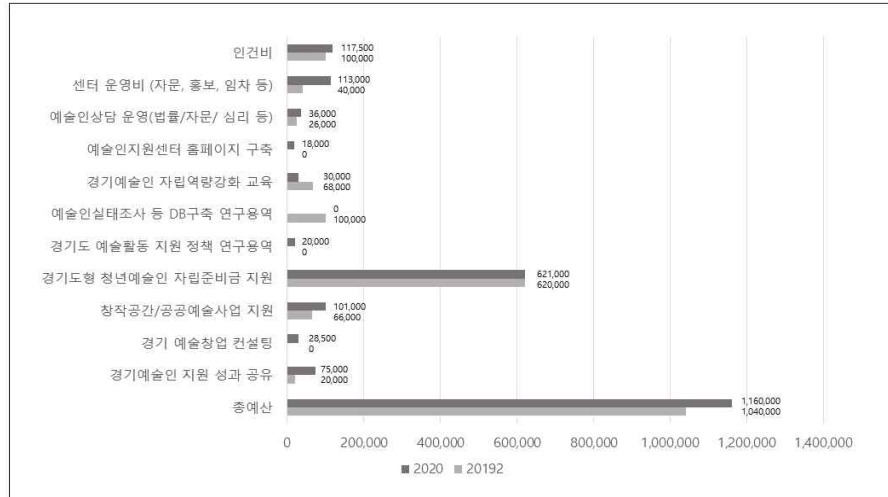
- 예산 : 2020년 사업예산은 약 11억 6천만 원임 (경기문화재단 전체 예산의 약 1%)

<표 2-6> 사업별 예산 추이

(단위:천원)

사업별 예산 내용	2019	2020	비고	
인건비	100,000	117,500		
센터 운영비 (자문, 홍보, 임차 등)	40,000	113,000		
예술인상담 운영(법률/자문/ 심리 등)	26,000	36,000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18,000	신규	
경기예술인 자립역량강화 교육 (아카데미/스타트업)	68,000	30,000	2019	2020
			아카데미 (1천5백만원)	*아카데미 온라인강의 스타트업 (각2천만원)
예술인실태조사 등 DB구축 연구용역	100,000	-		
경기도 예술활동 지원 정책 연구용역	-	20,000	신규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620,000	621,000	지원금(6억원)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66,000	101,000	2019	2020
			지원금 (6천만원)	지원금 (9천만원)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	28,500	신규	
경기예술인 지원 성과 공유	20,000	75,000	2019	2020
			2019포럼	경기청년관
합계	1,040,000	1,160,000	각 사업별 운영비 포함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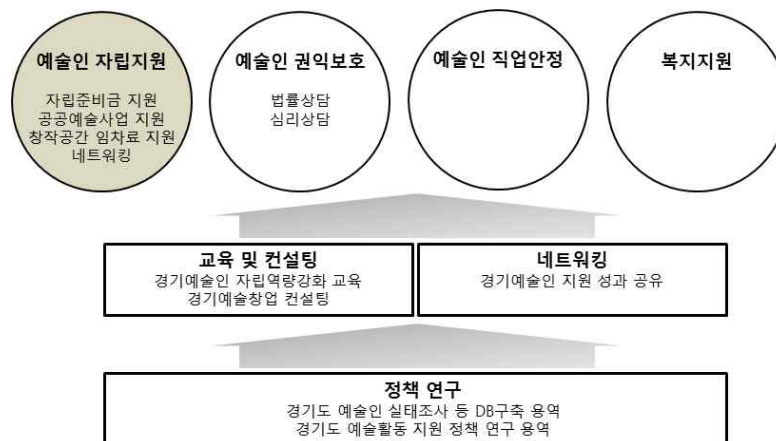


[그림 2-27] 사업별 예산 추이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나. 주요사업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예술인 권익보호사업,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교육사업, 네트워킹 사업 포함), 예술인지원 정책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2-28]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사업체계도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재구성

1) 예술인 권익보호사업

○ 경기예술인 상담in 운영

- 공정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불공정행위 및 예술인 고충 상담
- 예술인 상담체계 구축 및 상시 운영(전화, 온라인, 현장 등 상담시스템 구축 및 상시운영,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 및 상담원 전문화)
- 주요 실적⁶⁰⁾
 - 일반상담 : 463건(법률상담 14건, 심리상담 30건, 일반 348건 등)
 - 특별상담 : 현장 법률상담 운영(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생활법률 등), 예술활동증명 특별상담 23건,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표 2-7〉 경기예술인 상담in 실적

상담분야		접수경로		성별	
일반상담	348	방문	13	여성	271
예술활동증명	40	온라인	57	남성	192
불공정행위(법률)	14	이메일	5		
심리상담	30	전화	388		
코로나 피해	31				
합 계(건)	463		463		463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9.30.기준)

- 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별도 홈페이지 구축·운영
 - 예술인지원 온라인 채널 구축 및 온라인 상담 강화
- 예술인 특별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상담, 법률상담, 창업컨설팅 등 특별상담 프로그램 개발

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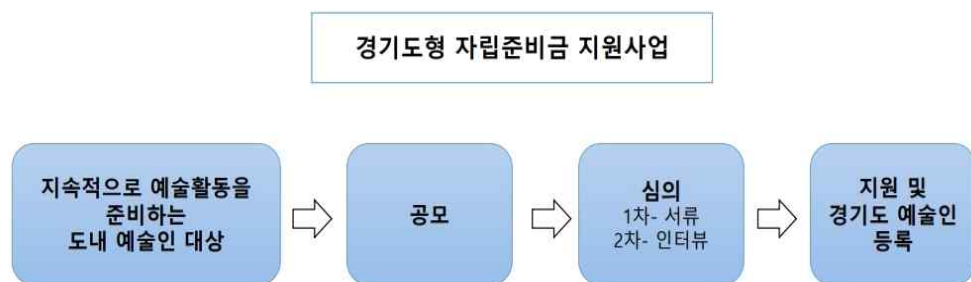
○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사업체 및 협동조합 결성 등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자립준비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과

60) 2020년 9월 30일 기준임.

예술분야 일자리 확대 추진

- 도내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예술활동 계획을 공모·심의(1차-서류/2차-인터뷰)를 통해 자립준비금을 정액 300만 원씩 연 200명 지원
- 자립준비금은 도내 예술인당 평생 1회만 지급되며 선정 예술인은 '경기도 예술인'으로 등록됨(道 예술인 등록·관리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그림 2-29]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체계도

출처: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재구성

- 주요 실적 : 지원 건수/621건, 선정 건수/200건

<표 2-8>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실적

구분	세부장르	지원건수	선정건수	지원액(천원)
합 계		621	200	600,000
① 문학	문학	10	5	※개인당 300만 원
② 무용	무용	24	9	
③ 시각예술	미술, 사진, 만화, 건축	173	55	
④ 연극	연극	132	41	
⑤ 음악	음악, 국악	234	72	
⑥ 영화/연예	영화, 연예	48	18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 예술인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 및 공공예술사업 지원
 - 도내 예술인의 창작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임차료(월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창작공간 임차료를 임차료의 최대 50%, 최고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공공예술사업지원은 공공예술사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도내 지역의 문화 활력 강화와 예술인의 자립 활동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예술인 사업체(전문예술법인·단체, 협동조합,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재생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 활성화 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함
-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주도 사업체의 제안 사업을 우대함
- 주요 실적
 - 창작공간 임차료 : 지원 건수/84건, 선정 건수/11건
 - 공공예술사업 : 지원 건수/188건, 선정 건수/5건

〈표 2-9〉 예술인 창작공간·공공예술 지원사업 실적

구분	지원건수	선정건수	지원액(천원)
합 계	272	16	90,000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84	11	28,000
공공예술사업 지원	188	5	62,000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 경기도 예술인 아트스타트업 및 창업컨설팅

- 도예술인의 아트스타트업 프로그램 워크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운영함
- 예술사업체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⁶¹⁾
 - 사업기간 : 2020년 6월~12월
 - 사업내용 : 도내 예술사업체 대상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운영
 - 주관단체 : 프로젝트 궁리(남은정 대표) / 지원금 : 25,000천 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

61)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9월~10월에 특별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함. 사업내용은 도내 예술사업체 대상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운영이며, 지원대상은 6개 예술인 조합(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사업' 선정자)임. 지원내용은 전문 경영 컨설팅 과정 지원 (노무/인사, 법률, 조직경영, 세무/회계 등)으로서 지원규모는 조합별 각 2회, 총 12회를 시행함. 참여조합은 놀이공동체 빈둥, 블루밍 협동조합, 어린이 날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아름별문화예술원, 한국인형극 협동조합, E. Renaissance 등임(경기문화재단, 2020).

- 지원내용 : 도내 예술사업체 혹은 예비예술창업자 대상 창업 컨설팅 무료 지원

〈표 2-10〉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운영체계

구분	컨설턴트	프로젝트 관리	재단
사전	- 공모 심사	- 컨설팅 사업 설계 - 컨설턴트 풀 구성	- 사업 기획 - 사업 공모 진행
컨설팅 과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참여 - 컨설턴트 지원 - 참여자 피드백 확인	- 행정 지원 - 컨설팅 참관
사후	- 결과공유회 참석 -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결과공유회 기획·진행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공유회 개최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 주요 실적

- 예술인 창업 아카데미 <아트UP> : 협동조합 설립, 창업방법 교육
- 아트스타트업-시각예술분야 (시각예술 전시-유통-관리 가이드, 4개 분야) : 미술시장, 전시기획, 작품보존, 아카이브 등
- 아트스타트업-공연예술분야(2개 분야) : 강의와 토론(공연예술 생태계의 이해), 예술가 캠프(공유와 확장) 등

〈표 2-11〉 예술인 아트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사업 실적

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
경기 예술인 창업 아카데미 <아트up>	협동조합 설립, 창업 교육 총 8회,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179명
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시각예술분야>	미술시장, 전시기획, 작품보존 교육 총 9회,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210명
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생태계의 이해, 작품제작 등 총6회, 경기 상상캠퍼스외 경기도내 일대	49명

출처: 경기문화재단(2019)

〈표 2-12〉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실적

접수 건수		선정 건수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14건	4건	각 팀 총 6회 컨설팅 지원
사업체	13건	2건	
합계	27건	6건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및 장려하고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지원체계 구축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함

- 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및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구성
 - 기본교육 : 저작권, 계약서, 세무, 사업기획서 작성 등
 - 심화교육 : 협동조합 설립, 창업교육 등
- 주요 실적(2019년)
 - 4개 강좌/ 27회 실시/ 438명 참여
- 주요 실적(2020년)
 - 사업기간 : 2020년 9월 ~ 12월
 - 지원내용 : 기본과정(저작권, 계약서, 성폭력 예방)⁶²⁾과 심화과정(협동조합 설립, 창업 교육)⁶³⁾으로 구성
 - 추진방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 제작 및 타기관 플랫폼 활용(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 체결 후 온라인 강의 추진)

〈표 2-13〉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분류	교육주제		주요내용(강의시간/분)	강의시간
기본교육	계약 및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계약서 불공정 사항 확인 방법, 저작권 계약 원칙, 예술인 권익 보호 관련 제도 등	90분
	세무 및 회계, 지원금 정산 기초		정산, 회계 및 세무처리, 이나라도움	90분
심화교육	1주	예술 생태계와 예술 지원제도의 이해	예술계 진입 방법, 지원제도 활용 방법	60분
		예술과 비즈니스의 발견	사회적 문제 인식과 예술을 통한 해결 방법제시	120분
	2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의미와 종류	90분
			사회적기업 인증성제도 활용방법	90분
	3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실제	90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 지원	90분
4주	사례연구 및 사업계획 발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기업 사례발표	60분	
		사업계획 발표 및 피드백	120분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6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수강 안내함. 자립준비금, 창작공간, 공공예술사업 선정자(216명) 의무 이수(10월 27일 현재 이수율-42%).

63) 심화과정은 과정 I과 과정II로 구분되며 각 5강씩 총 10개 강좌로 구성됨. 과정 I은 예술 창업의 이해와 창업 프로세스 실무, 문화예술 스타트업, 기업설립 / 인증 / 제도,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사업의 이해, 예술창업 성공사례 등임. 과정 II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와 예술의 대응 전략, 비대면 문화예술사회에서의 자립, 예술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소셜미디어 기반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온라인 강좌로 구성됨.

○ 경기 예술인 지원성과 공유

-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선정 예술인의 분야별 성과발표 자리마련을 통해 예술인 교류 및 네트워크의 계기를 마련함
- 대상 : 자립준비금 및 자립활동 지원 선정 예술인 및 예술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주요 성과
 - 경기도 예술인포럼 실시('19년도 자립지원 선정자 사례 공유 및 예술인 지원정책 토론회 및 발표)
 - '2020 경기청년관 : 지금 여기'를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아트센터, 경기청년관TV(유튜브), ggcn.kr 등을 통해 시행함(2020년 10월 28일~11월 2일)
 - '경기청년관'은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예술인 주도형 예술축제 로 60여명의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함
 - 공연, 다원예술, 전시, 라운드테이블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예술인의 현재, 존재방식, 예술인으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논의함

〈표 2-14〉 '2020 경기청년관 : 지금 여기' 프로그램 구성

구분	제목/내용	온라인/오프라인	장소
공연	경기청년관 PICKUP공연 : 휩쓸고 지나간 때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예술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창작스토리극	오프라인/온라인생중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경기청년관TV(유튜브) 10.31.(토)
	G-스테이지 : 청년예술인과 만나다. 경기도 청년 버스커들의 공연과 토크가 함께 하는 예술토크콘서트	온라인	
다원 예술	[] : 공유 협업, 융합을 주제로 한 교육, 워크샵, 마술쇼, 뮤지컬 등의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경기청년관TV(유튜브) 10.28.(수)-11.2.(월)
라운드 테이블	지금여기 공론장 '청년예술인 자립'을 주제로 현장 예술인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청년예술인세대의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기	온라인	
전시	접속유지 전시장 내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를 통해 작가별 정보, 작품들을 열람하는 웹기반 디지털 전시	오프라인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10.30.(금)-31.(토)
GGCN	GGCN.KR 경기도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지역, 활동분야, 작품, 포트폴리오 등을 예술인 스스로 등록하는 온라인 지도 및 아카이브	온라인	ggcn.kr

출처: 경기문화재단(2020)

3) 경기도 예술활동 지원정책연구

- 공간(인프라)-재정-네트워크(인적자원) 연계 지원 조사를 추진
- 2019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단체 간담회 시 제안된 예술인 창작공간 및 재정, 네트워크(인적자원) 등 연계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 주요 실적
 - 2019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단체 간담회 시 제안된 예술인 창작공간 및 재정, 네트워크(인적자원) 등 연계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진행
 - 경기도예술인 DB 구축 및 기초현황 실태조사(2,000명)
 - 활동 분야 및 내용,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현황, 활동 공간 및 교류 현황, 고용 및 복지 현황 등
 - 경기도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2-15〉 경기도예술인 DB 구축 및 기초현황조사(실태조사) 실적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9.5월~11월
사업예산	88,220,000원
조사대상	11개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에서 활동하는 경기도 예술인 2,000명
조사방식	설문조사(온라인 오프라인)
조사내용	활동 분야 및 내용,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현황, 활동 공간 및 교류 현황, 고용 및 복지 현황 등

출처: 경기문화재단(2019)

3. 분석 및 시사점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센터와 차별화되고 보다 폭넓게 경기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자립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함
 - 청년페스타, 아트스타트업, 창업컨설팅, 창작공간지원 등의 자립지원을 특화해 나가야 함
- 경기문화재단이 2016년부터 진행했던 창생공간사업(2016-2018)과 거점공간사업(2019) 등이 프로덕션이라는 목표 아래 사업을 진행해 왔으

- 나 결과적으로 볼 때 생산된 창작물 또는 아트상품을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예술향유에 그친 부분도 있음
- 창생공간사업의 사업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술인조합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조합/공간운영의 지원시스템과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대한 액셀러레이팅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 생산/프로덕션에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고,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콘텐츠와 창작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되어야 함
- 예술로(路)사업의 경우, 6개월간 어렵게 형성된 예술인들의 팀워크가 사업종료와 함께 해산 또는 소멸됨
- 예술적 개입을 경험한 예술인, 즉 팀 단위의 예술인들에게 상위레벨의 프로젝트 설계와 조직을 결성토록 지원하고, 협업이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해주는 지원 사업이 필요함
 - 예술로(路)사업의 유경험자, 유경험팀+유경험팀을 위한 조합육성방안도 필요함(일반적으로 예술로(路)사업참여팀의 인원구성은 팀당 3-5명 안팎으로 구성)
- 지역지원센터 사업 중 빈집활용사업(반딧불 창작공간)은 유일한 도시재생과 연관된 차별된 사업임
-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조합육성 및 예술인사업체 구성을 좁은 시각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 소재의 135개의 전통시장(수원에만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음) 재생사업에 예술적 개입, 예술창업 분야를 연결시켜 협업사업으로 이어가는 방향도 고려할 부분임
- ‘문화시장’ 콘셉트의 수원 남문로데오시장의 사례도 참고해볼 만함
-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1명의 문인이 상주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창작 공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접목시켜 예술 공공기관에 예술인 및 예술조합을 협업/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2017년-33개소/ 2018년-35개소/ 2019년-31개소 도서관 참여

〈표 2-16〉 2020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개요

<p>상주작가 채용자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5년 이상)으로, * 기존 도서관 상주작가 재참여 가능(서울 제외) ·개인作品集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유사사업 참여자 및 2020년 문예진흥기금(개인) 수혜자 제외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 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파견 사업」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p>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유형 : ①사전 매칭형, ②사후 채용형 -①사전 매칭형 : 상주작가(1인)를 사전 매칭하여 신청 접수 <사전 공개채용> ·사업기간 : 2020.5월~12월(8개월) / *사전 매칭형 : 2020.4월~12월(9개월) 가능
<p>지원내용 및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프로그램 운영비 ※ 예시) 사업비(8개월) : 인건비(200만원×8개월) + 4대보험료(24.5만원×8개월) + 운영비(300만원) = 2,096만원 -상주작가 인건비: 200만원/월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 : 24.5만원/월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사업공고, 재구성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제1절 분야별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3. 한국예술복지재단
4.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5.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1.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조사 개요 및 방법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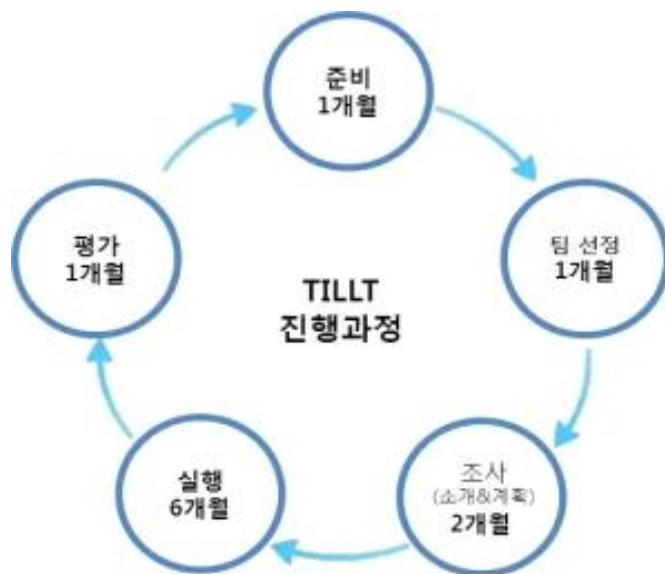
제1절 분야별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가.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1) 스웨덴- 틸트(TILLT) 아이리스(AIRIS) 프로젝트

- 틸트(TILLT)는 1973년 스웨덴 문화위원회가 위탁한 비영리 민간조직임
- 비영리 민간기업인 Skadebanan Vastra Gotaland에 소속되어 예술가를 기업이나 조직에 파견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직업영역이 창출되도록 예술적 개입을 시도함
 - 조직은 10명의 정규직원과 3명의 파트타임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대부분이 예술과 기업 분야의 전문 연구와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배우, 화가, 무용가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초기 준비기간 1개월을 포함하여 총 11개월 동안 기업의 조직으로 파견되어 진행



[그림 3-1] 틸트(TILLT)의 '아이리스(AIRIS) 프로그램' 진행과정

출처: 양혜원(2016)

나. 예술인 권익보호

1) 캐나다-예술인 지위법(The status of the Artists)⁶⁴⁾

- 1992년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됨
 - 현대국가 최초로 예술가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법률로 확인하고 예술가와 제작자 간 전문적인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평가받음
 - ‘예술가와 제작자 간의 전문적인 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소 (CAPPRT : Canadian Artists and Producers professional Relations Tribunal) 설립이 명문화되면서 1995년 법안 효력을 가지게 됨
- 연방정부법령으로 자영업자 형태의 예술인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창작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경제적,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표 3-1〉 예술인 지위법(The status of the Artists) 주요 조항

예술인 지위법	
제2조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예술인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 • 캐나다의 예술적 문화적 생활을 발전·향상시키고, 그 결과 캐나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예술인이 담당한 주요 역할에 걸맞는 지위를 예술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캐나다 사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 예술인이 역할, 특히 캐나다인의 생활양식의 다양성과 캐나다인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열망을 표현하는 역할. • 예술적인 창조성 캐나다의 역동적인 문화산업의 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라는 것 • 작품의 공공대여를 포함하여 자신의 작품 사용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예술인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제3조 (정책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술인 및 제작자의 권리 • 예술가를 대표하는 단체는 법으로 인정받고, 그 구성원의 직업적 사회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결사체의 권리 • 예술인이 자신의 지위 및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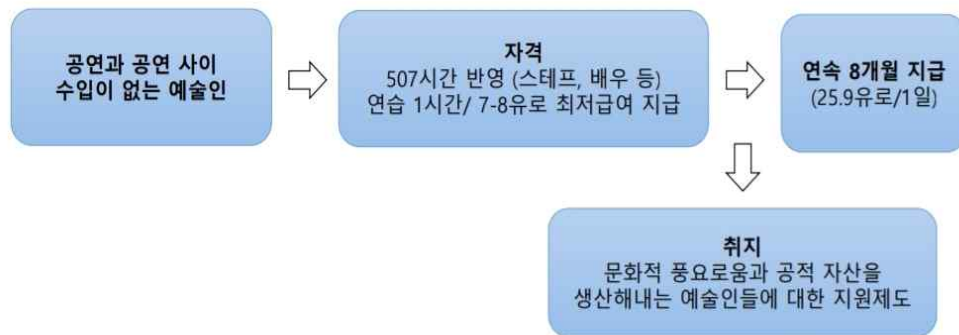
출처: <https://laws-lois.justice.gc.ca> 홈페이지

64) 나은(2012).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p.66.

다. 예술인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1) 프랑스-앙떼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⁶⁵⁾

- 1936년 영화 분야의 기술직들을 위해 도입된 이후 1969년 확대 시행되어 공연예술가와 공연예술분야 기술직이 포함됨
 -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속성을 가진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인들에게 공연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 : 배우, 연주자, 가수, 연출자, 영화감독, 기획자, 편집인, 음향조명 기술자, 무대제작자, 소품기획자, 미용사, 분장사 등 모든 공연, 영화, 방송 관련 종사자 등
- 실업급여로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프랑스 실업보험 체계 속에 포함되지만 공연분야의 노동 특성을 반영하며, 보험가입, 수급조건 등에서 일반 원칙보다 완화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림 3-2] 앙떼르미땅 개요

- 세부 내용
 - 304일 동안 최소한 507시간 이상 기간을 정한 고용 계약을 통해 근로를 하고 실업보험에 가입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실업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365일 동안 607시간이 가입되어있어야 함⁶⁶⁾

65) '앙떼르미땅'은 불규칙적, 단속적이라는 뜻으로, 비정규직을 의미함.

6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19일 동안 507시간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재가입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365일 동안 579시간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민법상의 용역 계약을 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예술인의 활동을 노동 계약으로 추정하고 실업보험에 적용시키고 있음⁶⁷⁾

2) 네델란드 WWIK⁶⁸⁾

- Dutch Artists' Work and Income Scheme Act(WWIK, Wet werk en incomen kunstenaars)의 약자로 예술인의 최저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네델란드의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임
- 직업예술인으로서 경력을 막 시작한 젊은 예술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대 4년(48개월) 동안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예술을 전공했거나 이미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득이 연간 1,200 유로 이하이며, 재산이 많지 않은 예술가
 -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등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만 증명되면 신청 가능
- 최저임금의 약 7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예술가의 개인적인 경제 수준이나 가족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결정함
 - 예를 들어 미혼 아티스트의 경우 매월 약 1,087.61 유로(약 140만원)을 지급함

〈표 3-2〉 네델란드의 연령별 최저임금 기준

(2019.11.5 기준, 단위: 유로)

나이	월 급여	주 급여	일 급여
22세 이상	1,615.80	372.90	74.58
21세	1,373.45	316.95	63.39
20세	1,131.05	261.05	52.21
19세	888.70	205.105	41.02
18세	767.50	177.15	35.43
17세	638.25	147.30	29.46
16세	557.45	128.65	25.73
15세	484.75	111.85	22.37

출처: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홈페이지

- 2012년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폐지됨

67) 고희영(2020), 예술인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연구, 제주대학교 행정학 박사논문, pp.84.

68) 김선영(2018), 예술인 최저 임금 관련 네델란드 사례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다른 전공/직종의 구직자들도 구직 활동을 위해 1년 정도를 수입이 없이 지내는 반면 예술인최저생활보장의 경우 예술학교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줌으로써 예술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제도 종료 후에도 입증된 직업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낮은 예술가라면 정부의 사회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3) 독일-예술인 사회보험제도(Kunstler sozial versicherung: KSV)

- “문화예술 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예술인 및 언론출판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
 -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인들이 가입 대상
 - 자영 형태의 예술과 출판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2007년 기준 3,900유로 이상), 해당 예술활동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업활동이어야 하며,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음
 - 이들 외에 임금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예술인들은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킴
- 신진예술인들의 경우 예술계 입문 후 3년 동안은 예술 활동을 통한 연간 총소득 규모가 3,900유로에 못 미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은 사회부조체계, 사회부양체계, 사회보험체계 등 3분류 체계로 되어 있음⁶⁹⁾
 - 임금과 보험료 지향요소, 임금보전, 사회적 평등 및 자율 경영 등을 특징으로 함
 - 질병, 나이, 사고, 간병, 실업, 재해 등의 지원이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직군마다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이들 단체가 고유한 직역별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형태임
 - 수공업자, 농림업종사자, 자영예술인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사회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직군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특수직역의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왔음
 - 예술인의 경우 「자영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69) 이규석(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의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보호를 받게 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원칙에 따라 결정됨

- 예술인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공적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보장하며, 지급하는 연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
 - 자영 예술인들은 예술인사회보험에 신고하는 소득이 일반 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해 납부하는 보험료의 수준이 낮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리스트어 연금(Riester-Forderung)제도’를 도입함
- 리스트어 연금은 노후대책보험으로 연금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보험으로, 기본수당과 자녀수당이 있으며 모두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주어짐⁷⁰⁾
 - 저소득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 예술가와 출판 언론인은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
 - 리스트어 연금 외에도 ‘뤼룹(Rurup) 연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충분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음
- 뤼룹 연금은 2005년 1월 1일 「노인소득법」에 의거 실시됨
 - 자영예술가와 출판 언론인들에게 리스트어 연금과 더불어 국가에서 장려하는 노후보장연금을 들도록 권장하고 있음
 - 이 연금은 자영 예술가와 출판 언론인들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각각의 소득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액수를 정할 수 있음

4) 프랑스-예술가의 집(La Maison des Artistes, MDA)⁷¹⁾

- 2차 세계대전 직후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조합으로 출발해 1965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예술가 사회복지 전담조직으로 인정받음
- 매달 30유로 이하의 회비를 내고 의료, 출산, 육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소득의 18%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연금도 받을 수

70) 박조원 외(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1) 이범헌(2020),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도서출판 밭.

있음

- 회원은 프랑스 내 모든 박물관, 미술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미술도구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음
- 또한, 저작권이나 세금 관련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음

5) 벨기에-실업급여

- 벨기에의 실업급여는 1년 기준 약 6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수급 기준과 진입장벽이 높음
 - 예술가가 작품을 하고 받은 임금을 예술가 기본 일일 수입으로 나누어 일일 계산을 하는 특수한 작업 일수 계산법을 도입하여 진행함
 - 한 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획득 이후에는 67세까지 실업이 발생할 때마다 수급이 가능함
 - 3년차에 들어서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동거인의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 등 가족상황이 고려된 일정액을 일괄 받게 되는 특징이 있음

〈표 3-3〉 벨기에 예술가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사회보장제도

예술가비자	예술가카드	자영업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위원회에서 심사 및 발급 • 임금노동자로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필수적 • 본인이 작업한 예술활동이나 계약서 등을 제출 후 예술위원회에서 판별 • 예술가와 테크니션들에게 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위원회에서 발급 •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거나, 아마추어예술가를 위한 카드 • 예술작업의 댓가로 1일, 연간 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정해져 있음. • 사회보장 제도 분담금을 내거나 예술활동 수입 신고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위원회에 자영업자 신고 요청. • 급여가 아닌 주문에 의한 작업을 하는 작가의 경우 취득 가능
의료, 연금, 실업급여에 대한 보장 가능	실업급여, 연금 수급 불가	실제 자영업자 신고를 하는 숫자는 미미함

출처: 이한희(2018)

라. 예술인 자립 지원

1) 미국 (시카고)

- 8만 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시카고는 도시의 문화·경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2012 Chicago Cultural Plan’에서 예술가의 유인 및 유지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
- 스위칭 스테이션 아티스트 로프트(Switching Station Artist Lofts)⁷²⁾
 - 시카고시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비영리 예술 부문 개발업체인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Artspace Projects, Inc)와 협력하여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발함
 - 연간 해당 지역 소득이 평균 80% 미만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함
- 시카고 예술가 자원(Chicago Artist Resource: CAR)⁷³⁾
 - 예술가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와 자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Chicago Artist Resource, CAR’ 웹사이트를 구축
 - “예술가에 의해, 그리고 예술가를 위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예술커뮤니티를 형성하였으며, 현재 시카고 아티스트 연합(Chicago Artist Coalition, CAC)의 일부에 결속됨

2)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⁷⁴⁾

- 영국의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에서부터 의료와 농업,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영역 내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가 영국 협동조합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
 - 현재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영국협동조합운동을 위해 국내외로 협동조합 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780개의 회원조직과 3,500개의 회원조직에 소속된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9년 150주년을 맞은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현재 협동조합 선구자의 이름을 딴 홀리요크(Holyoake)하우스⁷⁵⁾에 위치함
 - 2000년 전까지의 명칭은 협동조합연맹(The Co-operatives Union Limited, 1870년 설립)이었으나 노동자협동조합연합과의 합병으로

72) 서울문화재단(2016), 「제8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73) 시카고 예술가 자원 웹사이트: www.chicagoartistresource.org

74) 김선영(2020), 영국 예술인조합 사례 연구, 경기문화재단.

75)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George Jacob Holyoake)는 19세기 영국의 협동조합 사상가이다.

- 회원 범위가 확대되어 좀 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이름으로 변경됨
-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은 영국 사회 전반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협동조합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연합회의 정책 기조는 서로 협동(Unite)하고 서로 발전(Develop)하고 협동조합을 촉진(Promote)하는 세 가지 원칙에 있음
 - 연합회의 이사회는 회원협동조합의 규모를 반영하여 구성된 총 19명의 선출직으로 이루어짐
 - 이사회는 코옵그룹(Co-op Group)이 가장 큰 협동조합으로 6석, 소비자부문(주택, 소상공인 등) 7석, 노동자협동조합 2석, 농업협동조합 1석, 그 외 3명의 이사로 구성됨
 - 연합회의 수입은 300만 파운드이나 수입의 반인 130만 파운드는 회비에서 충당함
 - 그 외 수입은 정부 지원금과 외부기금 및 컨설팅/교육비용, 기타 수익사업으로 운영함
 - 회비는 회원협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적은 비용인 100파운드부터 가장 큰 협동조합인 코옵 그룹은 회비의 반인 70만 파운드를 부담함
 -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의 프로그램은 주로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회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교육프로그램, 마케팅, 리더, 의사결정 등 연중 78개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함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하이브(The HIVE), 협동조합 포트나잇(Co-operatives Fortnight) 등을 들 수 있음
 - 하이브(The HIVE)는 협동조합 창업, 훈련 코스와 멘토링 그리고 학습 자료를 지원하거나 1대 1 자문 프로그램임
 - 코퍼라티브뱅크(Co-operative Bank)를 포함한 외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연합회에서 실행하는 멘토링, 훈련 코스, 1대1 자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이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0여개의 조직들이 전문가 지원 및 훈련을 받음
 - 협동조합 포트나잇(Co-operatives Fortnight)은 협동조합을 지역 내에

서 알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매년 6월 말 2주간 진행되는 협동조합 공공 캠페인임

- 2010년부터 영국 내 모든 협동조합이 모여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2주간 진행됨
- 참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청소년 프로그램, 마을 및 해변 청소, 영상제작, SNS홍보, 봉사활동 등 지역에 맞는 협동의 실천을 자유롭게 진행함

2. 국내 사례 분석

가.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중인 사업(2015년까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담당함)
- 직업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 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예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
- 예술가를 비예술 영역인 기업·기관에 파견하여 파견지의 이슈를 예술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개입을 통해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함

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취업지원교육 사업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무용수들의 예술활동, 은퇴무용수의 전직 및 복지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
- 무용수의 경우 타 장르에 비해 예술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 주요 프로그램 : 상해 및 재활을 돕는 진료비, 재활치료비 지원, 직업개발을 위한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전직, 창업을 위한 전문가초청 교육 아카데미, 교육 후 다양한 지원 혜택 등

나. 예술인 권익보호

1) 예술인 신문고 사업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중
-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
 -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구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무료법률자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에게 상담, 신고, 피해구제 등의 지원을 함

2) 예술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사업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중
-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중
- 예술 창작 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해소 및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함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인에게 육아부담으로 인한 예술 활동 중단을 도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4개월 유아부터 10세 아동까지 이용이 가능함

다. 예술인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1)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

- 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중인 사업
- 사업예산 : 46,080백만 원(생활안전망 구축사업 내 직접지원 사업으로

지급대상이 2019년 5,000명에서 2020년 12,000명으로 대폭 확대)

-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2)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⁷⁶⁾

- 인천문화재단에서 시행중인 사업
- 사업예산 : 800,000,000원(당초 예산 5억 원, 코로나 19로 인해 3억 원 추가)
- 사업내용 : 인천 예술인의 창작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공모 지원, 인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역량강화와 창작준비를 위한 다년지원(2년), 인천 원로예술인(단체) 지원
- 추진실적 : 공모(5월) 212건 접수, 1차년도 51건 지원, 2차년도 12건 지원

3)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복지재단이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온라인가입 시스템을 지원
- 사업예산 : 51,587백만 원(생활안전망 구축사업 내 사회보험 가입지원 사업)
- 예술인 산재보험료는 등급별로 50%를 지원하며, 신규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12개의 등급 중 가입자가 원하는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2019년 1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실적을 살펴보면, 총 1,560여 건의 가입실적이 있음
 - 1등급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주요혜택은 일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와 동일⁷⁷⁾

라. 예술인 자립지원

76) 손동혁(2020), 인천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사례, 2020 온라인 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77) 산재보험 주요 혜택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있다.

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중
- 사업예산 : 3,326백만 원(2020년도 예산, 단년도 계속사업)
- 문화예술분야 사회성과 측정 및 활용,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과정 전반 지원(company building),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초기기업 지원(Incubating),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성장성숙기 기업 지원(Accelerating)
 -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 유통채널 다각화 및 투자환경 조성으로 예술의 산업화 지원
 - 시장성 있는 예술분야에 대한 사업개발·마케팅 등 경영 역량 강화와 투자환경 조성으로 창작 보조금 일변도에서 투융자, 전문인력 양성, 수익 다각화 등 지원
 - 단계별·체계적 직무교육, 현장 실습 기회 제공 등으로 예술 생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 종사자·창업 기업가 집중 양성

2) 예술경영아카데미

- 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예산 : 490백만 원(2020년도, 단년도 계속사업)
- 2006년부터 시행된 문화예술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2016년 예술경영아카데미로 사업운영
 - 2017년부터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운영
- 예술 현장 종사자의 각 업무 영역별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예술현장 종사자의 업무 영역별 전문성 강화 기여
 - 교육 내용의 현업 적용 강화로 교육 후 수강생의 우수 사례 도출 가능성 상승

3) 작가미술장터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시행

- 사업예산 : 846백만 원(2020년도, 단년도 계속사업)
-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시각예술작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계약과 작품유통의 수익구조 개선 및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전업 신진작가 및 미술시장 진입이 어려운 작가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 제공 및 미술시장 진출 활성화
 -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유도

4) 예술인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총 14,54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이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311(9.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음⁷⁸⁾
 - 문화예술분야의 법인화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보다 설립이 용이함
 - 설립 절차의 간소화와 예술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민간·예술인 사회적기업 간 다각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의 기회가 마련
- 파주아트병커
 - 파주출판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현대미술작가로 시작된 문화예술협동조합으로 최근 파주시 전역의 작가 협의체로 확산 중
 - 출판단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연구와 교육, 전시 및 행사, 출판,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협업을 통한 창의 문화향상과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78) 고희영(2020), 전게서.

5) 인천 작가 미술작품 구입⁷⁹⁾⁸⁰⁾

- 인천문화재단
- 사업예산 : 710,000,000원(당초 예산 1억 6천만원, 코로나 19로 인해 5억 5천만원 추가)
- 사업내용 : 인천 미술작가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미술품 구입, 신규 소장품 구입, 기획전시 및 아카이브 구축, 소장품 구입 공모 I(기존 공모제), 소장품 구입 공모II(소품 다량 구매), 수장고 조성 등
- 추진실적 : 1차 공모(7월) : 65건 지원, 2차 공모 진행 예정

6)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⁸¹⁾

- 인천문화재단
- 사업예산 : 300,000,000원
- 사업내용 : 인천 예술인(단체)의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내 예술 창작활동 공간(작업실, 연습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예술인(단체)
 - 지원규모 : 1개소 당 1년(12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지원(1개소 당 최대 지원금 한도 4,800,000원)
- 추진실적 : 1차 공모(6월)/95건 접수, 79건 지원, 2차 공모(8월)/36건 접수, 29건 지원

7)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⁸²⁾

- 인천문화재단
- 사업예산 : 300,000,000원
- 사업내용 :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진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등 사업비의 40% 펀딩 달성시, 60% 지원

79) 손동혁(2020), 인천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사례, 2020 온라인 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80) 경기문화재단도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액 다건 방식의 작품구입 공모를 추진중임(구입금액: 449,290,000원)(경기문화재단, 2020).
 81) 손동혁(2020), 전게서.
 82) 손동혁(2020), 전게서.

- 추진실적 : 1차 공모(5월)/54건 접수, 23건 선정, 2차 공모(8월)/28건 접수, 14건 선정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개요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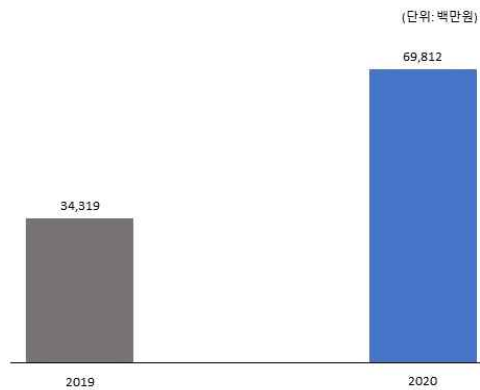
- 예술인의 사회보장, 직업안정,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임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에 목적이 있음
- 조직은 이사회-상임이사-운영본부, 예술인고용보험TF로 구성됨
 - 운영본부는 지원사업부와 사회보장부 등 2개 부로 이루어 짐
 - 지원사업부는 6개의 팀(정책기획팀, 경영지원팀, 융자사업팀, 예술인지원팀,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 확산팀)으로 구성
 - 사회보장부는 2개의 팀(권리보장팀, 사회보험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지원 사업예산은 2019년 343억 1천 9백만 원에서 2020년 698억 1천 2백만 원으로 증가함



[그림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예산 증가 추이

2) 주요 사업

- 예술인 사회보장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예술인복지법 제10조)

<표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

-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예술인 권익보호’, ‘예술인 생활안정’, ‘예술인 자립지원’ 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사업 등
 -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 예술인신문고,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 등
 -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패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주택자금(용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국민보험, 고용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등
- 직접적인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 예술 장르별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한 예술분야로는 문학 /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로 분류됨
- 신청 가능한 예술 활동 유형은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으로 나눌 수 있음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창작디딤돌
 -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현업 예술인
 - 2020년도 창작디딤돌 사업예산은 46,080(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12,000명으로 1인/3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이 지급됨
- 예술인 과건지원-예술로(로)
 -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2014년부터 사업을 진행함
 - 지원금의 직접지급방식으로 참여예술인에게 6개월 간 매월 1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함
 - 창작준비금지원사업(디딤돌)과 더불어 창작지원금, 활동비를 월급여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산의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월별활동보고서 제출방식을 채택하여 행정적 간소화를 시도하였음

3) 추진 성과

- 예술인과건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00명의 예술인들이 사업 참여를 하였으며, 연평균 200개 이상의 기업/기관들이 참여하여 예술인들과 협업하였음
 - 2019 예술로(路)사업은 총 1,001명의 예술인 및 207개 기업·기관이 참여함
 - 2020 예술로(路)사업은 기존(공모/협업)사업과 함께 기획 사업이 신설 확대되었고, 2020년도 예술로 사업예산은 8,065(백만원)임
 - 월별 활동보고서의 활동시간 허위작성/간소화 작업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다수 발생함

〈표 3-5〉 2019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현황

구분	공모사업	협업사업	기획사업	합계
퍼실리테이터 (리더예술인)	124명	48명	36명	208명
참여예술인	536명	118명	139명	793명
기업·기관·마을	124명	47명	36명	207명

출처: 예술인복지재단 2019예술인파견지원사업 사례집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인 창작디딤돌은 사업초기 2013년 300명의 지원금 지급으로 시작해 2020년 12,000명으로 확대되어 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성장함
 - 특히 2020년의 경우, 2019년 5,500명의 지원금 지급에서 12,000명으로 2배 이상 지원 인원이 증가함

〈표 3-6〉 예술인복지재단 시행사업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창작안전망 구축사업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 불공정관행 개선 	29,876	51,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사업 • 예술인의료비지원 	145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소액 생활안정자금대출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대출 •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확대, • 전·월세 주택자금 상한액 증액 • 코로나19 피해자 특별지원(신규) • 계약대금 체불 생계자금 출시 	4,298	18,0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4) 시사점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예술인 생활안정’, ‘예술인 권익보호’,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등으로 대부분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등 복지 차원의 소극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예술인들을 파악하

- 고 각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예술인과견지원사업이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경우,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설계가 요구됨
 - 특히 예술인과견지원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에 과전되는 형식으로 예술인 입장에서는 직업역량을 강화한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
 - 2014년 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역량강화사업으로 시작된 예술인과견지원사업이 초반 사업방향인 과정중심과 직업역량강화에서 예술적 개입을 통한 변화와 결과중심의 프로젝트로 변화함
 - 6년간의 사업을 살펴볼 때 과전예술인이 과전기업·기관에서 직업인으로 잔류 또는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지속성 있는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역량강화의 차별된 사업이라기보다 협업 활동을 통한 중·단기 창작활동지원금 지급이라는 방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지원의 첫 단추가 되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 역시 개선이 필요하며, 장르별로 더욱 세밀한 증명수단이 필요하며 지역 단위의 세밀한 조사 및 파악이 요구됨
 - 특히 신진예술인과 공연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보조 스태프 등의 예술인들은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 한편 활동증명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예술시장이 작고 이에 따라 비좁은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예술인 증명에서 누락되는 예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시장의 적극적 개발과 확대야말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첩경일 수 있음
 - 사업 비교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창작역량 강화, 직업역량 강화, 권익 보호(불공정 관행 개선),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예술활동증명,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창작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생활기반 조성과 가까움. 따라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권익 보호, 직업역량 강화 등 세 분야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은 권익보호(예술인 상담소), 직업역량 강화(아카데미) 측면에서 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경우,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이 없는 대신에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자립지원금, 창작공간 지원, 아트스타트업, 창업컨설팅)을 전개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을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11>과 같음

<표 3-7> 기관 사업영역별 구분

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직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준비금 디딤돌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반디돌봄센터/예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및 저작권 교육 • 예술인 성평등 교육 • 예비예술인 대상 특강 지원 • 예술인 신문고 • 예술인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예술인 상담소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 예술인 의료비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실태조사 등 DB구축
자립지원	현재 자립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사업은 없음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지원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청년페스타

○ 운영 및 조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시기는 2012년 11월임
-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은 69,812(백만 원)이며,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예산은 1,160,000(천원)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을 예산 및 조직 구성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12>와 같음

<표 3-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및 조직 구성

〈표 3-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및 조직 구성

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설립 시기	2012년	2019년
예산(2020)	69,812(백만 원)	1,160(백만 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예하 공공기관(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예하 문예진흥팀 소속
조직구성	지원사업부(6개팀),사회보장부(2개 팀)- 상시직원 63명	센터장 1명, 상시직원 4명
지원대상 지역범위	전국	경기도

출처: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고, 재구성

4. 광역 예술인지원센터

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2017년 3월, 지자체로는 최초로 예술인지원센터를 개소함
-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진흥본부 산하 예술지원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음
-



[그림 3-5] 부산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예술지원 팀장 1명 이하 13명의 팀원으로 구성됨
- 주요 사업
 - 예술인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휴(休)안심 프로그램, 반딧불이 창작공간사업, 예술인 일자리

- 박람회 개최,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예방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예술인 의료서비스 지원 등 8개의 사업을 진행 중임
- 예술인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 예술인 활동증명신청 대행, 예술인 법률상담, 창작준비지원금 지원 대행,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예술인 일자리 파견 사업, 빈집활용 창작공간사업, 법률상담 등을 진행함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
 -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직무영역 개발을 통해 예술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과 예술인의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과 달리 퍼실리테이터의 직무역할 없이 참여예술인은 참여기관·기업과 직접소통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2명 정도의 소수파견매칭으로 지역예술인과 지역 기업의 밀착형 사업을 진행함

2) 경남예술인복지센터

- 2019년 8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 창원 소재)의 문화예술본부 소속으로 출범하였음
- 권역별로 2개소의 센터(창원, 서부)를 운영함



[그림 3-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직도

출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 상시근무 인원은 센터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됨
-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지원 사업,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모사업 유치, 경남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발급 대행 등이 있음

3) 대구예술인지원센터

- 2020년 2월, 대구문화재단 내에 설치됨
- 예술지원 팀장 1명 이하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됨



[그림 3-7]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추진 관계도

출처: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인 네트워킹구축사업, 예술인 역량강화사업,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 대행지원 사업 등이 있음
 - 예술인 역량강화사업-아트업(業) : 지역예술인의 예술 외적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창작활동과 사회진출 기회창출. 기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주요 성과
 - 센터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 신청대행을 진행한 결과 2020년 6월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2,220명으로 센터개소 당시(2020년 2월) 1636명보다 약 36% 증가함

4) 전남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

- 2020년 3월, 전라남도문화재단 산하에 ‘전남 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를 개소함
- 문화사업팀 내부플랫폼으로 담당 인원은 9명이고, 예산은 200,000(천원)임.
- 주요사업으로 창작예술 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사업 홍보확대, 예술인 법률 행정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서비스, 예술인 일자리 연계 기업수요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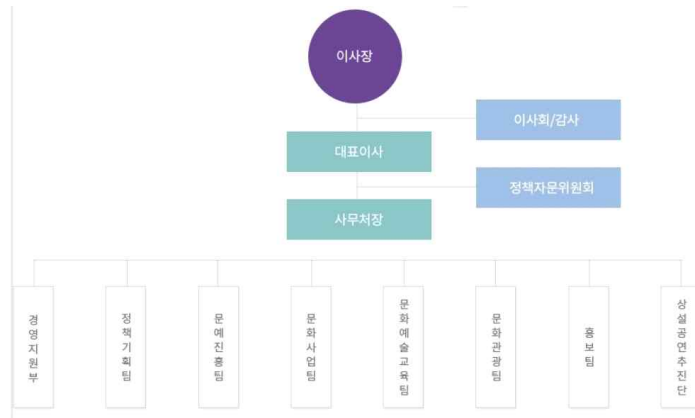
[그림 3-8] 전라남도문화재단 조직도

출처: 전라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

5)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 지역 예술인의 중앙 복지사업 안내, 신청, 행정대행으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2018년 3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산하에 설치됨
- 전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담당 인원은 6명이고, 예산은 115,000(천원)임

- 주요 사업으로 예술인활동증명신청대행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전라북도 예술인특례보증지원, 찾아가는 사업안내 서비스, 최초전시지원프로젝트 사업, 기업연계 예술인활용사업(기업×예술인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중견작가 포트폴리오 제작지원사업,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음



[그림 3-9]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조직도

출처: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6) 시사점

-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예술인지원센터의 경우, 단독 조직이 아닌 문화 사업팀의 내부조직으로 편재되어 있음
- 광역예술인지원센터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시행 사업에서는 대부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의 신청대행지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차별성이 없는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임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거나, 예술로(路)의 신설사업인 기획사업 및 지역사업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광역예술인지원센터에 특화 또는 차별된 예술인지원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지역의 차별성 있는 사업들이 지역예술인과 협력하여 복지재단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성이 요구됨
- 광역 단위 예술인 지원조직 설립이 최근 1-2년 사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어려움

- 대부분의 광역단위 유사기관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특히 예술로(路)를 지역으로 연계시키는 기획사업 및 지역연계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중앙과의 연계뿐 아니라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자체적인 사업 모델의 설계 및 시행 필요
 - 부산예술인복지센터의 경우, 지역연계사업이 아닌 자체적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인 <굿모닝 예술인>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예술인과 지역 기업의 밀착형 사업을 진행함
 - 또한 자체적으로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및 기관과 예술인의 연계를 도모함

<표 3-9> 광역예술인지원센터 비교

(2020년 기준, 단위: 천 원)

광역지원센터명	개설시기	조직체계	근무인원	예산 규모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2017. 3	부산문화재단 산하	14	770,000
경남예술인복지센터	2019. 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 소속	4	430,000
대구예술인지원센터	2020. 2	대구문화재단 산하	5	비공개
전남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터	2020. 3	전라남도문화재단 소속 문화사업팀	9	200,000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2018.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속 문화사업팀	6	115,000

출처: 각 광역 문화재단 홈페이지

〈표 3-10〉 광역예술인지원센터 사업영역 비교

분야 센터명	직업역량 강화	권익보호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자립지원
부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예방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休)안심 프로그램 예술인 의로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딧불이 창작 공간사업
경남예술인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모사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활동준비금지원 사업 경남예술인 창작자금대출지원(이차보전)사업 예술활동증명발급 대행 등 	
대구예술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인 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의료비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대행(예술활동증명)지원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남예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일자리 연계 기업수요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사업 홍보확대 예술인 법률 행정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예술 활동 지원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연계 예술인활용사업(기업x예술인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사업 안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활동증명신청대행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전라북도 예술인특례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사업 중견작가포트폴리오제작지원 사업

5.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1) 개요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이음센터’를 개관함

- 이사장 이하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예산 규모는 15,772(백만 원)임

〈표 3-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인원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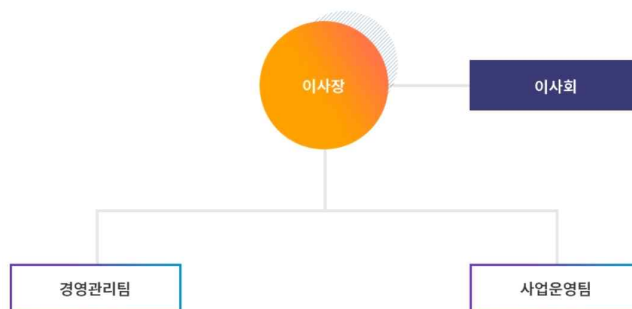
구분	임원			상근직원	임직원수 (상근)	비고
	이사장	이사	감사			
현원	1	12	1	20	34(21)	2020. 2월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예산 (A)	2020 예산 (B)	증감액 (B-A=C)	증감률 (C/A) * 100
총계	14,030	15,772	1,742	12.41%
①국고보조금	13,840	15,582	1,742	12.58%
-장문원 운영	1,457	1,607	150	10.29%
-함께누리 지원	8,771	9,971	1,200	13.68%
-국민체육진흥기금	3,612	4,004	392	10.85%
②자체수입 (대관, 임대 등)	190	190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www.i-eum.or.kr

- 주요 미션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자생적 창작 생태계 구축, 장애예술인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창작역량강화,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발굴·지원 등임



[그림 3-1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직도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www.i-eum.or.kr

2) 주요 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예술가의 창작지원, 인재 발굴 및 육성, 기획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함
- 이음센터 운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이음아트홀, 이음갤러리, 연습실과 커뮤니티 룸, 야외무대 등의 시설운영으로 대관을 통해 창작 발표와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함
 - 이음센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 행사를 위한 연습활동,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학술회의, 국제회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학술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그 밖에 비장애인 문화예술 행사로서 장애인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이 되는 전시, 공연, 강연 등이 이루어짐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1.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개요 및 방법

1) 조사 개요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함
 - 일자: 2020년 8월 ~ 9월
 - 대상: 예술행정 전문가(관련 기관의 실무자, 재단 소속 담당자), 학계 전문가(관련 학과 교수, 정책실무의 연구진), 예술단체 및 예술가(예술사업체 대표, 협동조합, 창작공간 입주작가) 등 총 12명

〈표 3-1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조사 참여자 구성

분야	참석자 세부사항
예술행정	- P 팀장(D문화재단) - K 팀장(Y복지재단) - K 대리(J지원센터)
문화정책	- L 교수(C대학교 교수) - L 대표(M문화재단 前 대표) - L 연구원(H문화관광연구원)
사회적 경제/ 창작공연/ 시각예술	- K 대표(H프로덕션) - J 이사장(C협동조합) - K 대표(H연구소) - H 작가(S문화재단 입주작가) - H 대표(N극단대표,배우) - K 대표(S기업대표,창업멘토)

2) 인터뷰 주요 내용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비전 및 운영 개선 방안
-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육성방안
- 경기도 예술인조합의 결성 및 운영지원의 기본방향
- 예술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의 집중 육성사업방향
- 해외의 예술인 복지 지원 관련사업의 접목방안
- 경기도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방안

○ 기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 및 세부사업

〈표 3-13〉 전문가 인터뷰 내용

문항	내용
1	기존 중앙정부 혹은 광역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이 충분하고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면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2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분야를 예술인 생활보장(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고용보험 등), 권익보호(저작권 등),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 등으로 분류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 접목되어야 할 해외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경기도 차원에서 예술인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지원을 할 때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예술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지원기관’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 지원센터들과 차별화하여 지향해야 할 비전, 핵심가치, 정체성은 각각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6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지원기관’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센터와 차별화하여 예술인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장애예술인 또는 기타 소외계층에 속한 예술인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조사결과

1)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충분한 정도 및 방향성

〈표 3-14〉 전문가 인터뷰 결과 1

구분	내용
1-1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충분한 정도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실정(8명) • 제도적으로는 적정하나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필요(4명)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보호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예술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지원의 형태가 여러 분야의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술가의 분류를 세분화 해야 함 • 시혜성 성격의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성, 연속성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함 • 예술인 자립과 권익보호가 한때 진행되는 정책 지원사업이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업임을 문화향유자에게 이해시키고 관심과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 등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1-2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방향성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관련, 기 창업(자립)자 지원트랙 필요하며, 당 해년도 내 지원 및 성과 요구가 아닌 다년간 지원제도 필요(3명) •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심사위원이 ‘심의-컨설팅-모니터링’까지 진행하는 일괄시스템 필요 • 예술인들에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거나 중복지원은 지양해야 함 • 청년·중진·원로 작가(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금액의 세밀한 검토 필요(2명)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과정에서 사각지대의 예술가를 만들어 내는 과잉적 행정적 절차 감소

- 현재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은 대체로 부족하다는 의견
- 기존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예술가 분류의 재설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방향성으로는 기존 사업자, 다양한 연령대 등 ‘지원대상의 확대’,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지원’, 심의-컨설팅-모니터링 등 ‘지원 패키지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됨

2) 예술인 지원사업의 방향성

〈표 3-15〉 전문가 인터뷰 결과 2

구분	내용
2-1 예술인 생활보장(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고용보험 등), 권익보호(저작권 등),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 등으로 분류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6명) • 생활보장/사회보장(5명) • 권익보호(4명)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저작권, 아티스트피 등 작가로서의 권익보호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예술인들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교육과 함께 권역별(경기 남/북부 또는 동/서/남/북부) 전담 변호사를 두어 권익보호 관련 분쟁 시 예술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형평성 있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방식을 함께 가져가야 함
1-2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방향성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현행 지원사업과 같이 자립 런칭 사업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초기 창업단계까지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예술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매체들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방향이 요구됨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거주 예술 예술인의 연령대와 장르별 분포 특성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예술인을 위한 생활보장 사업 운영이 필요함

-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이 다수인 가운데, ‘생활 및 사회 보장’과 ‘권익보호’ 또한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 자립능력의 향상을 위해 현행 런칭 사업비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사업비와 네트워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예술가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전담변호사 파견제’, ‘아티스트피’제도의 도입 등 의견이 제시됨

3) 벤치마킹 가능한 해외 사례

〈표 3-16〉 전문가 인터뷰 결과 3

구분	내용
3-1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 접목되어야 할 해외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플랫폼 구축(2명) 앙떼르미땅, 협동조합결성(아웃 오브 더 블루 Out of the blue) 캐나다 예술 인적 자원 위원회(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댄스플래너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에게 작가보수제도 ‘아티스트 피’의 개념과 현재의 진행상황 등의 교육이 필요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작가보수제도의 공론화 과정, 토론을 거쳐 현재의 규정(권고사항)이 아닌 예술가의 입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함
3-2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방향성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등 예술인 자립 단체 결성 지원이 필요. 지원사업의 중심 창구가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지속적인 형태로 유지 예술인들이 구축한 조직에 외부의 사업 경영 전문가를 영입하여 조직 경영의 안정화를 모색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법(Knstersozialversicherungsgesetz, KSVG)도입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 보호 관련 지원모델로는 ‘앙떼르미땅’, ‘Out of the blue’, ‘캐나다예술인적자원 위원회’, ‘댄스플래너’ 등이 제시됨
-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아티스트 피’제도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특화된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속적이고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같은 예술인 자립 단체 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4) 예술인협동조합 육성 방안

〈표 3-17〉 전문가 인터뷰 결과 4

구분	내용
4-1 예술인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지원의 방향성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9명) • 결성과 운영에 앞서 기본적인 사업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함(8명)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관계법률, 계약관계와 같은 세분화 된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조합원이 직접 경영하는 사례보다는 운영사무국을 두어 전문 경영인과 행정 처리에 익숙한 소수의 예술계 외부의 인력이 합류하여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동비를 마련하고 집행하려는 수준을 벗어나야 할 것임 • 각각의 협동조합이 가진 다양한 협의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예술인 협동조합협의회나 연합회의 구조를 가지면 좋을 듯함
4-2 예술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차원의 예술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주제와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함 • 지원에 의존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자생력 있는 조직 구축을 목표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지역 내 다양한 활동과 결합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지원이 아닌 민-민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운영지원이 필요 • 각 분야별, 니즈별로 세분화한 협동조합을 꾸리는 것이 우선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들을 위해 협동조합의 이점을 알리는 홍보와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예술가와의 만남의 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상황을 듣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

-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예술인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협동조합 결성 지원 시 경기도 차원의 운영 사무국을 두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민-민 거버넌스 체계(예술인 협동조합 협의회나 연합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림
- 분야별, 장르별 협동조합의 설립방안, 협동조합 홍보방안, 협동조합 주체들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5)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차별화 방안

〈표 3-18〉 전문가 인터뷰 결과 5

구분	내용
5-1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지원기관'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 지원센터들과 차별화하여 지향해야 할 비전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만의 기회제공 및 맞춤형 지원 많은 예술 인프라 활용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예술 활동의 기회를 타 지역에 비해 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 (예술인 자립을 통한) 선순환 문화생태계 조성 인본주의, 사회돌봄, 지속발전 예술 현장과 함께하는 파트너/동행
5-2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지원기관'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 지원센터들과 차별화하여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지원기관'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 지원센터들과 차별화하여 지향해야 할 비전, 핵심가치, 정체성은 각각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차별성 공존, 공정, 협력 예술인과 센터의 신뢰성/ 상생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기본을 지키는 것
5-3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지원기관'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 지원센터들과 차별화하여 지향해야 할 정체성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걱정 없는 창작활동, 안정적인 생활여건 구축. 예술적 감동을 전하는 선순환적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예술가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공청회 개최 필요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대다수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체적인 견해임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차별성', '공존', '공정', '신뢰', '상생', '팔길이 원칙' 등이 제안됨

6)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사업 제안

〈표 3-19〉 전문가 인터뷰 결과 6

구분	내용
	6-1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지원기관'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센터와 차별화하여 예술인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업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구축을 위한 생태계 제공 및 실질적인 체감형 지원사업 확대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민간 주도의 공유 사업 확대가 필요 • 권리의무 관계를 다른 직업군들처럼 명확히 하도록 충분한 사례와 데이터를 마련하여 제공 • 타 광역 지자체의 센터와 달리 예술인 개인별 특성, 경력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컨설팅,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함 •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아카이빙 구축. •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지향적인 정책을 펴고, 예술인들과의 친밀한 교류 필요 • 전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과 언택트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초점 • 예술가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이를 센터에서 승인하는 방식의 선택형 교육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 예술인의 연령대와 경력에 따른 맞춤형 복지사업의 진행이 필요.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변화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제공.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 영역으로는 '자립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제시됨
- 사업 아이টে็ม으로는 '공유경제',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아카이빙 구축', '전생애 주기별 지원', '연령별·경력별 지원사업' 등이 제안됨

7) 장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 사업

〈표 3-20〉 전문가 인터뷰 결과 7

구분	내용
7-1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장애예술인 또는 기타 소외계층에 속한 예술인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업	
다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연습·발표 공간 지원(4명)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 현실적 지원 및 인식 개선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소외계층 예술인들을 위한 연습공간, 창작공간 제공 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장애예술인과 소외계층 예술인들을 위한 파견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진행하여 시너지 도출. •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적 경험 제공 • 인공지능이나 VR 등을 활용한 예술창작/제작 도구들을 보급하고 활용법을 교육 • 장애예술인, 소외계층 예술인들이 취약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장애예술인 또는 기타 소외계층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연습·발표 공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 ‘인공지능이나 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제작 도구의 보급’, ‘장애예술인 대상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인복지재단 연계)’ 등이 제안됨

전략 방향 설정

제1절 SWOT 분석

1. SWOT 분석
2. 핵심전략도출
3. 전략방향도출

제2절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키워드 설정
2. 목표설정
3. 세부 추진전략

제1절 SWOT 분석

1. SWOT 분석

가. SWOT 분석 개요

- 외부환경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기회(Opportunity)요인과 위협(Threat)요인을 도출하고 내부환경 분석 결과를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분석한 후 SO, WO, ST, WT전략을 도출함

〈표 4-1〉 SWOT 분석 개요

분석 유목	SWOT분석의 근거	대응전략 유형
기회(Opportunity)요인과 위협(Threat)요인	- 외부환경 분석 결과 · 정책/정치적 환경 분석 · 거시경제 환경 분석 · 사회·문화 환경 분석 · 기술동향 분석 · 상위 계획 분석	SO WO ST WT 전략 도출
강점(Strength)요인과 약점(Weakness)요인	- 내부환경 분석 결과 · 경기예술인 일반현황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 성과 · 경기문화재단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 · 전문가 조사	

나. 각 요인별 결과

1) 강점(Strength)요인

- 풍부한 예술인적자원 보유
- 수도권에 위치하여 예술인 유입 가능성 높음
- 가장 먼저 설립된 문화재단으로서의 선도적 이미지
- 스타트업 등 예술인 자립지원의 선제적 시행
- 경기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예술인 DB 구축
- 경기도의 높은 문화향유 수준과 문화예술 수요

2) 약점(Weakness)요인

- 경기도는 체육을 포함한 문화 관련 예산이 2.0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 인구대비 최하위 수준⁸³⁾
- 예술 창작 활동 수입, 전국의 71% 수준
- 70.9%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 창작 공간 부족
- 예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체계 미확립(업무분장 부서 및 체계 미확립)
- 타 광역지원센터 대비 적은 직원 수와 예산
-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중복/유사지원 가능성

3) 기회(Opportunity)요인

- 예술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시행(2020년 11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2월)
- 중앙정부의 예술인 지원 관심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과학기술 융합의 중요성
-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문화산업클러스터(게임,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등)와 예술인의 연계 가능성

4) 위협(Threat)요인

-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예술창작 기회 감소 및 예술인 생활기반 위축(모든 장르의 예술계가 대면공연/전시가 취소 또는 온라인 공연/전시로 전환)

83)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389646574>

- 국내외 경제성장 위축 가능성
- 고령화에 따른 예술인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광역 단위 예술인지원센터의 연이은 설립에 따른 특성화 어려움
-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외되는 예술인들이 급증

〈표 4-2〉 SWOT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예술인적자원 보유 • 수도권에 위치하여 예술인 유입 가능성 높음 • 가장 먼저 설립된 문화재단으로서의 선도적 이미지 • 스타트업 등 예술인 자립지원의 선제적 시행 • 경기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예술인 DB 구축 • 경기도의 높은 문화향유 수준과 문화예술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관련 예산이 2.0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 인구대비 최하위 수준 • 예술 창작 활동 수입, 전국의 71% 수준 • 70.9%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미가입 • 창작 공간 부족 • 예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체계 미확립(업무분장 부서 및 체계 미확립) • 타 광역지원센터 대비 적은 직원 수와 예산 • 예술인복지재단과의 중복/유사지원 가능성 확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시행(2020년 11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2월) • 중앙정부의 예술인 지원 관심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과학기술 융합의 중요성 • 문화예술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문화산업클러스터(게임,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등)와 예술인의 연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예술창작 기회 감소 및 예술인 생활기반 위축 • 국내외 경제성장 위축 가능성 • 고령화에 따른 예술인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광역 단위 예술인지원센터의 연이은 설립에 따른 특성화 어려움 •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외되는 예술인들이 급증

2. 핵심전략 도출(SO, WO, ST, WT전략)

가. SO전략: 강점에 기초한 기회요인 활용 극대화 전략

- 강력한 예술인 지원정책에 의한 예술인 유입 확대
-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예술과 기술 융합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인 자립 지원에 특화된 지원센터 구축

- 예술인적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예술인협동조합 육성
- 장애예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에 대한 선도적 이미지 구축

나. WO전략: 기회요인을 활용한 약점 극복 전략

- 예술인 지원 예산의 추가 확충으로 문화 관련 예산 확대
- 협동조합 등 설립 활성화로 고용보험 수혜 예술인 확대
-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한 예술인 수입 확대 지원
- 예술인 자립 지원 관련 사업 확대
- 협동조합, 기술융복합지원센터 등의 확충으로 창작공간 확보

다. ST전략: 강점을 활용한 위협요인 대응 전략

- 예술인 자립지원의 확대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 예술인 중심의 창작 기회 확대로 프로젝트 제작지원 축소에 대비
- 고령 예술인을 포함하는 전생애 주기별 예술인 지원으로 확대
- 예술인 자립지원 특화 예술인지원센터로 자리매김

라. WT전략: 위협요인 회피 및 약점 최소화 전략

- 예술인지원 관련 예산 추가 확보로 예술 관련 총예산 확대
- 예술인 DB 구축으로 촘촘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 온라인 예술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 예술인지원기관의 전문화 및 본부제 승격

〈표 4-3〉 SO, WO, ST, WT 전략 도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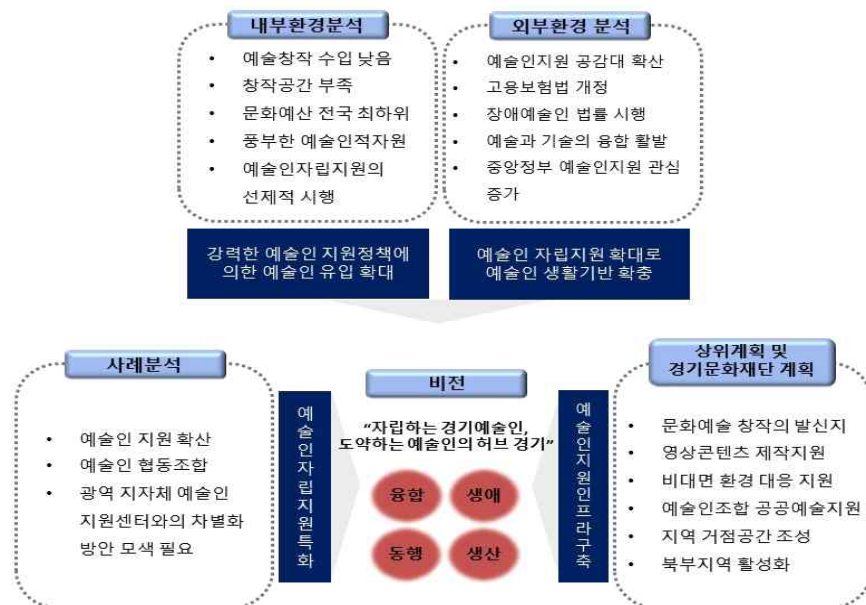
전략구분	전략개요	전략
SO전략	강점에 기초한 기회요인 활용 극대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예술인 지원정책에 의한 예술인 유입 확대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예술과 기술 융합예술인 지원 확대 예술인 자립 지원에 특화된 지원센터 구축 장애예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에 대한 선도적 이미지 구축
WO전략	기회요인을 활용한 약점 극복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지원 예산의 추가 확충으로 문화 관련 예산 확대 협동조합 등 설립 활성화로 고용보험 수혜 예술인 확대 예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한 예술인 수입 확대 지원 예술인 자립 지원 관련 사업 확대 협동조합, 기술융복합지원센터 등의 확충으로 창작공간 확보
ST전략	강점을 활용한 위협요인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자립지원의 확대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예술인 중심의 창작 기회 확대로 프로젝트 제작지원 축소에 대비 고령 예술인을 포함하는 전생애 주기별 예술인 지원으로 확대 예술인 자립지원 특화 예술인지원센터로 자리매김
WT전략	위협요인 회피 및 점 최소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지원 관련 예산 추가 확보로 예술 관련 총예산 확대 예술인 DB 구축으로 촘촘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온라인 예술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예술인 생활기반 확충 예술인지원부서의 인원 확충 및 본부제 승격

3. 전략 방향 도출

가. 전략 방향 도출 과정

- 앞서 진행한 분석들의 시사점들과 SWOT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의 기본방향을 도출함
 - (경기 예술인 현황 분석) 낮은 예술창작 활동 수입, 창작공간 부족, 문화 관련 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 등을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의 추가적 확대 및 예술인 자립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외부환경 분석) 예술인에 대한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도래, 중앙정부의 지역경제를 중시하는 경향, 고령화사회의 도래, 활발한 문화와 기술의 융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 등과 같은 외부환경을 통해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예술인 자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즉 예술인 생활보장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는 ‘권익보

- 호(저작권 등)’와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에 예술인 지원을 특화시켜야 함
- (사례 분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광역지자체의 예술인지원센터, 인천시의 사례와 프랑스의 앙떼르미땅,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등의 사례를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및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상위계획 및 경기문화재단 계획)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의 상위계획에서는 문화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음. 경기문화재단 역시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작품 구입,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술가조합 공공예술지원 등을 시행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술인의 자립에 지원의 방점을 더욱 두어야 한다는 점과 장애 예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이들 시사점들과 SO, WO, ST, WT 전략을 종합하여 키워드를 설정하고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방향성과 비전을 수립



[그림 4-1] 비전 및 키워드 도출 과정

제2절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키워드 설정

가. 비전

‘자립하는 경기예술인, 도약하는 예술인의 허브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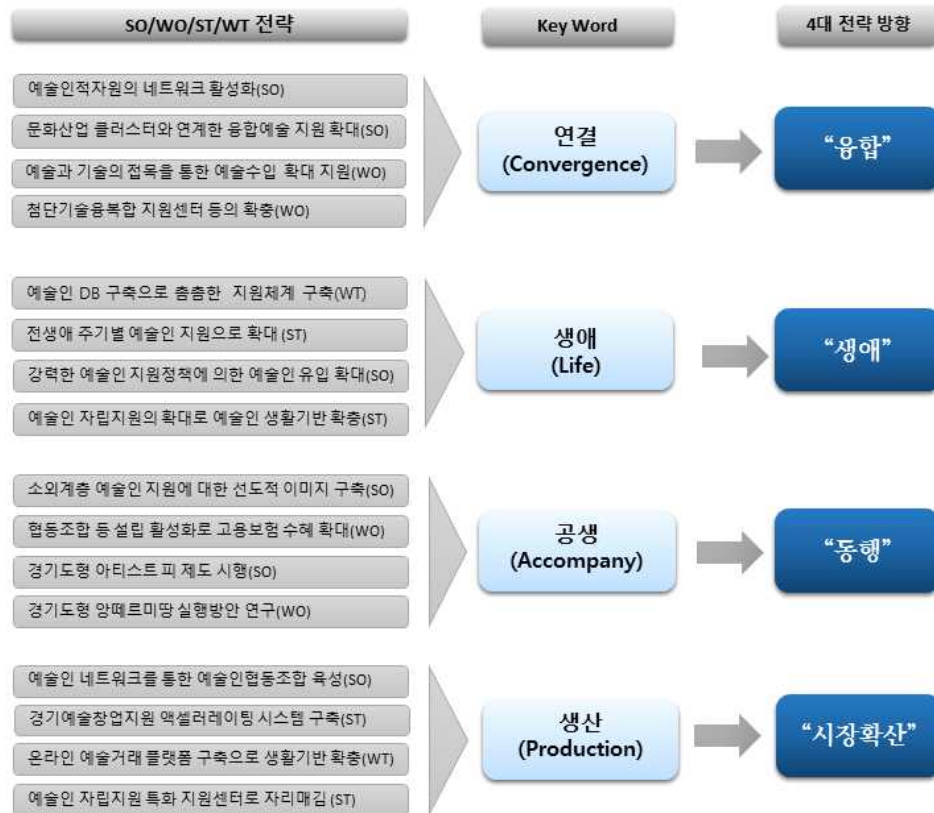
-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인적자원의 활용과 최초의 공공문화재단으로서의 풍부한 문화예술 조성 사업의 경험을 연계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예술활동의 가치 확산을 창출하고 극대화함
- 예술인 자립과 권익보호의 지원은 일방적인 행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예술가들과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경기예술산업 발전의 중요한 초석으로 도약하여야 함
- 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유입 확대를 통해 창조도시 경기를 지향함

나. 키워드 및 전략 방향

- SWOT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연결’, ‘생애’, ‘동행’, ‘생산’이라는 4대 키워드 도출
- 4대 키워드를 콘셉트에 맞게 설정하여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 기조를 반영하여 전략 방향의 일관성 강화
- 4대 키워드를 콘셉트에 맞게 설정하여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 방향을 반영하여 전략 방향의 일관성 강화
- ‘CLAP’은 ‘박수를 치다’, ‘손뼉을 치다’의 의미로 예술인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공감과 소통이 화합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음⁸⁴⁾
 - **연결(Convergence: 융합 전략)**: 융합(Convergence)의 범위를 예술 전체 장르와 타 분야까지로 확산함
 - 예술인 조합과 같은 자립을 위한 단체 결성에 다양한 생산적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전략 방향을 설정
 - 예술 장르 간 협업과 예술가와 기업체 간 창의적 충돌과 융합을 통해 문화예술과 기술 등 영역 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84) CLAP은 Convergence, Life, Accompany, Production의 앞 글자를 의미함.

- **생애(Life: 생애 전략)** : 생애(Life)는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아름다운 예술 생애’를 의미로서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전생애 주기에 배려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함
 - 청년층을 비롯해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모든 예술인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행복한 생애를 추구하는 전략방향으로 설정
 - 각 세대별, 연령별, 장르별 분포 특성 등을 반영한 경기도 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강화
- **동행(Accompany: 공생 전략)** : 동행(Accompany)은 예술인-예술인, 예술인-행정부문, 예술인-타분야 간의 네트워크(연결)를 강화하며, ‘장애예술인과 소외계층의 예술인들과 함께 가다’의 방향을 의미
 - 예술인과 예술인지원센터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진행 방향으로 설정
 - 지역 내 다양한 활동과 결합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예술단체 간의 협력과 함께 민-민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운영지원 강화
- **생산(Production: 시장확산 전략)**: 생산을 통한 시장확산 (production)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자립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의 기초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
 - 예술인 자립을 통한 선순환 문화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
 - 결과적으로 위 3개의 전략은 예술인 자립을 위한 생산적 전략과정임



[그림 4-2] SO/WO/ST/WT 전략에 따른 키워드 및 전략 방향

2. 목표 설정

가. 방향

- (사업 방식) 개별 사업 공모체계에서 예술인 중심 공모체계로 전환
- (사업 대상) 청년 등 특정 계층의 예술인에서 전 생애주기 예술인 대상으로 전환. 소수 예술가 대상에서 다수의 예술가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등 대상 확대
- (사업 범위) 휴먼웨어 중심에서 정책 거점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로 확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을 비롯한 기술예술 융합 사업 확대

나. 목표

- 생애주기별 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 온라인을 비롯한 예술가의 기술 융합 확대
- 예술인 지원 거점 공간 조성

3. 세부 추진 전략

비전	자립하는 경기예술인, 도약하는 예술인의 허브 경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 온라인을 비롯한 예술가의 기술 융합 확대 • 예술인 지원 거점 공간 조성 	
전략방향 및 세부추진 전략	융합 (첨단기술융합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첨단기술융합예술센터 설립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운영
	생애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동행 (소외 및 장애예술 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 경기도형 앙떼르미당 •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시장확산 (예술시장 조성에 의한 자립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 지원 •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 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그림 4-3] 비전과 전략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표 4-4〉 기본방향별 세부추진 전략

기본방향	전략	과제	신규/계속
예술인 자립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자립 지원 경기예술 창작해커톤 운영 클라우드펀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계속 신규 신규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 신규
	자립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협동조합 거점 공간구축 및 운영 창작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계속
	예술품 판매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 온라인플랫폼 구축 운영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규
	기술과 예술 융합 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규
예술인 직업안정	직업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경기예술인 자녀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 신규
예술인 권리보호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경기예술인 상담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계속
예술인 생활안정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형 양떼르미땅((Intermittents)) 예술인활동증명 지원 장애/소외 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규 신규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핵심 추진 사업

제1절 융합(첨단기술 융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1.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2.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구축
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4.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제2절 생애(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인지원 전략)

1.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
2.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공공수장고 설립
4.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제3절 동행(소외 및 장애예술인 지원전략)

1. 경기도형 앙떼르미당
2.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3.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지원
4.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제4절 시장확산(예술시장 구성에 의한 자립기반구축전략)

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2.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3.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 위원회
4.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

제1절 융합(첨단기술 융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1.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4K, 8K 등 영상기술과 5G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연영상(온텍트 공연)이 현장공연의 보완재로서 그리고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VR기술의 발전으로 버추얼미술관(Virtual Museum, 가상미술관)⁸⁵⁾이 일반화되고 있음
- 1인 미디어시대를 맞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⁸⁶⁾가 각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음
-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공연과 전시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킴

2) 필요성

- 수준 높은 영상기술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영상예술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 예술가 자체의 브랜딩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85) 가상미술관(Virtual Museum)은 통신망 상에 가상으로 구축된 미술관, 또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이다. 기존의 미술관은 물리적인 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소장품을 수집, 보관, 전시하지만 가상미술관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관람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상미술관은 기존 미술관이 보유한 사진, 해설 자료 등 소장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 가상공간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사례로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를 꼽을 수 있다(김선영(2018), 예술로 읽는 4차산업혁명, 별출판사, 42).

86) 1인 미디어 창작자, 개인 크리에이터, 개인 창작자 또는 줄여서 크리에이터나 BJ(Broadcasting Jockey)라고도 부른다. 최근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로 대표되는 인터넷 동영상이 기존의 방송 미디어를 대체하는 '차세대 미디어'로 부상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creator)의 영역은 대중예술을 비롯해서 푸드, 키즈, 게임, 뷰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급격한 부상은 미디어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이러한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Multi-channel network) 시장이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선영·최중빈(2020), 예술산업유통채널로서의 공공MCN 고찰, 인문사회21, 11(2), 61-76.).

나. 추진 방향

- 예술인 개개인의 브랜딩을 위한 지원을 지향함
- 시설 및 설비 등 단순 제작뿐 아니라 소비자 데이터 분석, 마케팅 및 브랜딩 활동, 저작권 지원 등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
- (1차) 경기 동부, 서부, 북부, 남부 등 4곳 설립 추진, (2차) 시군과의 협업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
- 이때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⁸⁷⁾ 또는 경기문화창조허브 등과 연계할 수 있음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구축

- 공연영상의 제작이나 가상미술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 및 프로그램 구축
 - 남부와 북부의 경우 판교, 의정부 등 경기문화예술인허브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하드웨어(건물임차료 등) 소요 비용을 절감함

라. 기대효과

- 예술 영상의 품질 제고를 통해 예술인 개개인의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예술인 자립에 기여함
-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예술인을 양성함

마. 국내외 사례

87) 미디어센터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미디어 교육센터, 영상제작 지원센터, 시민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들 수 있으며(최영목, 2005),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협력, 영진위, 방송문화진흥회 등이 운영한다. 2019년 11월 현재 전국에는 48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의정부, 남양주 등이 미디어센터를 보유하고 있다(2019 경기도 미디어센터·마을공동체미디어 실태 조사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경기콘텐츠진흥원).

1) 한국문화정보원, 비대면 디지털 크리에이터 운영 및 한류 콘텐츠 제작사업

- 문화포털 내 지역 및 한류 문화영상콘텐츠 생산·유통을 통한 대국민 지역 문화정보 이용확대와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
 - 코로나 19 확산으로 '20년 해외문화PD 파견사업 중단에 따른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청년 일자리 활성화
 - 문화포털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문화영상 콘텐츠 서비스
- 디지털 크리에이터 활동 및 운영 관리, 디지털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원, 완성 콘텐츠 영문자막 번역 및 콘텐츠 홍보

2)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센터 ZKM(Zentrum fue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독일의 중소도시 '카를스루에'에 있는 세계 최 초를 표방하는 거대한 규모의 미디어아트센터가 건립되었음
 - ZKM은 현대미술관과 미디어뮤지엄, 미디어 도서관과 미디어극장, 음악스튜디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임
 - 원래 2차 세계대전까지 탄약과 화약을 생산하는 탄약공장이었으나, 종전 후 70년대까지는 제철소로 활용되고 그 후 독일의 제철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폐업하고 20년 동안 방치되었음
 - 새로운 미디어를 주목했던 카를스루에 시는 정보 통신, 방송시설, 문화예술 등 3가지 영역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디어아트센터를 1985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시정부의 치밀한 기획과 카를스루에 미술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하여 1997년 개관하였음
 - 개관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ZKM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디어 아트센터로 자리매김하며, 작은 도시 카를스루에⁸⁸⁾에 세계의 아티스트들이 몰려드는 중추기관이 됨

88)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남쪽의 카를스루에로 나가는 고속도로 출구엔 도시 이름이 아닌 'ZKM'이라 쓰인 간판이 있는데, 그만큼 카를스루에보다 'ZKM'이 더 유명하다는 뜻.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5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8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표 5-1〉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4	25-30
경기예술영상 지원센터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사업비	20	800	600
		항목	사전조사 용역	인테리어 및 운영비	운영비
	소계		20	800	600

2.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구축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이를 통한 기술과 예술과의 융합 현상이 활발해짐
 - 제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서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지능 정보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통한 산업 영역에서의 여러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의미함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 12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하고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미래 전략사업을 지원 중임

2) 필요성

- 예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편향된 첨단기술 융합 지원을 예술인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됨

나. 추진 방향

- 개별 장르적 지원정책에서 통합 장르적 융·복합 지원정책으로, 프로젝트 중심에서 예술인 중심으로 지원의 방향성을 전환함
-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지향함
- 경기 북부, 남부, 동부, 서부권역 등 4곳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함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구축

- 뉴미디어 아트가 창작될 수 있는 기반과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 및 프로그램 구축
 - 판교 등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연계할 수 있음
 -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주제 또는 소재로 하는 경기도의 예술가는 누구나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 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

라.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콘텐츠 허브로서의 첨단 예술산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기술 개발 및 육성을 통해 문화기술발전은 물론 예술 및 인접 영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문화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예술인이 생산한 작품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킴

- 창작 및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데이터화를 통하여 저작권 기반 예술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불법복제, 무자료 거래 관행 등 예술산업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마. 국내외 사례

1) 풍피두센터 산하 ‘음악·음향의 탐구와 조정 연구소(IRCAM)’

- 프랑스의 대표적 예술과 기술의 공동연구소이자 프로젝트로서 소리와 연결되는 모든 것을 연구함
 - 1970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던 G.퐁피두가 유명 작곡가 피아 블레즈에게 ‘미래를 지향하는 음악 연구소’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탄생하였음
 - 음악을 연구하는 곳이지만, 90여명의 연구원 대부분이 수학이나 컴퓨터 전공자들과 더불어 예술가들과 항상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함
 - 주요전자기업과 협업을 통한 문화기술의 상업화도 추진하였는데 소니와 협업한 시맨틱 하이파이(Semantic HiFi)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음

2) 아시아문화원 창제작센터⁸⁹⁾

- 아시아문화원(Asia Culture Institute, ACI)⁹⁰⁾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소프트웨어 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그중에서도 기술과 융합된 예술콘텐츠를 개발·생산하고 유통하는 기관임
 - 아시아문화원은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해 바라보던 기존의 서구적 시각의 동양을 아시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조로 하여,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슬로건으로 함

89) 김선영·이의신(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아시아문화전당 발전 방안 - 아스 일렉트로니카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22, 41-55.

90) 아시아문화원(Asia Culture Institute, ACI)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월에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1월 29일 지정)임.

- 핵심 업무는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아시아문화 관련 홍보, 교육, 연구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사업, 교육사업, 전시사업으로 구분됨
- 아시아문화원은 ‘창·제작센터’를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자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의 확보 및 유통을 담당함
- 창·제작센터의 랩(Lab)은 융·복합콘텐츠 창제작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국내외 전문가 및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협업을 진행함
 - 랩의 프로그램은 방문창작자 프로그램(Residence), 시드랩(Seed Lab), ACT프로젝트 등 3단계로 구성
 - 레지던시는 6개월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예술가나 단체들에게 작품 제작비, 숙소, 생활비를 지원함
 - 방문창작자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작품은 시드랩의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되고, 선발된 작품은 액트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하게 됨
 - 이때 아시아문화원은 자체 IP의 확보를 통해 콘텐츠의 유통을 담당함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5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6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표 5-2〉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4	25-30
경기첨단기술 융복합예술센터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사업비	20	600	1,200
		항목	사전조사 연구 용역	운영비	운영비
		소계	20	600	1,200

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을 비롯한 예술의 전 분야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 계약취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공연과 전시 발표를 다수 진행함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공공 예술온라인플랫폼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필요성

- 공연예술을 포함한 전시 및 발표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작 발표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함
-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하고, 온라인플랫폼을 연계해 대면공연과 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추진 방향

- 경기도의 모든 예술인/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공연예술지원과 시각예술지원 등 두 개의 플랫폼으로 구성
- 무료 공연/전시와 유료 공연/전시 영역으로 구성하여 예술가/단체들의 마케팅영역과 브랜딩 활성화에도 연계 활용함
- 온라인 발표 등 한 방향 관람뿐 아니라 양방향으로 관람객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공공예술향유의 토탈 문화예술플랫폼을 제공함
- 온라인 아카이빙 플랫폼으로도 활용함
- 이때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등과 연계할 수 있음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온라인으로 공연과 전시가 발표될 수 있는 기반과 양질의 완성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인력 구축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음
 - 공연과 전시 간 기업광고를 연계해 예술가/ 단체의 수익모델 개발
 - 종합적인 공공예술향유의 토털 문화예술플랫폼으로 발전 가능

라. 기대효과

- 비대면 발표의 온라인플랫폼구축을 통해 예술가/ 단체의 공연과 전시의 발표 안전망을 구축함
- 영상/통신기술의 발전, VR 등의 기술개발에 따른 미디어 향유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예술 향유 수요 유입
- 예술가/단체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계 가능성
 - 예술가/단체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브랜딩 활성화 활용 가능
- 온라인플랫폼의 공연과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아카이빙 자료 구축

마. 국내외 사례

1) 아트바젤(ART Basel)

- 세계최대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은 ‘온라인 뷰잉룸’으로 대체함
 - 코로나19로 2020년 9월에 진행예정이었던 스위스 바젤전시를 취소하고, 온라인 뷰잉룸(Online Viewing Rooms)으로 진행
 - 실제 작품을 볼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뷰잉룸 전시에서는 널리 알려진 유명작가의 작품위주로 거래되었고, 신진작가들의 작품거래는 감소함
 -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의 특화된 부스 디스플레이의 강점이 균일한 레이아웃의 온라인 뷰잉룸에서는 작품의 가치와 정보가 평

준화되는 위험성이 내포되는 부분도 발생함⁹¹⁾

2) 2020서울아트마켓(Performing Art Market in Seoul 2020)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서울아트마켓’⁹²⁾을 비대면으로 진행⁹³⁾
 - 국내 최초로 온라인 롤플레이팅게임 모형을 차용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진행(2020년 10월 12일~15일)
 - PC 전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부스에서 국내외 공연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업 교류에 참여할 수 있음
 - 공연예술작품의 쇼케이스, 국내외 공연예술 사업교류제안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줌(Zoom)을 활용해 이용 가능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5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3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91) 예술경영웹진 452호(2020),미술시장 온라인 플랫폼의 가능성과 한계, 2020.10.9. 검색.

92)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은 우리 공연예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견본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내 우수한 공연작품의 체계적 유통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10월마다 개최해오고 있다. 우리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통망 확보와 우수작품의 전략적 발굴을 통한 한국 공연예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식주최는 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이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개최 장소는 매년 다르나 주로 대학로 일대 공연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바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포커스 권역, 우수작품 쇼케이스(PAMS Choice), 부스전시, 학술 및 정보제공, 네트워킹,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된다(김선영·이의신(2018), 서울아트마켓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플랫폼 도입방안 고찰,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3, 23-37).

93) 서울경제 2020.10.9.보도자료 검색, <https://www.sedaily.com>.

〈표 5-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시각예술 온라인 플랫폼 공연예술 온라인 플랫폼	사업비	50	500	600
		항목	사전조사	플랫폼 구축	운영비
	소계		50	650	600

4.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운영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중인 <예술해커톤>⁹⁴⁾은 문화예술, 기술, 비즈니스 등 이종 분야가 결합된 문화예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예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4년간 총 10회에 걸쳐 시행됨
- 디지털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 등 최근 직업세계의 변화가 도래함

94)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하여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등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말함.

〈표 5-4〉 예술해커톤 회차별 주제

회차	회의주제	내용
1	전통	전통문화와 기술의 융합
2	평창문화올림픽	공연, 미술, 융복합콘텐츠, 관광상품 등 올림픽 콘텐츠 활용
3	로봇과 드론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업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메이커스페이스인 아트팩 랩에서 개최-문화예술과 로봇공학 기술의 융복합으로 독창적인 예술콘텐츠 및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창업 모델로 발전
4	예술데이터	예술 및 일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술 콘텐츠·시제품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여 창업모델로 개발
5	스마트 아트센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관객 개발·관리, 고객유입 활성화, 콘텐츠 구현환경 개선, 창업 아이디어 발굴
6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관객 및 예술 소비자 맞춤형 예술 유통/향유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7	차세대 문화예술교육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결합된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8	블록체인과 문화예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 서비스 창업 아이디어 도출
9	공연정보 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데이터(오픈API)를 활용해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발굴
10	아트센터 고객서비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500개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의 고객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도출

출처: 정혜승(2020), 재구성

2) 필요성

- 창작해커톤을 통해 예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활발한 창업아이디어 도출 가능
- 새로운 직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창작(Job Creation)은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재능과 능력에 맞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발굴하는 것으로 창작과 예술창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문화예술창업은 예술인들의 자립과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될 수 있음

나. 추진 방향

- 예술창직해커톤의 창업/창직 분야별 영역을 설정하고, 창작에 특화하여 중앙의 예술해커톤 사업과 차별화
- 문화기술(CT)을 활용한 창작에 초점을 둠
- 창작/창업분야 전문 컨설턴트 확보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술창직

해커톤 개최 후 창작 구체화 장치 마련

- 추후 경기예술창직센터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표준화된 분야별 사업아이디어 도출모델 개발 등)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창직해커톤 개최

- 연 2회 창작해커톤 대회를 개최함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연계할 수 있음
- 우수자에 대해 창작에 필요한 자금 수여(500만원~최대 3,000만 원)

라. 기대효과

- 예술가/ 단체의 문화기술(CT)을 활용한 창업 가능
- 예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비즈니스 가능
- 예술창직해커톤 수료자를 창작/창업을 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로 양성 가능
- 문화산업의 원동력과 예술가치 확산에 기여
- 예술인의 문화예술창업/창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마. 국내외 사례

1) 에코톤(Ecothon)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 주최하며 환경에 문제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과 정책개발을 위해 시행함⁹⁵⁾
 - 수상작으로는 생태계 교란종인 베스를 자동으로 수거하여 사료나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제품, 폐건전지 수거함 등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제품 등이 있음

95) 고일권(2017), 전게서.

- 대상은 예비창업자, 학생 및 일반인을 포함하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대전 부스 참여 혜택 및 공공분야 환경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함

2) 경기문화재단의 ‘코끼리를 데이터에 넣는 방법’

- 2020년 10월13일-22일, 총 4회차로 진행하는 버추얼 해커톤⁹⁶⁾
- 예술교육활동가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과정으로 진행⁹⁷⁾
 - 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 개발과정 지원
 - 참여자는 사전연수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4회 차로 진행
 - 모든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해 진행됨
 -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4개월 간 후속개발 및 시범사업을 지원함

3) GLOBAL AI HACKATHON⁹⁸⁾

-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AI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해커톤
 - 4,000여 명의 디자이너, 데이터 과학자, 신경과학자 등이 참여함
 - 참여 국가별 1개 팀을 선정, 피칭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 및 평가가 진행됨
 - NEC, Microsoft등의 기업에서 후원하며, 3일/ 48시간 동안 진행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3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9천만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96)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 2020년10월11일 검색.

97) 수원일보 <http://www.suwonilbo> 2020년10월11일 검색.

98) <http://www.ai.hackthon.com>

〈표 5-5〉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경기예술창작 해커톤	해커톤 시행 및 창작지원금 지급	사업비	30	90	600
		항목	2회 시행	연2회 시행	연4회 시행
	소계		30	90	600

제2절 생애(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인지원 전략)

1.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뷰티풀 아트라이프 in 경기)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현재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자립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광역 예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은 청년을 포함한 일반영역과 원로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로 시행되고 있음
-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수년 전부터 예술 분야 스타트업에 관련하여 다양한 창업 준비 지원이나 초창기 창업 단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사업모델 확장 및 개발 자금 지원, 전담 엑셀러레이터 배치 등)

2) 필요성

- 예술인들의 생애주기별 편차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 신진, 중견, 원로의 4단계로 구분하여 자립지원 영역의 세분화가 필요함
 - 예술창작지원의 예술가 지원대상이 예비, 신진, 중견, 원로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처럼, 자립 지원사업도 일정 정도 구분이 필요함
 - 중견/원로 예술인의 경우 많은 경험과 예술 인프라들을 창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지원대상의 범위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서 ‘과거 1~2년 이내 예술 분야 초기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지원 트랙을 설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창업 후 생존율이 1년 후까지는 60%를 넘고 있지만, 3년이나 5년이 경과하면 40% 아래로 떨어짐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범위를 세부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자립준비금의 사용처는 설립 및 기반 조성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로 다년간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이 자립 및 창업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은 지원금이 교부되는 5월부터 정산이 시작되는 11월까지 약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일반 창업(자립)보다도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 구조를 가진 문화예술분야는 준비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나. 추진 방향

- 예술가 지원대상을 예비, 신진, 중견, 원로의 4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각 지원대상 별 지원금의 사용처와 활용범위를 분석해서 지원
 - 예를 들어, 예비와 신진 예술가의 경우 자립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팅 시스템의 지원 방향도 검토
 - 예비/신진예술인 장르 간 협업시스템의 구축과 프로젝트 도출
- 중견/ 원로예술인의 경우 단순 자립지원뿐 아니라 경험을 활용한 지역문화교육 연계, 아트마케팅 및 저작권 활용 등 비즈니스 연계방법을 제공
- 다년도 지원으로 확대(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뷰티풀 아트라이프 in 경기’

-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아름다운 예술 생애’를 구축하는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예술인생애 주기별 4단계 자립지원사업 시행
 -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예술인들의 행복한 생애주기를 추구
- 예비/신진/중견/원로 예술인의 주기별 자립지원 범위와 자립우수사례를 아카이빙하고 모니터링/ 인터뷰할 수 있는 연속적 간행물 제작
- 자립/ 창업 목표, 성과달성을 위한 창업교육연계 시스템 구축
- 예술장르별로 진행 중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아트콜라보사업(2015~2020)과 다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과의 교류 및 아트콜라보레이션 매칭시스템을 구축

- 경기도 소재의 135개 전통시장 중 재생사업 진행계획과 연계해 예술적 개입, 창업 분야를 연결해 협업사업화 하는 방안도 고려

라. 기대효과

- 청년층을 비롯한 중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모든 예술인들의 생애주기별 편차가 보호되는 존중받는 예술 생애를 추구
 - 각 세대별, 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예술인지원사업의 구심점
- 단순 지원금 지급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생애주기별 세 부지원범위 확립
-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의 예술화 사업을 통한 예술가치 확산에 기여
 - 생애주기별 4단계 사업 실행 및 사례를 통해 각 연령별 대표사업모델 도출/ 강화 가능

마. 국내외 사례⁹⁹⁾

1) 충주시 원로작가 지원사업

- 충주지역 기반 활동 중이거나 활동하여 충주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로예술인들 지원사업
 - 충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하여 충주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로예술인들을 지원
 - 지원대상은 충주 원로예술가들의 역량강화 활동으로 신작제작 및 실연
 - 지원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의 원로예술가(내국인), 공고일 전일 기준 3개월 이상 충주에서 거주한 자, 사업시행 기간에 추진되는 사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등
 - 지원분야는 음악, 미술, 공예, 전통공예,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모든 장르

99) 본고의 사례는 대상의 확대를 예시로 든 것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자립지원 사례는 찾기 어려움.

2) 전라북도: 창작마중물 지원 시범사업

- 창작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전업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작가들에게 용기와 자긍심 고취하고 전업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의 도약판 제공
 - 문학, 시각예술 분야, 도내 5년 이상 거주하고 55세 미만 전업예술인 대상
 - 개인 창작활동비 월 10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6억 원
- 2단계(2022년~2024년) : 18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0억 원

〈표 5-6〉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	1단계 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2단계 증견으로 확대 3단계 예비 및 원로로 확대	사업비	600	1800	6000
		항목	현재 유지	증견예술인 확대	예비, 원로추가
	소계		600	1800	6000

2.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경기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으로는 최초로 2019년 경기예술인DB 구축 및 기초현황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은 경기도 예술인 2,000명을 모집단으로 11개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예술인
 - 창작활동분야,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현황, 창작활동공간 보유 및 예술인 간 교류 현황, 고용 및 복지현황의 기초DB가 확보됨

2) 필요성

-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구축을 통해 예술인지원사업의 세분화와 기존사업의 연계 방향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
- 창조도시경기의 초석이 되는 경기예술인들이 가진 창조적 역량분석과 현황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복지정책수립의 기반조성
- 분야별 지원사업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예술인지원 정책방향을 제시
- 예술장르 간 / 예술단체 간 네트워킹자료 활용으로 인적자원 공유

나. 추진 방향

- 2019경기예술인 실태조사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이를 더욱 정교하게 진행
 - 12개 분야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및 다원(복수)
 - 시군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 시행을 최종 목표로 진행
- 각 분야별 모집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량조사와 더불어 정성조사를 강화
 - 정량조사의 경우 리스트 활용 조사(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전화, 팩스 조사 병행)와 현장 조사(예술 현장 방문을 통해 면접조사로 진행)를 병행
 - 정성조사는 분야별 예술인 1:1 심층 인터뷰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 예술분야별 모집단 조사를 통해 각 예술분야별 창작환경 차이점을 확보하여 창작생태계의 질적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 제시함
 - 예술분야별 정보축적 및 기록 보존관리 가능
 - 예술분야별 지원사업 차별화와 육성사업의 개발

2)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아카이빙

- 예술인지원사업 사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과 동시에 신규 진입자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
 -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어떠한 도움을 받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예술인이 어떻게 자립에 성공하였는지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신규 진입자들의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라. 기대효과

-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복지정책수립의 기반조성
- 예술분야별 DB를 통해 각 분야별 창작환경 분석과 지원육성사업의 개발
 - 분야별 지원사업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경기예술창작생태계의 질적 개선 기대
 - 구체적인 사례분석과 교육 자료로 활용

마. 국내외 사례

1)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¹⁰⁰⁾

100) 출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wfartist.kr)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분야별 카테고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 예술인복지재단의 각종 사업 참여 기록이 개인 포트폴리오 자료로 보관되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술인복지법 제6조¹⁰¹⁾에 근거함
-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정보, 예술공간 교류, 교육 지원 등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아카이빙 구축사업 진행
 - 포트폴리오 관리지원
 - 예술인복지 월스톱 서비스
 - 구인·구직 정보제공
 - 온라인 지원관리
 - 예술활동 촉진 정보 아카이빙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의 통합 로그인 제공
 - 예술활동증명 신청 진행 상황 확인 및 증명서 출력 지원

2)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조사사업¹⁰²⁾

- 영국 예술위원회의 지원은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통계적인 수치로 보고됨
 -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지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활용됨
- 기본적으로 ACE에게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고서를 출간
 - ACE 지원대상인 모든 단체는 Annual Submission Survey에 응답하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지원사업 성과 보고서는 영국통계청 공식 통계보고서로 제출
 - 주요조사항목으로는 단체 프로파일, 인력, 재정 현황, 퍼포먼스의 수, 전시일수, 영화상영 및 교육활동, 이들 활동에 대한 관객 수 등임¹⁰³⁾

101)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2) 경기예술인실태조사 보고서(2019).

103)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1억 원¹⁰⁴⁾
- 2단계(2022년~2024년) : 3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표 5-7〉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아카이빙	사업비	100	300	600
		항목	조사용역	조사용역	조사용역
	소계	100	300	600	

3. 공공수장고 설립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국립현대미술관은 1972년부터 기증에 의한 근대작품 소장을 시작으로 1986년 현재의 과천관이 건립되면서 동시대 작품과 외국작가의 작품소장으로 확대됨¹⁰⁵⁾
 -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장르의 소장이 확대되었고, 근현대미술사 정립 등에 중요한 작품을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 10개 분류체계로 수집, 관리됨
 - 수장고는 1986년 과천관이 세워지면서 구축되었으며, 이후 2004년, 2010년 증축과 개선을 통해 현재 과천관에는 9개 수장고, 1개의 임시

104) 2019년 사업비는 8,800만원이었음.

105) 경향신문 <https://news.khan.co.kr>. 2020.11.7. 검색

시수장고가 있음

- 최근에는 수장고의 일부를 전시형태로 보여주는 개방형 수장고가 도입되는 추세임
 - 국립현대미술관은 2018년 12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에 ‘보이는 수장고(Visible Storage)’ 형태의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오픈함
 - 국립민속박물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파주에 대규모의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 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¹⁰⁶⁾

2) 필요성

- 수장고는 한국의 근현대미술 소장품들이 보존·관리되는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임
 - 작품 관리와 보존을 위해 장르별, 바탕재의 재질에 따라 항온, 항습 등 세밀한 보존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 소장품은 근현대와 동시대의 문화를 해석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며, 작품의 보존과 연구, 아카이빙은 미술관의 핵심역할과 기능임
 - 향후 더욱 확장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소장품의 보존·관리의 목적과 더불어 수장고는 전시의 기능까지 확장되는 시점
- 공공영역의 작품소장이 확대될수록 그에 비례하는 공공수장고 설립은 더욱 중요해짐
-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전시를 위해 소장품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공공수장고 건립은 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함

나. 추진 방향

- 최근 건립되고 있는 개방형수장고의 형태를 참고하며, 장르별,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공간구성을 계획하여 추진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수장고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관람객의 감상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안을 검토하여 추진함

106) 도경민(2018) 보이는 수장고(Visible Storage)에 대한 주요쟁점 분석과 시사점,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2), p.116.

- 현재 보유한 공공소장품의 작품 수와 향후 소장품 구입 사업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

다. 세부추진계획

1) 소장품 특성에 적합한 수장고 공간 구축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개방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보이는 보존과학실, 특별수장고 등의 공간 분류체계 분석
 -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장고의 관람 동선 구성
 - 개방범위에 맞는 수장고 구성 및 관람객 쉼터 확보

2)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빙센터 구축¹⁰⁷⁾

- 소장품 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 국내의 경우 유일하게 국립민속박물관만이 자료 활용을 위한 정보센터 건립을 계획 중
- 비컨을 활용한 소장품의 디지털자료 제공으로 어매니티 강화

라. 기대효과

- 공공소장품의 수집·보존·관리 기능 확대
- 소장품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강화
-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 관람객들의 자기주도적인 감상과 학습을 유도
-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 가능

마. 국내외 사례

1) 남양주 공공미술 수장고 조성계획

- 경기도 남양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미술 수장고 조성

107) 도경민(2018), 전게서.

- 원로작가 100명을 위한 상설전시장과 한국미협소속 30개 분과가 운영하는 미술관 건립¹⁰⁸⁾

2)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 서울시 시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 35만점을 보관하는 통합수장고를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¹⁰⁹⁾
- 통합수장고 개관목표 2022년6월, 연면적 9000제곱미터 규모

3)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 2018년 12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은 충청북도 청주에 ‘보이는 수장고 (Visible Storage)’ 형태의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오픈
- 청주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4000점과 미술은행 소장품 1100점 등 5100 여점 소장¹¹⁰⁾

4)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과주에 대규모의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2곳이 오픈 예정임¹¹¹⁾
- 대부분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일반인 대상의 전면개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소장품 통합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함
- 국립현대미술관의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는 복원연구의 기능을 강조한 복원센터를 겸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은 소장품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정보센터를 함께 계획 중임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108) 경향신문 2019.10.23. 보도자료.

109) 한겨레신문 2020.3.23. 보도자료.

110) 경향신문 2018.12.27. 보도자료.

111) 도경민(2018), 전게서.

- 1단계(2021년) : 5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20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18억 원

〈표 5-8〉 공공수장고 설립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경기첨단기술 융복합 예술센터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사업비	50	2000	1800
		항목	사전조사	건설비	운영비
	소계		50	2000	1800

4.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현재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유일
 - 대학로에 위치한 ‘반디돌봄센터’와 망원동에 위치한 ‘예봄돌봄센터’ 두 곳이 운영 중임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돌봄서비스를 운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소득 기준(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지정된 입소기준에 적합해야만 가능

2) 필요성

- 여성예술인에게 있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생애주기의 큰 요인으로 작용됨
- 보육여건의 확충은 여성예술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 남성예술인의 창작활동에도 영향을 줌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신설되어야 함
-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은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사업이면서 동시에 자립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기도 함

나. 추진 방향

- 현재 서울(대학로, 마포 등 2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자녀 돌봄센터의 운영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거점 센터운영 기본계획을 구축
-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보육시설 확충
 - 돌봄센터에 투입되는 인력풀 구성 시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여성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연계와 확장도 고려
-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의 경력 재설계와 교육훈련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구축

-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거점 돌봄센터 운영기본계획을 구축하여 시설확보 및 인력구성
- 돌봄센터 운영계획과 함께 여성예술인 협동조합과의 사업연계모델 구상
 - 돌봄 프로그램으로 미술활동, 동화구연, 음악놀이, 연극놀이 등 예술인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 현재 빈 교실이 늘어나는 초등학교를 활용한 돌봄센터의 운영도 고려
 - 서울 중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흥인초등학교에 제1호 ‘중구형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거점공간과 문화예술인들과 연계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고용 등 지역 내 성과역량으로 축적되는 선순환을 기대¹¹²⁾
-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의 경력설계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라. 기대효과

- 경기예술인자녀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동시에 자립지원 역량 강화 기대
-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예술인협동조합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가능
- 경기예술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예술인자녀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여성예술인 고용 등의 선순환을 기대
- 육아로 인한 여성예술인들의 경력단절 최소화

마. 국내외 사례

1) 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복지재단은 현재 예술인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평일저녁, 주말 동안에도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개의 시간제 돌봄 시설을 운영
 - 2014년 4월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반디돌봄센터’ 개소(1호점)
 - 2017년 3월 14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예뵘돌봄센터’ 개소(2호점)

11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2020. 10. 14 검색.



[그림 5-1] 반디돌봄센터 / 예봄돌봄센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 이용 대상 및 운영 현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자녀(24개월~10세)
 - 긴급한 경우나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11세~13세도 이용 가능
 -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월요일 휴무)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원(석식 및 간식 비용 별도)의 비용으로 이용
 - 돌봄 프로그램으로는 미술활동, 요리활동, 동화 구연, 신체활동 등 예술인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5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15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30억 원

〈표 5-9〉 경기도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경기예술인자 녀돌봄지원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사업비	50	1500	3000
		항목	사전조사	센터구축	운영비
		소계	50	1550	3000

제3절 동행(소외 및 장애예술인 지원 전략)

1. 경기도형 앙떼르미땅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프랑스의 앙떼르미땅은 공연예술인을 비롯하여 영화, 방송, 음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로서 예술인들에게 제공되는 강력한 복지 제도의 기반임¹¹³⁾
 - 실업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304일 동안 최소한 507시간 이상 기간을 정한 고용 계약을 통해 근로를 하고 실업보험에 가입되어야 적용
 - 수급기간은 243일 혹은 8개월로 퇴직 시기(퇴직연금 개시 시기)까 지임

2) 필요성

-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형 실업보험제도의 기반구축이 필요
- 경기예술인의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 타 광역지자체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실업급여 제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나. 추진 방향

- 현재 프랑스의 앙떼르미땅 실행내용을 분석하여, 경기예술인에 적용가능한 가입 기간 및 고용 계약 적용조건 등의 분석 및 연구
- 실업급여수급 대상예술인들의 연습시간 및 예술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경기도형 앙떼르미땅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업무부서 및 인력개발

113) 고혜영(2020), 전게서.

- 고용법과 실업급여 관련 법률 이해에 따른 예술인 교육환경 구축
 - 제도의 이해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도형 앙떼르미땅

- 경기예술인에 적합한 계약 및 지급조건 등의 분석 및 제도수립연구
-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지원제도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업무부서 및 인력풀 확보
- 경기도형 실업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예술인 교육환경 구축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와 경기예술인온라인플랫폼사업과 연계해 온라인 교육 및 예술활동 증명시스템 구축

라. 기대효과

- 타 지원센터와 차별화된 경기예술인의 생활기반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경기도형 앙떼르미땅을 통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가장 강력한 예술인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작동될 수 있음
 - 예술활동 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여 예술인 자립과 권익보호 사업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마. 국내외 사례

1) 네델란드 WWIK¹¹⁴⁾

- 예술인의 최저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 젊은 예술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대 4년(48개월) 동안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지원함

114) 김선영(2018), 예술인 최저 임금 관련 네델란드 사례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지원 대상 : 예술을 전공했거나 이미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득이 연간 1,200유로 이하인 예술인
- 지원 금액 : 최저임금의 약 7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예술가의 개인적인 경제 수준이나 가족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결정함

2) 벨기에-실업급여

- 예술가가 작품을 하고 받은 임금을 예술가 기본 일일 수입으로 나누어 일일 계산을 하는 특수한 작업일수 계산법을 도입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획득 이후에는 67세까지 수급이 가능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3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21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42억 원

<표 5-10> 경기도형 앙떼르미땅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4	25-30
경기도형 앙떼르미땅	경기도형 앙떼르미땅사업	사업비	30	2100	4200
		항목	사전조사	운영비	운영비
	소계			30	2100

2.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작가의 인지도, 전시 규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등에 따라 정확한 기준이 없어 작가마다 협의에 의한 상이한 작가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에서 창작 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피¹¹⁵⁾ 개념을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 기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미술작가 보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시범운영함
 - 현재는 보수 산출기준을 만들어 고시하였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음¹¹⁶⁾
 - 전시의 범위는 미술관 및 각종 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전시, 대형전시프로젝트 및 비엔날레 등, 공공미술프로젝트, 정부 및 민간 기구에서 기획한 각종 미술 프로젝트에 주최측의 요구로 참여하게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¹¹⁷⁾
-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작가보수제
 - 작가보수제는 작가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작가를 개인전 개최 4회를 기준으로 두 등급으로 구분하고 월 기준단가에 전시종류에 따른 참여율, 전시기간, 전시종류 그리고 예산가중치를 곱하여 보수를 산출하였다. 국공립미술관에 전시하는 경우에 작가에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함
- 창작대가
 - 2017년 작가보수제 적용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8년에는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으로 확대 개편함
 - 작가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평론가 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115) 미술작가보수제(Artist's Fee)란 미술전시기획자가 미술작가에게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임. 미술작가들에게 창작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술작가의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아티스트피는 초대전시 등 창작 의뢰를 할 때 작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의 보수임.

116) 최현숙(2020),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제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법과 정책, 26(1), p.169.

117) 김혜인 외 3인, 「미술인 보수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p. 112.

- 작가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작가보수제와 달리 창작대가는 용역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작가보수제의 경우 그 성격이 모호하였는데 이를 용역제공 대가와 저작권 사용료로 이원화함으로써 대가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대가 기준에 대한 고시(제2019-11호)¹¹⁸⁾
- 창작대가는 저작권사용료와는 별도로 작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작가비와 사례비로 다시 세분화함
 - 작가비 산출
 - 작가비는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에 근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가비가 적용되는 미술작품에는 신작·구작 변형 그리고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됨
 - 작가비 산출 산식 = 1일 기준금액 × 전시일수 × 작가별 배분율 × 조정계수

〈표 5-11〉 작가비 산출방식

구분	작가비 산출방식
작가	<p>1일 기준금액(5만원) × 전시일수 × 작가별 배분율 × 조정계수</p> <p>* 1일 기준금액 = 1일평균매출액 × 사용요율 ** 작가별 배분율 = 1/참여작가수 *** 조정계수(0.7-1.0)는 전시예산, 반복출품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기획자가 자체판단</p>

출처: 최현숙(2020)

- 사례비
 - 사례비란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한 것에 대한 보수, 작가, 기획자, 평론가에게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됨
 - 사례비가 적용되는 미술작품에는 신작과 구작 변형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 창작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한 인

118) 최현숙(2020), 전게서.

건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짐

- 사례비 산출 산식 = 시간 기준금액 × 창작시간 × 전시유형 × 조정계수

〈표 5-12〉 사례비 산출방식

구분	사례비 산출방식
	시간 기준금액(15,778원*) × 창작시간** × 전시유형*** × 조정계수****
작가 전시기획자 평론가	* 학술용역인건비에 연동, 경력에 따라 1.0-1.8배 범위에서 전시기획자가 조정 가능 ** 창작시간은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 ***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0.7), 40인 초과 (0.6), 전시기획자가 조정 가능 ****조정계수(0.7~1.0)는 전시에산, 반복출품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출처: 최현숙(2020)

2) 필요성

- 문체부의 권고사항이 아닌 아티스트 피에 대한 표준 지급기준 제정을 통해 경기도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실행방안 필요

나. 추진 방향

- 작가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장르별 기준을 설정하고, 지급 가능한 작가보수제도의 적용 범위 등의 분석 및 연구
- 경기문화재단 내의 전시사업에 우선 시범 적용 후 아티스트피 지급 예술인 리서치를 통한 사업의 틀 마련
-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획/업무부서 마련
- 제도의 이해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환경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도예술인 미술작가보수제 표준안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대가 기준에 대한 고시(제2019-11호)와 각종

미술관 적용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보수산출기준 마련

- 작가의 인지도 등의 모호한 기준이 아닌 전시기획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통해 표준기준을 설정
- 국공립미술관, 갤러리 등의 전시공간에 따른 적용기준과 전시프로젝트 기획 성격에 따른 적용기준 마련

라. 기대효과

- 정당한 보수지급을 통해 경기예술인들의 창작생태계 개선
- 창작활동의 대한 존중의 의미로 이어지며, 경기예술인의 자긍심 고양
- 미술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¹¹⁹⁾
- 선도적 개념의 중요한 경기도형 예술인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마. 국내외 사례

- 외국의 경우 미술작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화가 안착되어 있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국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¹²⁰⁾

119) 최현숙(2020), 「미술작가보수(Artist's Fee)제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법과 정책, 26:1, p.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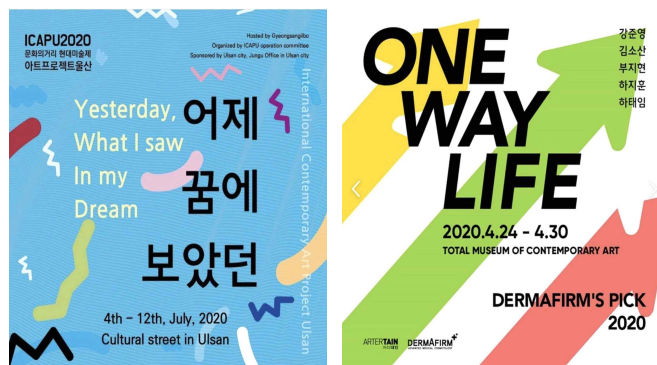
120) 김혜인 외 3인, 앞의 연구보고서, pp.60~90.

〈표 5-13〉 해외의 작가보수제도 명칭과 지원범위

국가명	작가보수제도 명칭	지원범위
캐나다	전시비(Exhibition Fees), 복제비(Reproduction), 광고 / 상업적 사용료(Advertising/Commercial Fees), 작가 전문성비(Artists' Professional Fee)	발표, 작가와의 대화, 간담회, 작품의 설치 혹은 해체, 준비 기간 등 예술가가 기여한 시간 및 용역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호주	작가비(Artist's Fees)라는 명칭을 사용	지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경력이나 계약형태, 작품 유형이 고려됨
영국	작가비(Artist's Fees)라는 명칭을 사용	재료비,생계비, 추가 여행비 등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전문적 사례비를 측정
미국	작가비(Artist's Fees)라는 명칭을 사용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비 및 용역(전시, 공연, 프로젝트 상영을 위한 공간 및 준비기간 동안의 공간비용, 배송 및 보험, 디스플레이 장비 및 전시에 필요한 장비 및 조명 비용, 전시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인쇄물 제작비용, 홍보비, 전시 관련 여행 혹은 숙박비,젯작비 포함
폴란드	작가비(Artist's Fees)라는 명칭을 사용	평균 월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최저 보수에는 제작비, 운송비, 숙박비, 여행비 등 다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노르웨이	작가비(Artist's Fees)라는 명칭을 사용	전시 자체에 대한 보수와 전시 기간 동안 작품에 대한 접근이나 판매 제한에 다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수가 포함

출처: 김혜인 외, 재구성

- 아트프로젝트울산 ICAPU 2020 & 토탈미술관의 ONE WAY LIFE 展
 - 아티스트 피가 지급된 2020년 개최전시 중 갤러리 전시와 미술관 전시의 두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그림 5-2] 아트프로젝트울산 ICAPU2020 & 토탈미술관의 ONE WAY LIFE 展

출처: 포스터이미지_경상일보, 토탈미술관 홈페이지

〈표 5-14〉 아티스트 피 지급 내역

구분	아트프로젝트 울산 ICAPU2020	토탈미술관 ONE WAY LIFE 展
전시기간	2020년 7월 4일 - 12일	2020년 4월 24일 - 30일
전시장소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일대 갤러리	토탈미술관
작가보수/1인	456,000원	2,000,000원
작가보수 외 지원사항	호텔숙식(5일)제공, 설치어시스트비용, 작품운송, 리플렛제작 지원	엽서제작, 홍보촬영지원
참여작가 수	31명	5명

출처: 해당전시 참여작가 자료제공 연구자 작성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3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6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12억 원

〈표 5-15〉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4	25-30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사업비	30	600	1200
		항목	사전연구	지원비	지원비
	소계			50	650

3.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2) 필요성

- 장애예술인의 창작·연습·발표 공간 조성, 예술교육 및 예술적 경험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운영을 통해 경기예술인 모두가 상생과 동행을 만들어가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방향

- 장애예술인들에게 여러 형태의 지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세분화
- 장애예술인과 예술인의 동반협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환경 구축
-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의 창작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수립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장애문화예술인지원센터(가칭) 설립

-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연습·발표 공간 지원
 - 청년 장애예술인 등 연령별 지원방안 모색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장애예술인단체와의 연계
-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적 경험 제공
 - 인공지능이나 VR 등을 활용한 예술 창·제작도구 활용 지원
- 예술인의 동반협력을 통한 공동체 환경 구축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운영

라. 기대효과

- 장애예술인 등 소외계층 예술인 지원에 대한 선도적 이미지 구축
- 장애예술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통한 예술교육 및 창작환경 개선
- 비장애 예술인과의 상생과 동행을 만들어가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마. 국내외 사례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출범
 - 주요 업무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자생적 창작생태계 구축, 장애예술인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창작역량강화,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발굴·지원
- 이음센터 사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이음아트홀, 이음갤러리, 연습실과 커뮤니티 룸, 야외무대 등에서 창작 발표와 문화예술교육 진행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5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6억 5천만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표 5-16〉 경기장애예술인 육성지원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경기첨단기술 융복합 예술센터	경기장애문화예술인지원센터	사업비	50	500	300
		항목	사전조사	건물임대 인테리어	운영비
	소계		50	650	600

4. 본부체제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현재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경기도의 높은 문화향유 수준과 문화예술 수에 대비해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소속의 작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필요성

- 최근 연이어 개소하고 있는 광역단위 예술인지원센터와 비교할 때 전문 부서 확대와 사업전담 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함
 - 타 광역지원센터 대비 적은 직원 수와 예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와 차별화된 예술인자립구축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본부체계의 지원센터 개편이 필요
- 예술인을 특화된 사업으로 지원하는 업무분장 부서 및 체계 필요
- 경기예술인의 개인별 특성, DB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운영환경 구축이 요구됨

나. 추진 방향

- 자립구축을 위한 창작생태계 제공 및 체감형 지원사업 확대 및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와 차별화된 예술인 자립에 특

성화된 지원 사업연구

- 실질적인 체감형 지원사업의 운영과 확대를 위한 사업부서의 세분화 및 전담인력 확보
- 경기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지향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
-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예술지원사업의 변화와 도약을 추구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인자립지원본부(가칭) 설립 운영

- 타 광역지자체와 차별화된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환경 구축
 -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 사업에 초점
- 경기예술인의 개인별 특성, 연령대, 경력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
 -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창작활동 지원정책을 제공
 - 예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아카이빙 구축
- 경기도 예술인만의 기회제공 및 창작생태계 개선
 - 지속적인 창작이 보장되는 환경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육지원

라. 기대효과

- 예술인 자립을 통한 선순환적인 창작생태계 조성
- 타 지역 대비 개선된 창작환경에 대한 경기예술인만의 자긍심 고양
 -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안정적인 생활여건 구축
- 전문화된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경기예술인과 센터의 신뢰와 상생 마련

마. 국내외 사례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 상해 및

재활을 돕는 진료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은퇴무용수의 전직 및 직업개발을 위한 무용 재활 트레이너 양성 등의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해 옴

- 전업전환 및 창업을 위한 전문가초청 <실무형 창의인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여 교육수료 후 창업지원
- ‘댄스플래너’ 등을 통해 무용예술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5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6억 5천만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표 5-17>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경기예술인자립지원본부(가칭) 설치 및 운영	사업비	20	200	600
		항목	사전조사	운영비	운영비
	소계			20	200

제4절 시장확산(예술시장 조성에 의한 자립기반구축전략)

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총 14,54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이중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311(9.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민간·예술인 사회적기업 간 다각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의 기회가 마련

2) 필요성

- 경기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예술인 자립 단체 결성 지원 필요
-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의 실질적 수혜 예술인 확대 필요

나. 추진 방향

- 지역 내 다양한 활동과 결합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보다는 민-민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
- 설립을 위한 관계 법률, 계약관계와 같은 세분화된 교육환경 구축
- 예술인 조합들의 협의체 구성과 연계모델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자생력 있는 조합육성을 위한 설립목표와 조직구축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도예술인협동조합 거버넌스협의체(가칭) 운영

- 예술인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의 행정지원
- 조합설립을 위한 법률, 세무, 운영체계 등 교육 제공
 - 분야별, 장르별 협동조합의 설립방안, 홍보방안, 협동조합 주체들에 대한 교육 메뉴얼 구축
 -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예술인(조합)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운영 교육을 비롯해 언택트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민-민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기대효과

- 예술인조합 결성 확대 및 운영의 건실화를 통해 예술사업체 확대
-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제시를 통해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례와 운영모델 발굴

마. 국내외 사례

1) 벨기에 예술인 협동조합 스마트(SMart)

-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윈스톱 체제 구축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행정업무,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
 - 창업활동 지원, 제작 사업자 등록, 장비 및 도구 등의 공유
 - 예술인 협동조합 성공사례로 현재 유럽 9개국으로 확대 운영 중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2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15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30억 원

〈표 5-18〉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경기예술인협동조합 거버넌스협의체 설립 미 운영	사업비	20	150	300
		항목	사전조사	지원비	지원비
	소계			20	150

2.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국내의 예술인 협동조합은 현재 경영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예술 장르 간, 세대 간 참여활동이 제한적이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조합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경기도형 예술인 조합'에 대한 모델 개발이 시급함

2) 필요성

- 예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원과 더불어 설립 초창기의 조합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생산을 위한 거점공간이 필요함

나. 추진 방향

- 협동조합 거점 공간구축을 통해 조합 운영의 구심점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경기예술인조합 활동의 기초 마련
- 각 분야별, 니즈별, 추진목표에 맞게 세분화한 협동조합을 결성 및 운영

지원

- 청년예술인 중심의 사업추진 주체와 인적네트워크가 비교적 풍부한 중·장년 중심의 조직 간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이 가지는 장점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교류와 협력 활성화 도모
- 협동조합의 사업과 예술 크라우드펀딩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 조합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기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 아트인 콥-Art in Coop(가칭) 설치 운영

- 경기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등 4개 권역에 설치
 - 1단계(2021년) : 경기 북부(의정부 등)에 설치 및 시범 운영
 - 2단계(2022-24년) : 경기 남부(수원 등)에 1차 확대 설치
 - 3단계(2025-30년) : 경기 동부(양평 등), 서부(시흥 등)에 설치
- 예술분야별 추진목표에 맞는 사업모델 확장 및 개발을 위한 행정지원
- 창생공간(2016-2018)의 사업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거점 공간 구축방안 모색
- ‘경기청년관’을 통한 청년예술인 주도형 조합설립 및 실전캠프 운영
- 중·장년중심의 조직구성을 추진하여 예술 인적네트워크 확장 및 연대
- 경기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과 연계한 조합의 마케팅 및 홍보 지원

2) 경기예술인 저작권보호센터 운영

- 예술인들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교육과 함께 권역별(경기 남/북부 또는 동/서/남/북부) 전담 변호사를 두어 창작저작권 관련 분쟁 시 피해예술인을 지원
- 예술인 또는 문화매개자들의 경력 관리와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교육

라. 기대효과

- 예술분야별, 생애주기별 목표에 맞는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발굴 가능

- 단순히 자립지원금 지급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예술인 사업모델 양성
- 창작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을 활용한 브랜딩 구축
- 예술인조합 거점 플랫폼을 통한 예술인협동조합의 확산

마. 국내외 사례

1) 독일 베를린 - 옛 경찰서 건물을 아틀리에로¹²¹⁾

- 베를린시는 크로이츠베르크-프리드리히스하인 구(舊) 프리덴 가의 옛 경찰서 건물을 조형 예술가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함
 - 창작공간은 예술이 창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베를린시는 예술가들을 위한 아틀리에·스튜디오·연습공간의 마련을 문화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있음
 - 베를린시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집세가 올라서 도심에서 이용 가능한 창작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 이에 베를린시 문화청은 독일복권재단에서 지원받은 140만 유로(약 17억 1,000만 원)로 폐쇄된 경찰서 건물을 수리한 후 아틀리에를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임대함
 - 2017년 중반 공사 완료 후 이 건물 안에 약 30개의 새로운 아틀리에가 자리 잡음
- 베를린시 문화청은 이와 함께 각 자치구, 예술가 협회, 관계기관 대표들과 함께 시 소유의 건물 중에서 잠재적으로 문화예술적 활용이 가능한 건물의 리스트를 작성함
 - 시는 이러한 건물을 활용하여 아틀리에 100곳을 더 확충하고자 함
 - 이번에 경찰서 건물을 아틀리에로 활용하게 되면서, 30곳의 아틀리에를 새로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베를린시는 시내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창작생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임

2) 프랑스 -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

121) 과천시(2018),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연구.

- 프랑스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은 단순한 작업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창작의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아틀리에에 입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아틀리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나 기존의 개인 공간 및 기존 아틀리에 수리 등의 지원도 포함
 - 지원 자격은 프랑스에 거주하며 화가, 판화가, 조각가, 사진가, 조형 예술가, 비디오작가 등의 예술가이면서 MDA나 AGESE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국공립차원에서 제공하는 작가 아틀리에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아틀리에 아파트와 작업 아틀리에가 있음
 - 아틀리에 아파트는 작업공간인 아틀리에와 거주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예술가들에게 최소의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취지로 만들어 짐
 - 아틀리에 아파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선택 기준(예술작업의 수준, 예술성 등), 소득수준의 기준, 조형작업과 해당 아틀리에 구조의 상관성, 예술가 가족의 수와 아틀리에 크기의 상관성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문제는 실제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움
- 작업아틀리에에는 예술작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 파리 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의 1기 임기 때부터 작업아틀리에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전시킴
 - 작업아틀리에에는 작가가 저렴하게 책정된 아틀리에 임대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주공간의 임대료와 작업 공간의 임대료를 중복해서 지불해야 하고, 거주지 인근에 작업아틀리에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최근에는 버려진 거주 공간이나 공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스콰트 운동(movement squat)이 일어나고 있고, 작가들이 일정한 아틀리에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대신 각 예술관이 제공하는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음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2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20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40억 원

<표 5-19> 협동조합 거점공간 구축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협동조합 거점공간 구축	경기 아트인 쿵 설치 운영 경기예술인 저작권보호센터 운영	사업비	20	2000	4000
		항목	사전조사	건물임대 및 운영	건물임대 및 운영
	소계		20	2000	4000

3.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 위원회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최근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이나 공연·발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온라인 기반의 모금 플랫폼들이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 사례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분야 투자형 클라우드펀딩’, 텀블벅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CO 클라우드펀딩’,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문화예술분야)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음

2) 필요성

- 예술 클라우드펀딩사업은 경기예술분야의 민간재원유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민-민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

나. 추진 방향

- 시혜성 성격의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성, 연속성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지원의 형태가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사업 방향 모색
 - 예술인개인분야, 예술단체분야, 사회적경제분야 등으로 방향 수립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 위원회

- 텀블벅, 와디즈 플랫폼의 예술클라우드펀딩 적용사례와 수익모델분석을 통한 후원, 협찬형이 아닌 투자형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투자자 = 1:1의 비율로 투자하여,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킴
- 예술장르별 펀딩기획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담부서 구축
- 경기예술인협동조합과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외 클라우드펀딩으로 플랫폼 확대 추진

라. 기대효과

- 예술분야 민간재원 유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
- 경기예술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로의 연계 가능성
- 창작활동관련 프로젝트펀딩과 예술스타트업의 펀딩 등 다양한 사업 진행 가능

마. 국내외 사례

- 인천문화재단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 사업예산 : 300,000,000원
 - 사업내용 :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및 예술단체

를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진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등 사업비의 40% 펀딩 달성 시 60% 지원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2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3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표 5-20〉 경기예술 크라우드펀딩 위원회 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경기예술 크라우드펀딩 위원회	경기예술 크라우드펀딩 위원회	사업비	20	300	600
		항목	사전조사 연구	투자지원	운영비
	소계		20	300	600

4.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

가.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최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¹²²⁾은 과

122)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는 2000년대 중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창업시스템으로 스타트업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창업지원체계를 의미함. 엑셀러레이팅 Process는 1) 프로그램 모집 공고, 2) 지원한 스타트업 중 우수한 스타트업 선정, 3)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오피스와 회의실 등 물리적 지원과 함께 투자자 연결, 해외 네트워크 연결 및 진출 등 창업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무조건적 지원은 지양), 4) 짧은 기간 동안 집중 멘토링 및 교육을 진행한 후에는 VC, 미디어, 고객을 대상으로 데모데이(DEMO Day)를 진행, 5) 엑셀러레이터는 통상 창업기업의 지분 5~10%를 받아 기업이 상장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김 등으로 이루어짐.

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프라이머, 네오플라이, 디캠프 등 민·관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기존 창업보육기관(인큐베이터)과 달리 액셀러레이터는 선발과정이 경쟁적이고 보육기간이 단기(3-6개월)이며, 소액의 지분 투자를 통해 보상으로 일부 지분을 취득하며 전문적인 초기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함

〈표 5-21〉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비교

구분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선발과정	경쟁적	비경쟁적
보육기간	단기(3-6개월)	장기(3-5년)
초기투자금	소액 지분 투자	없음
보상	일부 지분 취득	없음
주요 프로그램	전문적 초기 육성 프로그램	경영지원 서비스
지원 단위	기수별 집단 지원	개별 지원

출처: 최중빈(2019)

- 하지만 예술 스타트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팅은 게임, 콘텐츠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임

2) 필요성

- 창작공간지원, 작품창작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자생적인 창작활동의 기초체력으로서 예술스타트업의 확대와 창업환경 기반조성의 중요한 기초시스템이 될 수 있음

나. 추진 방향

-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심위위원이 ‘심의-컨설팅-모니터링’까지 진행
 - 심의위원이 심의를 통해 자립과 창업을 검토하고, 중간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마지막 평가까지 하는 일종의 일괄시스템
 - 예술인에게 실질적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의 범위를 ‘창업예정자’에서 ‘예술분야 초기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지원 트랙을 설정하여 지원

- 엑셀러레이팅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경기예술스타트업 지원센터 구축(가칭)

- 예술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창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 및 프로그램 구축
- 성공적인 창업기반을 위해 자립 런칭 사업비와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초기 창업단계의 사업지원 시스템 구축
 - 경기 예술클라우드펀딩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 예술장르 간, 기술 간, 산업 간 예술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기술(CT)을 활용한 창업 시도 활성화
-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예술창업가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모델 개발
 - 행정적, 법률적인 교육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컨설팅까지 진행
- 경기예술인조합의 수익사업과 연계 및 협업도 고려

라. 기대효과

- 예술 스타트업을 통해 창작활동의 능동적인 자립과 예술가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
- 창업 목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확보
- 생애주기별 멘토링 실행 및 사례를 통해 각 연령별 교육모델 도출
 - 신진 예술가의 자립구축을 위해 ‘심의-컨설팅-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일괄시스템을 통해 예술인에게 실질적 컨설팅
 - 중·장년 예술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인프라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연계 시스템 구축

마. 국내외 사례

1) 예술경영지원센터-IR 데모데이/문화예술+기업파트너스데이

- 예술 분야 스타트업에 관련하여 다양한 창업 준비 지원이나 초창기 창업 단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
 - 비즈니스모델 확장 및 개발 자금 지원, 전담 액셀러레이터 배치
 - 예술기업의 피칭 및 투자유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연계 매칭

2) 현대자동차-제로원(ZERO1NE Day)¹²³⁾

- 예술가와 개발자 등 창의인재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18년 시작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제로원데이,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실험과 작품을 전시¹²⁴⁾
 - 매년 창의인재를 모집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하여 예술과 기술, 비즈니스의 경계를 확장하도록 지원

바. 사업 재정계획

1) 단계별 사업 재정계획

- 1단계(2021년) : 2천만 원
- 2단계(2022년~2024년) : 3억 원
- 3단계(2025년~2030년) : 6억 원

<표 5-22> 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사업의 단계별 재정계획

(단위 : 년, 백만 원)

사업명	세부추진계획	항목	단계별		
			21	22-23	25-30
예술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	경기예술스타트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20	300	600
		항목	사전조사	지원비	지원비
	소계			50	300

123) 뉴시스/매일경제 www.newsis.com/ www.mk.co.kr 2020년11월3일/11월16일 검색.

124)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제로원데이를 전시로 대체함.

로드맵 및 추진 체계

제1절 추진로드맵

1. 사업별 우선순위
2. 단계별 추진계획

제2절 추진체계

1. 추진체계

제1절 추진로드맵

1. 사업별 우선순위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사업들을 시급성, 중요도, 특성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 1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이 있음
 - 2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경기예술 크라우드펀딩위원회 등이 있음
 - 3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경기도형 앙페르미당,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세 가지의 우선순위로 분류된 각 사업들은 현재 시점부터 2021년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현안과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면 모든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특징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기 및 기간이 상이하게 책정돼야 함
 - 각 사업의 특징과 관련 부처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돼야 함

■ 시급성

-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임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은 청년예술인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자립지원금 사업을 확대하여 중년, 장년, 노년층

예술가들에게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세대를 포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나아가 예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코로나19 혹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인터넷 영상에 의한 예술 유통이 일반화, 확산되는 양상에 대응하여 예술인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예술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영상예술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함
-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2019년 선제적으로 진행한 예술인 통계조사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데 기초적인 근거일 뿐 아니라 예술인 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임
-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업임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은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경기도 예술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예술인 작업의 특성에 적절한 직장형태인 협동조합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추진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설립의 촉진과 운영의 건실화를 위한 지원으로 집중되어야 함

■ 중요도

-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업으로는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본부체제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등이 있음
- 4차산업시대를 맞아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은 경기 예술인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예술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협동조합의 운영을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경기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족한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특성화

-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특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경기도형 아티스트 피 제도 등이 있음
 -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조성된 경기문화창조허브와 협력할 수 있어 경기도에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등은 수도권에 입지한 경기도의 여건 상 투자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가능함

〈표 6-1〉 순위별 추진사업명

우선순위	추진사업명
1순위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2순위	-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운영 -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3순위	-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경기도형 양떼르미당 -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표 6-2〉 사업별 우선순위

전략	사업명	시급성	중요도	특성화	우선순위
(융합)	1.1. 경기첨단기술융합예술센터 설립	△	○	◎	3
	1.2.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	○	◎	1
	1.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	◎	○	2
	1.4.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운영	○	△	△	2
(생애)	2.1.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	◎	◎	1
	2.2.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1
	2.3.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	△	◎	3
	2.4.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	△	3
(동행)	3.1.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	○	△	1
	3.2. 경기도형 앙데르미땅	△	△	○	3
	3.3. 경기도형 아티스티피 제도	○	△	◎	2
	3.4.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	◎	○	3
(시장 확산)	4.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	○	1
	4.2.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	◎	○	2
	4.3.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	△	◎	2
	4.4.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	○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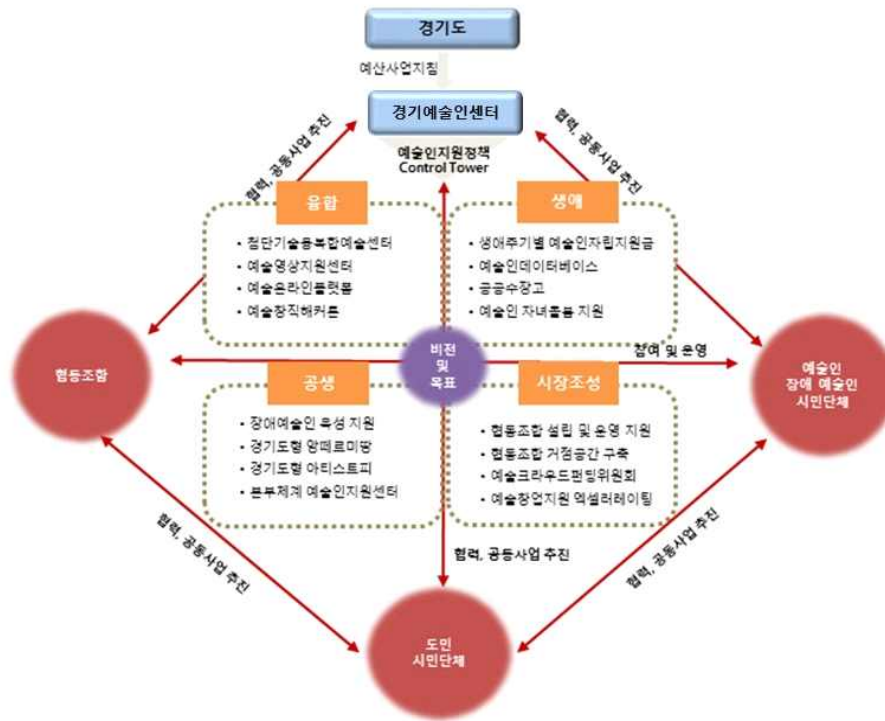
2. 단계별 추진계획

〈표 6-3〉 사업별 추진단계

전략	사업명	추진단계				
		2021	22	23	24	2025-2030
(융합)	1.1.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1.2.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1.3.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1.4. 경기예술창작해커튼 운영					
(생애)	2.1.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2.2.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2.3.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2.4.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공생)	3.1.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3.2. 경기도형 양떼르미당					
	3.3. 경기도형 아티스티피 제도					
	3.4.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시장 조성)	4.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4.2.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4.3.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4.4.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제2절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그림 6-1] 경기예술인지원의 추진체계

- 경기도 예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경기예술인센터(가칭)를 중심으로 경기도 예술인 지원 사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경기예술인센터는 예술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예술가 단체와 시민 및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할에 중점을 둠
- 경기도는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민-민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적으로 시행함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개정 고용보험법의 시행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특화된 예술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예술인 지원의 핵심 주체인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센터의 운영과 경기 예술인지원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기존 예술인지원사업의 개선 또는 발전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일회성의 단기적 대응요법이 아닌 경기도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 또는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예술인 지원을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지원, 권익보호, 직업 안정, 자립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부산 등 5개 광역단위 예술인지원센터들의 사업을 분석하였음
- 최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선도적으로 예술인 지원, 특히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어 예술인복지재단이나 타 광역 예술인지원센터와 구분됨
- 그러나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국평균 1,281만 원(2018예술인실태조사)의 71% 수준이며, 창작공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21.9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70.9%에 달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예술인 지원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민선 7기 지자체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 우려와 예술 소비시장의 변화, 뉴시니어의 등장 등 고령화에 따른 예술인 인구 구조의 변화, 4차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관련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센터와 차별화되고 보다 폭

넓게 경기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자립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다수의 의견이 모아짐

- 특히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예술인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기예술인 현황, 내외부 환경, 사례분석, 상위계획 등의 분석에 의거하여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비전을 ‘자립하는 경기예술인, 도약하는 예술인의 허브 경기’로 제안하였음. 이는 문화예술조성 사업의 경험을 연계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예술활동의 가치 확산을 창출하고 극대화하고 술가들과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유입 확대를 통해 창조도시 경기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SWOT 분석을 토대로 ‘연결’, ‘생애’, ‘동행’, ‘생산’이라는 4대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CLAP’이라는 전략 방향을 제시함. ‘CLAP’은 ‘박수를 치다’, ‘손뼉을 치다’의 의미로 예술인과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공감과 소통이 화합으로 이어지는 의미임
- ‘CLAP’에 따른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4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연결(Convergence: 융합 전략) : 융합(Convergence)의 범위를 예술 전체 장르와 타 분야까지로 확산함
 - 생애(Life: 생애 전략) : 생애(Life)는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아름다운 예술 생애’를 의미로서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전생애 주기에 배려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함
 - 동행(Accompany: 공생 전략) : 동행(Accompany)은 예술인-예술인, 예술인-행정부문, 예술인-타분야 간의 네트워킹(연결)을 강화하며, ‘장애예술인과 소외계층의 예술인들과 함께 가다’의 방향을 의미
 - 생산(Production: 시장확산 전략): 생산을 통한 시장확산(production)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자립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의 기초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
- 비전과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업 방식) 개별 사업 공모체계에서 예술인 중심 공모체계로 전환
 - (사업 대상) 청년 등 특정 계층의 예술인에서 전 생애주기 예술인 대상으로 전환. 소수 예술가 대상에서 다수의 예술가 대상으로, 장

애예술인 등 대상 확대

- (사업 범위) 휴먼웨어 중심에서 정책 거점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로 확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을 비롯한 기술예술 융합 사업 확대
- 비전과 전략에 따른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생애주기별 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 예술단체의 경영 안전성 확보
 - 온라인을 비롯한 예술가의 기술 융합 확대
 - 예술인 지원 거점 공간 조성
- 4대 전략에 따른 16개 핵심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음
 - 융합(첨단기술 융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구축,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경기예술창직해커톤 운영 등
 - 생애(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인지원 전략) :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지원(뷰티풀 아트라이프 in 경기), 경기예술인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수장고 설립,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등
 - 동행(소외 및 장애예술인 지원 전략) : 경기도형 양떼르미땅,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등
 - 시장확산(예술시장 조성에 의한 자립기반구축전략)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 위원회,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운영 등

제2절 정책 제언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센터와 차별화되고 보다 폭넓게 경기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자립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함. 예술인의 자립은 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유입 확대를 통해 창조도시 경기를 지원하는 것임
- 예술인 자립지원 확충은 기존 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을 예술인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사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자립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방향성에 기초하여야 함. 경기도는 문화 관련 예산이 2.0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 인구대비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예술 지원 예산의 확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핵심사업들은 시급성, 중요도, 특성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함으로써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생애주기별 예술인자립지원금, 경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기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임
 - 청년예술인에 한정되어 있는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을 생애 전주기에 걸쳐 확대하는 것은 사업체 및 협동조합 결성 등 실질적인 예술인 지원과 예술분야 일자리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아울러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위한 별도창작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창작공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21.9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남. 이는 경기도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 ‘경기예술영상지원센터 설립’ 또한 코로나 팬데믹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예술 영상의 품질 제고를 통해 예술인 개개인의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예술인 자립에 기여하고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예술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 2019년 시행한 경기도예술인 DB 구축 및 기초현황 실태조사의 경우,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함

- 2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예술온라인플랫폼 구축, 경기예술창작해커톤 운영, 경기도형 아티스트피 제도, 협동조합 거점 공간 구축, 경기예술 클라우드펀딩위원회 등이 있음
- 3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경기첨단기술융복합예술센터 설립, 경기 공공수장고 설립, 경기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경기도형 앙떼르미당, 본부체계로 예술인지원센터 개편, 예술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장애예술인 또는 기타 소외계층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연습·발표 공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 ‘인공지능이나 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제작 도구의 보급’, ‘장애예술인 대상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인복지재단 연계)’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예하 문예진흥팀 소속으로 센터장 1명, 상시직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조직을 향후 역할 확대에 대비하여 본부 체계로 순차적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일권(2017), 해커톤 팀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 팀 몰입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 고혜영(2020), 예술인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학 박사논문.
- 김기봉(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105-130.
- 김선영(2018), 예술인 최저 임금 관련 네델란드 사례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김선영(2018), 예술로 읽는 4차산업혁명, 별출판사.
- _____ (2020), 4차산업시대, 예술의 길, 봄봄스토리.
- _____ (2020), 영국 예술인조합 사례 연구, 경기문화재단.
- 김선영·이의신(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아시아문화전당 발전 방안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22, 41-55.
- _____ (2018), 서울아트마켓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플랫폼 도입방안 고찰,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3, 23-37.
- 김선영·최중빈(2020), 예술산업 유통채널로서의 공공MCN 고찰, 인문사회21, 11(2), 61-76.
- 김효영·박진완(2013), 문화콘텐츠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기술(CT) 분류체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5).
- 김희정(2013), 예술인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1(2).
- 나은(2012).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재철·김경진(2018),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의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483-493.
- 도경민(2018), 보이는 저장고(Visible Storage)에 대한 주요쟁점 분석과 시사점,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2).
- 문경일·배상빈(2009), 문화경제분석 I, 흥릉과학출판사.
- 문화관광부(2006),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 박영정(2006),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43-44.
- 박조원 외(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손동혁(2020), 인천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사례, 2020 온라인 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 양혜원(2016),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48.

- 이규석(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관광부.
- 이범현(2020),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도서출판 밭.
- 이상열(2019), 문화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9-54.
- 이한희(2018), 연극인 고용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임학순(2010), 디지털 미디어 발전에 따른 문화예술 환경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최문순(2017), “한국인디음악의 미래는 있는가”, 2017년 1월.
- 최중빈(2019), 엑셀러레이터의 관계효익이 서비스 관계의 질과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4(4), 1-2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우수 문화콘텐츠 상설전시관 구축 및 운영 기술개발 연구.
- _____ (2017), 문화기술(CT) 로드맵 2020 수립 연구.
- 황설화(2018), 정권별 문화정책이념에 관한 연구 : 문화적 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1-307.

보고서

- 경기도(2018), 경기비전 2040.
- _____ (2020),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 경기문화재단(2020), 2020사업계획서.
- 경기예술인지원센터(2020),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 _____ (2020),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경기콘텐츠진흥원(2019), 경기도 미디어센터·마을공동체미디어 실태 조사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 과천시(2018),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_____ (2020), 2020년 주요업무계획.
- _____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복지재단(2018), 예술인복지정책 공청회 자료, 2018.4.2.
- 서울문화재단(2016), 제8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 서울시(2020),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 예술인복지재단(2020), 2019예술인파견지원사업 사례집.
- 유엔(2009),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보고서.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울: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20년 사업공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설명회 자료집.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CT R&D 기본계획.

웹사이트

AI해커톤, <http://www.ai.hackthon.com>.
 경기문화재단, <https://www.ggcf.kr/archives/10929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caf.or.kr/>.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924010008080>.
 경향신문, <https://news.khan.co.kr>.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7270216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예술인 복지법」 제1장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저작권법」 .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https://Government.org.the Netherlands>.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84039&cid=58439&categoryId=58439>
 _____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26&cid=55570&categoryId=55570>
 _____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72&cid=43667&categoryId=43667>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dgfc.or.kr/>.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2/209446/>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sfc.or.kr/00main/main.php>.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수원일보, <http://www.suwonilbo.com>.
 시카고 예술가 자원 웹사이트, <https://www.chicagoartistresource.org>.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389646574>.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tscouncil.org.uk/>.
 예술경영웹진,
https://www.gokams.or.kr:442/webzine/vNew/colum/column_view.asp?idx=2336&page=1&c_idx=88&c_idx_2=all2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gokams.or.kr:442/main/main.aspx>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kawfartist.kr.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jact.or.kr/jact/index.do>.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s://www.jbct.or.kr/>.

제주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9595>

조선닷컴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6&t_num=13607621

캐나다연방정부법령, <https://laws-lois.justice.gc.ca>.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

포춘코리아,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471.html.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http://www.i-eum.or.kr/>.

연구진

연구책임

김선영(홍익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강석태(수원대학교 초빙교수)

연구보조

박소라(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발행인 : 강헌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0867
팩스 031-236-0283

프로젝트 총괄 : 주홍미
프로젝트 책임 : 권신·정지선
프로젝트 기획 : 박하늘

연구기관 :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마구 와우산로 94(상수동)
전화 02-320-3118
팩스 02-320-3120
<http://research.hongik.ac.kr/index.do>

발행일 : 2020년 11월
인쇄처 : 디자인이즈
